

# 일본의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농식품 대일 수출활성화 방안

김완배\* , 리금\*\* , 권수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동경대학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박사과정)

# 목 차

---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방법 .....	3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

## 제2장 일본의 농업·농정 동향

1. 생산 및 소득 구조 .....	5
1.1. 농경지 .....	5
1.2. 농가수 및 농가인구 .....	6
1.3. 경영규모 .....	11
1.4. 농업GDP 및 농가소득 .....	14
1.5. 농업경영구조 전망 .....	15
2. 주요 농산물의 수급동향 .....	16
2.1. 곡물류 .....	16
2.2. 채소류 및 과일류 .....	23
2.3. 축산물 .....	25
3. 농산물 무역 동향 .....	28
4. 농식품 수입체계의 특징 .....	33
5. 최근의 일본 농정 동향 .....	36
5.1. 식량·농업·농촌의 기본계획 .....	37
5.2. 21세기 신농정 2006 .....	41

5.3.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	44
-------------------------	----

### 제3장 재일 한인과 조직

1. 개 황 .....	47
2. 특 징 .....	51
3. 조 직 .....	52
3.1. 민 단 .....	52
3.2. 총 련 .....	61
3.3. 뉴커머 .....	62
3.4.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재일 한인 .....	62

### 제4장 대일 농식품 수출현황과 문제점

1. 대일 농식품 수출추이와 구조 .....	66
1.1. 농식품 수출 현황 .....	66
1.2. 대일 농식품 수출추이 .....	67
1.3. 품목별 대일 수출구조 .....	69
2. 농식품 수출 관련 체계 .....	77
2.1. 수출 농식품의 유통체계 .....	77
2.2. 수출 농산물 검역체계 .....	78
2.3. 수출 지원체계 .....	81
3. 대일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 .....	90

## 제5장 선진국의 농산물 수출전략

1. 일본의 농식품 수출전략	92
1.1. 현황	92
1.2. 정부의 추진체계	95
1.3. 일본의 농식품 수출사례	99
2. 선진국의 대일 수출전략	107
2.1. 프랑스 - 농식품진흥공사(SOPEXA)	107
2.2. 뉴질랜드 - 제스프리(Zespri)	108
2.3. 미국 - 돌(Dole)	111
2.4. 독일- 농산물진흥회(CMA)	113
2.5. 덴마크 - 농업이사회(DAC)	115

## 제6장 농식품 대일수출 활성화 방안

1. 새로운 방향과 전략	118
1.1 대일 농산품 수출의 SWOT 분석	118
1.2 새로운 방향과 전략	120
2. 분야별 주요과제	123
2.1 안전성 및 가격경쟁력 제고	123
2.2 한국의 식문화와 농식품 수출 간의 연계성 강화	123
2.3 재일한인 및 친한 일본인 조직의 활용	124
2.4 수출업체의 규모화 및 수출경로의 재정비	125
2.5 수출지원체계의 개선	126
3. 주요 수출유망품목별 보완사항	127
3.1 채소류 및 과채류	127
3.2 과실류	129

3.3 특용작물 및 산채류 .....	129
3.4 화훼류 .....	129
3.5 축산물 .....	130
3.6 가공식품류 .....	130
참고문헌 .....	132
부록 1 중앙 및 지역민단 주소록 .....	134
부록 2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별 재일 한인회사 목록 .....	143
부록 3 「한일 우정의 잔치」 참여 점포 .....	174
부록 4 재일 한국식품연합회 회원사 내역 .....	186
부록 5 농식품관련 재일 한국기업 목록 .....	187

## 표 목 차

---

### 제2장

표 2-1 농경지면적 변화추이(1994~2005) .....	6
표 2-2 경지면적 규모별 상위 10위 도부현(2004) .....	6
표 2-3 지역별 판매농가와 자급적 농가수(2005) .....	9
표 2-4 농가 호당 평균경영규모 추이(1960~2005) .....	12
표 2-5 일본의 국내GDP와 농업GDP 추이 .....	14
표 2-6 일본의 호당 농가소득 추이(1999~2003) .....	14
표 2-7 생산농업소득과 생산농업소득율 변화추이(1994~2004) .....	15
표 2-8 일본의 주요 농식품 수급현황(2004) .....	19
표 2-9 맥류의 수급 동향(2000~2004) .....	21
표 2-10 대두의 수급 동향(2000~2004) .....	23
표 2-11 축산물의 생산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추이 .....	26
표 2-12 사료 수요량 및 사료 자급율의 추이 .....	27
표 2-13 일본의 전체 수출입액과 농산물 수출입액 추이 .....	28
표 2-14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추이 (2001-2005) .....	29
표 2-15 농식품 수입국별 수입액 변화(추이) .....	30
표 2-16 수출국별 수출액 변화(추이) .....	31
표 2-17 농림수산물 품목별 수출입액(2005) .....	32
표 2-18 포지티브시스템의 기본구조 .....	36
표 2-19 일본의 식량 자급률 목표 .....	38

### 제3장

표 3-1 연령별 재일한인 인구 변동 추이(1985~2005년) .....	48
표 3-2 재일한인 집중 상위 10개 지역 1992~2005 .....	50
표 3-3 재일한인의 직업별 분포(2005) .....	50
표 3-4 민단의 단세(團勢) 현황(2005) .....	58
표 3-5 재일동포의 자연 및 실질 증가 추이(1955~2005) .....	59
표 3-6 민단 각급조직별 부동산 보유 현황(2006) .....	59
표 3-7 민단 보유 부동산의 법인 형태(2006) .....	60

### 제4장

표 4-1 국가별 수출실적(2001~2006) .....	66
표 4-2 농식품 수출 추이 .....	67
표 4-3 일본의 10대 농식품 수입선 .....	68
표 4-4 품목별 대일 수출 변화추이(2002~2006) .....	69
표 4-5 삼계탕의 국가별 수출 추이 (2004~2006) .....	74
표 4-6 한국산 주요 수입농산물의 검역결과(2005) .....	80
표 4-7 지역별 수출단지 지정현황 (2006.6) .....	81
표 4-8 수출지원사업별 지원계획(2007) .....	84
표 4-9 수출관련 자금지원 추이(1997~2006) .....	85
표 4-10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사업내용 (2006) .....	86
표 4-11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실적(2006) .....	88
표 4-12 지자체별 수출지원사업(2007) .....	89

### 제5장

표 5-1 부류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2001~2005) .....	93
표 5-2 주요국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2003~2005) .....	95

표 5-3 주요국별 · 품목별 수출비중(2005) .....	95
표 5-4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출촉진 지원 방향(2006) .....	98
표 5-5 제스프리 키위의 일본시장 점유율 .....	109
표 5-6 돌 재팬의 일본시장에 대한 단계별 수출전략 .....	112
표 5-7 덴마크 일본사무소의 분야별 활동 .....	115
표 5-8 덴마크산 돈육 · 치즈의 대일본 수출실적 .....	116

## 그 립 목 차

---

### 제2장

그림 2-1 일본의 광역단위별 지도 .....	5
그림 2-2 농가인구 및 비중의 추이(2001~2005) .....	7
그림 2-3 총 농가수의 변화추이(1920~2005) .....	7
그림 2-4 전 · 겸업 농가수의 변화추이(1925~2006) .....	8
그림 2-5 연령대별 농업취업인구 및 기간적 농업종사자(2006) .....	10
그림 2-6 성별 농업취업인구 및 기간적 농업 종사자 추이 .....	11
그림 2-7 일본의 경지면적 규모별 농가비율(2006) .....	12
그림 2-8 홋카이도의 경지면적 규모별 농가수(2006) .....	13
그림 2-9 농업경영조직별 농가수(2006) .....	13
그림 2-10 농업구조 전망, 2015년 .....	16
그림 2-11 수도 주요 품종별 식부면적 비율 추이(1975~2005) .....	17
그림 2-12 쌀의 분야별 소비비중 추이(1980~2004) .....	17
그림 2-13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	18
그림 2-14 맥류 (4맥) 의 생산 동향 .....	20

그림 2-15	밀의 생산 동향(1990~2005)	20
그림 2-16	밀의 소비 동향 (2004)	21
그림 2-17	신품종의 식부 비율 추이(2001~2005)	22
그림 2-18	대두의 생산 동향	22
그림 2-19	채소의 수급 및 1인당 소비량 추이	24
그림 2-20	과실류의 수급 및 1인당 소비량 추이	24
그림 2-21	1일 과일 섭취량	25
그림 2-22	1일 야채 요리 섭취량	25
그림 2-23	축산물별 가계 구입량 추이(1998~2004)	27
그림 2-24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추이	28
그림 2-25	식품 등 수입신청 절차	34
그림 2-26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개요	44
그림 2-27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보전방법	45

### 제3장

그림 3-1	민단의 조직 체계도	57
--------	------------	----

### 제4장

그림 4-1	대일 농식품 수출액 비중의 변화(1998~2006)	68
그림 4-2	주요 채소류 대일 수출실적 변화추이(1997~2006)	71
그림 4-3	대일 김치 수출실적(1997~2006)	72
그림 4-4	대일 화훼류 수출추이(1997~2006)	73
그림 4-5	대일 주류 수출실적(1997~2006)	75
그림 4-6	대일 산림부산물 수출추이(1997~2006)	75
그림 4-7	대일 면류 수출실적(1997~2006)	76
그림 4-8	대일 수출 농식품 유통체계 1	77

그림 4-9 대일 수출 농식품 유통체계 2 .....	77
그림 4-10 수출 농산물의 검역체계 .....	79
그림 4-11 수출지원체계 .....	82
그림 4-12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체계 .....	83

## 제5장

그림 5-1 일본 농식품 수출동향 .....	92
그림 5-2 수출선 상위 10개국의 변화(1989/2005) .....	94
그림 5-3 일본 농식품의 수출촉진 로고 .....	96
그림 5-4 일본 농식품의 해외 홍보자료(영어) .....	96
그림 5-5 2007년 수출촉진추진 체계도 .....	98
그림 5-6 제스프리의 일본시장 유통구조 .....	110
그림 5-7 Dole상품의 일본시장 유통구조 .....	113

## 제6장

그림 6-1 대일 농산물 수출의 SWOT 분석 .....	120
---------------------------------	-----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배경

- 1980년대 시작된 개방농정과 1993년 말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DDA 협상의 시작과 FTA의 확대, 중국의 WTO 회원국 가입 이후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수입확대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소비기반이 위축되고 농민들은 앞 다투어 수지맞는 작목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 결과 채소, 과수, 축산 및 일부 특용작물 쪽으로 생산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거의 전 품목에 걸쳐 가격하락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농촌의 생활환경 및 농민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농촌은 ‘머물러 살고 싶은 곳’이기보다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인식의 굴레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의 이같이 어려운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농업불가론’까지 들먹이며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아직 적은 지역이기는 하나 살만한 곳으로 변신하고 있는 농촌을 보면, 우리의 선택 및 정책의지에 따라 농업은 ‘수지맞는 산업’으로, 농촌은 ‘돌아가 살고 싶은 곳’으로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해외시장에 상륙하는 우리 농산물의 종류와 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농업에 충

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그러나 UR 협상 타결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수세적인 입장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나라 밖을 쳐다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개방 물결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재원과 노력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비형 농업정책을 공세형으로 전환하여 우리농업의 대외지향성 강화와 수출농업을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농업분야 재외동포들과 재외국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완배, 2004; 김성훈, 2004).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40여개 국가에 화교, 유대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670여만 명에 이르는 해외동포를 보유한 교민대국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중 많은 동포들이 농업생산 분야는 물론 유통 및 가공 등 농업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하여 성공적인 한국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완배, 2004). 이와 같이 세계 140여개 국가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 우리 농업인들이 연결될 경우 우리 농업의 국제화와 공세적인 해외시장 개척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 각개 약진하고 있는 한민족의 농업을 한데 묶어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여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 농업의 국제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국내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13%가 넘는 670만 재외동포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고정고객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농산물과 식문화의 전파 및 수요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농업은 현지 사정이나 여건에 밝은 해외동포 농업인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산물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4%에 불과하여 수출산업으로서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출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개방화시대 특히 현재와 같이 국내산 농산물의 과잉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된다.

-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 시장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특히 농식품수출은 더 커다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대일 농산물 수출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상품에 대한 신뢰성에 의해 좌우 된다. 일본 농산물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은 한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지만 품질경쟁력은 낮아 식품안전성, 동식물 검역문제 등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대륙성 · 해양성 기후가 마주치는 우리 농산물은 맛 좋고 향기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 땅값 등 생산비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뒤진 것을 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할 경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식품 안전성 강화를 통해 중국산 수출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실현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일본 수입업자는 상거래에서 특히 인간적인 신뢰를 중요시 하는 특성이 있다. 일본 소비자들의 식품기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일본 농산물시장의 거래관행에 익숙한 교민조직을 통해 시장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고 수출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장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해외 농산물 수출전략과 해외동포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연구들은 별개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지 사정이나 여건에 밝은 해외동포 농업인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해외 농산물 수출확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그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서 일본 내 한민족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일 농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 2. 연구 방법

- 현지 전문가, 공관, 교포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한민족으로서 농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재일한인의 데이터베이스 작성

- 농업인 중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명망 있는 농업인들의 네트워크(약한 연결 네트워크, weak tie)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강한 연결 네트워크, strong tie)등 일본내 재일한인 농업관련 네트워크의 내용 분석
-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및 농식품 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통계자료에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분석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터넷, 국내 일본 전문가 등을 이용한 정보 수집
- 현지 출장과 일본 전문가를 활용한 현지 농업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일본의 농업 현황, 농산물 수출입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에 수반되는 DATABASE의 구축은 향후 일본농업에 대한 사회 · 경제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농업인 네트워크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내 재일한인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한민족 네트워크 내 리더십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일본지역의 한민족 네트워크는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 네트워크로 활용될 것이다.
- 본 연구의 방법론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여 확대하게 되면 전 세계 차원의 한민족 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 농업의 또 다른 활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에 대한 농업 생산현황, 농산물 수출입 현황에 대한 검토와 한국 농산물의 대일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명망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약한 연결로 분리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정 행위(action)를 시도할 경우 강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한 연결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행위를 강제하는 힘이 강함. 네트워크의 분석 시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을 모두 고려하여야, 해당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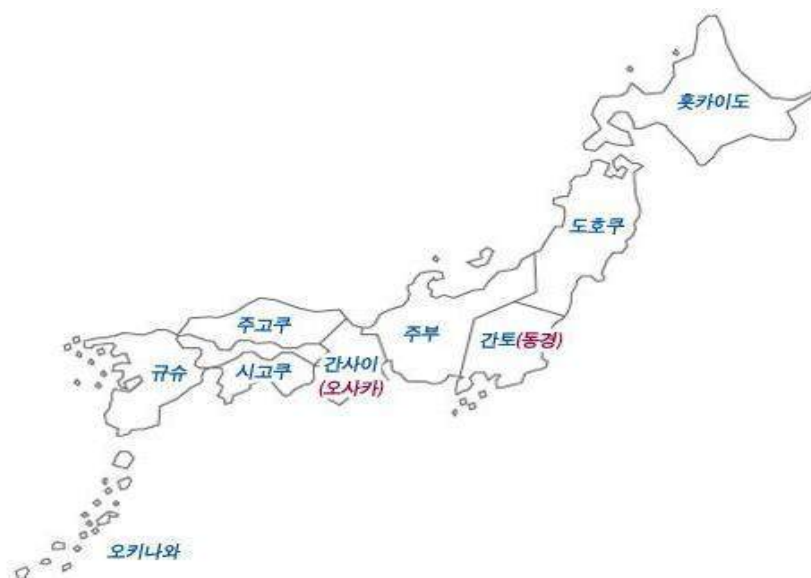
# 일본의 농업현황

### 1. 생산 및 소득 구조

#### 1.1. 농경지

- 일본은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남북으로 3,000km에 걸쳐 길게 늘어져 있다. 4개 주요 섬과 4,000여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주요 섬은 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이다. 총 면적은 약 38만km<sup>2</sup>로 국토의 4/5정도가 산지인데 경사면이 매우 가파르고 강과 공짜기가 많은 유년기 지형으로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고작 2005년 기준으로 12.4%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2-1> 일본의 광역단위별 지도



- 경지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령화, 노동력 부족, 경사지로서의 토지 조건, 또한 공장 및 택지로의 전용 등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농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밭면적보다도 논면적 감소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농경지면적 변화추이(1994~2005)

단위: 천ha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지면적	5,083	5,038	4,994	4,949	4,905	4,866	4,830	4,794	4,762	4,736	4,714	4,692
논 면적	2,764	2,745	2,724	2,701	2,679	2,659	2,641	2,624	2,607	2,592	2,575	2,556
밭 면적	2,318	2,293	2,269	2,248	2,226	2,207	2,189	2,170	2,156	2,144	2,139	2,136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각년도

- 하지만 홋카이도는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구미형의 대단위 농업지역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80%에 이르는 섬의 대부분이 밭작물 위주의 대규모 경영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표 2-2> 경지면적 규모별 상위 10위 도부현(2004)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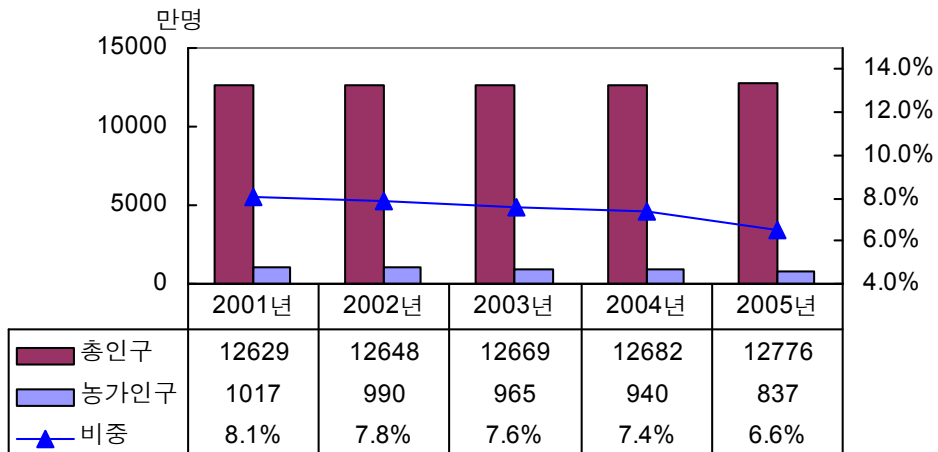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도부현	홋카이도	니가타	이바라키	아오모리	아와테	후쿠시마	아키타	미야기	토치기	카고시마
경지면적	1,172,000	178,800	177,500	159,700	157,100	154,000	152,800	138,600	130,700	126,000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5

## 1.2. 농가수 및 농가인구

- 일본의 농가인구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농가인구는 837만 명으로 총 인구의 6.6%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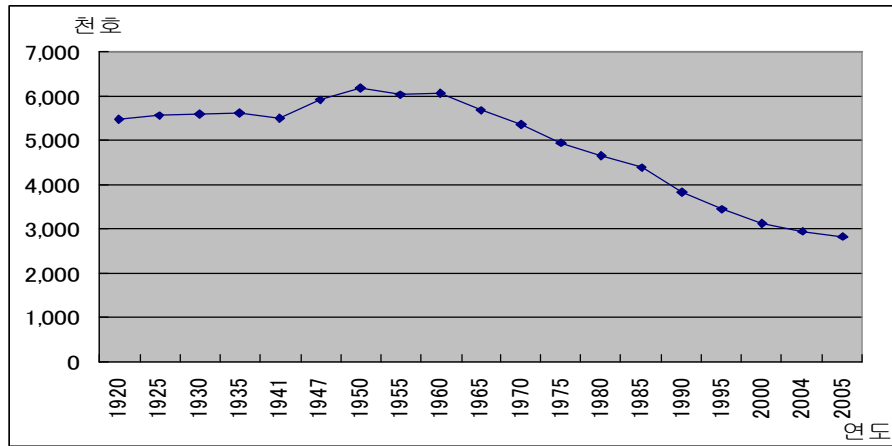
<그림 2-2> 농가인구 및 비중의 추이(2001~2005)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 일본의 총 농가수는 1920년에서 1940년 초반까지 약 550만호 수준이었고 1950년에는 약 617만호로 최절정을 보였으나 60년대 이후 감소를 계속하여 1990년에는 40년 만에 3분의 2 수준인 384만호로 감소되었다. 다시 10년만인 2000년에는 1950년의 절반수준인 310만호로 축소되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현재 285만호의 농가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총 농가수의 변화추이(1920~2005)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2006, 농업구조동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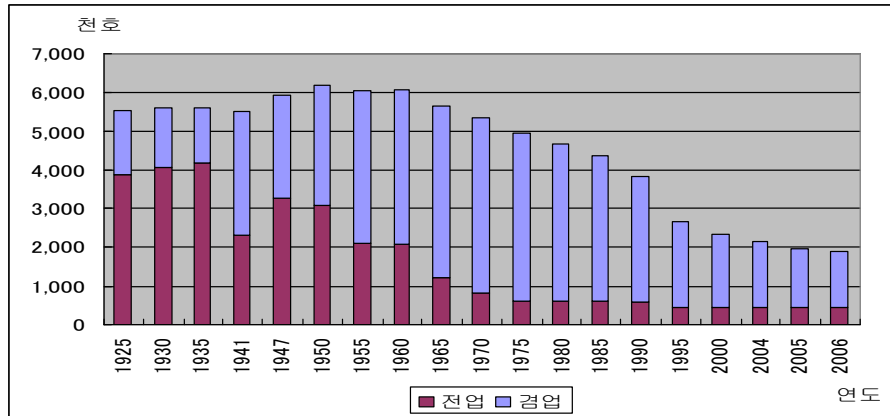
- 일본에서는 농가를 크게 판매농가와 자급농가로 분류한다. 판매농가의 분류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주업농가, 준주업농가, 부업적 농가<sup>2)</sup>로 구분된다. 2005년 기준으로 주업농가 43만호, 준주업농가 45만호, 부업적농가 109만호, 그리고 자급적농가 88만호 등 285만호로 구성되어 있다.
- 다른 방법은 판매농가를 전업농가와 겸업농가<sup>3)</sup>로 구분한다. 겸업농가에는 제1종겸업농가와 제2종겸업농가가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전업농가수 44만호, 제1종겸업농가수 31만호, 제2종겸업농가 121만호였다. 이는 일본의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을 통한 소득보다 농업 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 <그림 2-4>는 1925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의 전업과 겸업 농가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1930년대 중반까지는 전업농가의 수가 겸업농가의 수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40년대를 지나 1950년에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955년 이후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세대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의 비율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965년부터 75년 사이에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 약 20%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70년대를 거쳐 200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2) 주업농가: 농업소득이 주된 소득원, 일년동안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노동력이 있는 농가  
 준주업농가: 농외소득이 주된 소득원, 일년동안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노동력이 있는 농가  
 부업적 농가: 일년동안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노동력이 없는 농가(주업농가 및 준주업농가 이외의 농가)

3) 전업농가: 세대원 중, 겸업 종사자가 한사람도 없는 농가  
 제1종겸업농가: 세대원 중, 겸업종사자가 한사람 이상 있지만, 농업소득이 겸업소득보다 많은 농가  
 제2종겸업농가: 세대원 중, 겸업종사자가 한사람 이상 있고, 겸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가

로 농가수가 많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전업농가의 비율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전·겸업 농가수의 변화추이(1925~2006)



주: 1990년 이후는 판매농가를 나타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 2005년도 현재 지역별 판매농가와 자급적 농가수를 살펴보면, 총 농가수 285만호 가운데 칸토·히가시야마 지역이 62만호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토호쿠 지역이 46만호, 큐슈가 42만호의 순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판매농가는 총 농가 가운데 약 70%인 196만호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지역이 88%(6만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토호쿠 지역이 80%(37만호), 호쿠리쿠 76%(16만호)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자급적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토카이 지역으로, 41%에 해당하는 12만호가 자급적농가였다. 다음으로는 킨키 지역이 38%인 약 11만호가 자급적농가였다.

<표 2-3> 지역별 판매농가와 자급적 농가수(2005)

지역	총 농가	판매농가		자급적농가	
		농가수	%	농가수	%
전 국	2,848,166	1,963,424	68.9	884,742	31.1
홋카이도	59,108	51,990	88.0	7,118	12.0
토호쿠	463,460	370,786	80.0	92,674	20.0
호쿠리쿠	212,324	161,777	76.2	50,547	23.8
칸토 · 히가시야마	619,960	416,779	67.2	203,181	32.8
토카이	306,620	182,258	59.4	124,362	40.6
킨키	282,296	175,197	62.1	107,099	37.9
추고쿠	285,116	180,363	63.3	104,753	36.7
시코쿠	174,202	113,728	65.3	60,474	34.7
큐슈	421,066	293,393	69.7	127,673	30.3
오кина와	24,014	17,153	71.4	6,861	28.6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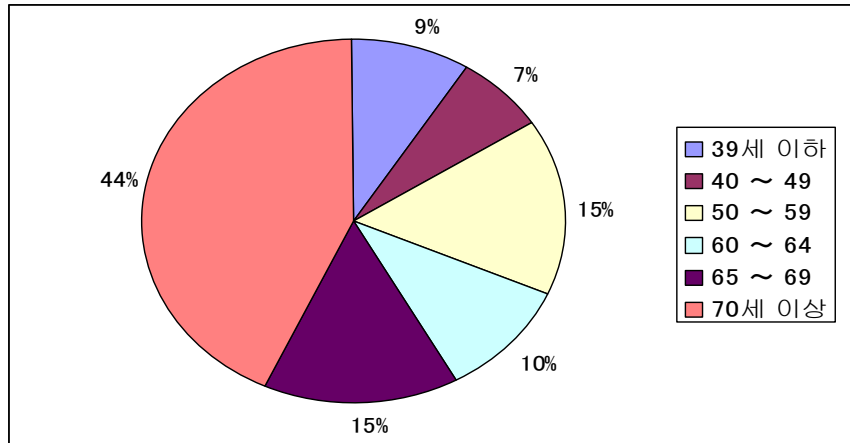
- 일본 농업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연령별 농업취업인구<sup>4)</sup>와 기간적 농업 종사자<sup>5)</sup>의 분포는 <그림 2-5>와 같다. 농업취업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70세 이상으로 44%(140만명) 수준이며, 전체의 약 70%가 60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39세 이하의 농업취업인구는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러한 상황은 기간적 농업 종사자의 경우도 크게 차이가 없어 70세 이상이 40%(85만명)이었으며 60세 이상의 비율도 역시 7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기간적 농업 종사자의 경우 39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전체 농업취업 인구보다도 훨씬 적은 5%(10만명)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15세 이상의 농가인구 중 조사일 이전 1년간 농업에 종사한 자 혹은 농업과 겸업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한 일수가 더 많은 자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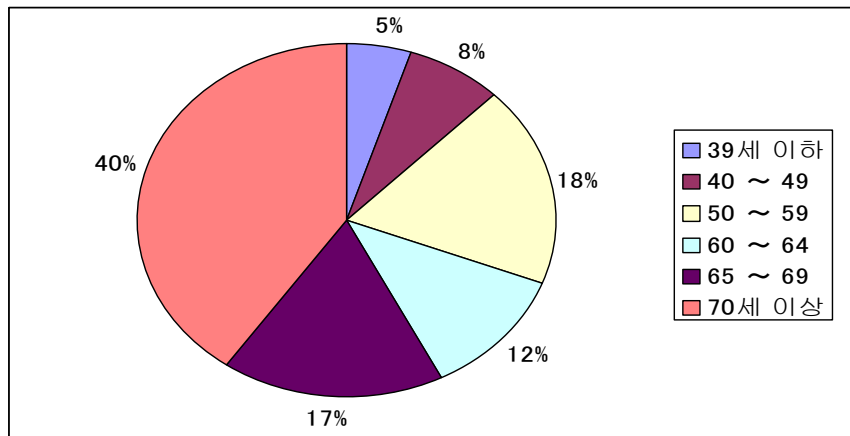
5) 농업취업인구 중 '일을 위주'로 하는 자를 말함.

<그림 2-5> 연령대별 농업취업인구 및 기간적 농업종사자(2006)

연령대별 농업취업인구



연령대별 기간적 농업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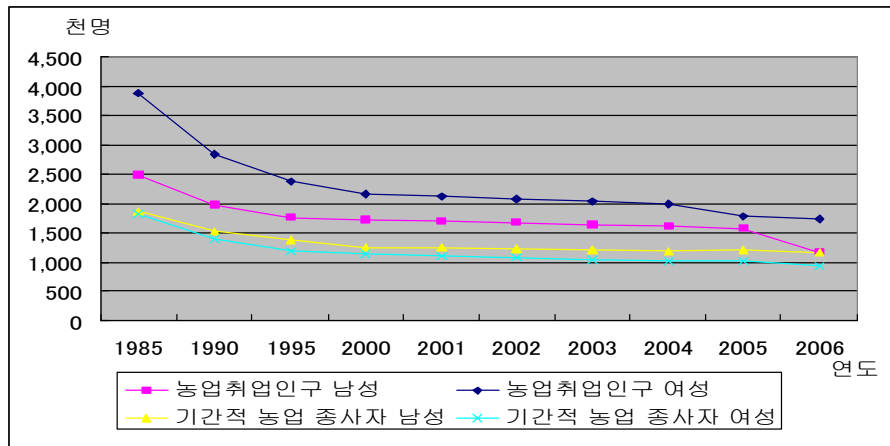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 농업취업인구는 1985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농업취업인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나 기간적 농업 종사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다. <그림 2-6>은 1985년부터 2006년 2월 현재의 성별 농업취업인구 및 기간적 농업 종사자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총 농업취업인구를 보면 1985년 637만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324만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로 줄어들었으며 총 기간적 농업 종사자수는 1985년에 370만명이던 것이 2006년에 210만명으로 줄었다. 또 농업취업인구 가운데 기간적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1985년에는 농업취업인구의 약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3분의 2의 수준으로

그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 농업취업인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나 기간적 농업 종사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다. 농업취업인구는 남녀 모두 1985년에서 1990년의 5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 2000년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여성 농업취업인구는 2005년에 급격히 줄어들어 179만명이었으며 2006년 현재 17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 농업취업인구는 1995년 177만명을 기록한 이후 큰 폭의 감소가 없었으나 2006년에 들어 117만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 기간적 농업 종사자수도 1985년에서 1990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1995년 이후 큰 폭의 감소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5년에는 남성의 경우 2004년 119만명에서 121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의 경우도 101만명에서 103만명으로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다시 소폭 감소하여 남성의 경우 약 117만명, 여성의 경우는 93만명을 기록하였다.

<그림 2-6> 성별 농업취업인구 및 기간적 농업 종사자 추이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 1.3. 경영규모

- 일본의 농업경영구조 변화를 보면, 1950년대말 고도경제성장 이후 농가 호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도부현(都府縣)의 호당 경지규모는 1960년 0.77ha(北海道 3.54ha)에서 2005년 1.30ha(北海道 18.68ha) 1.7배(北海道 5.3배)로 확대되었다.

<표 2-4> 농가 호당 평균경영규모 추이(196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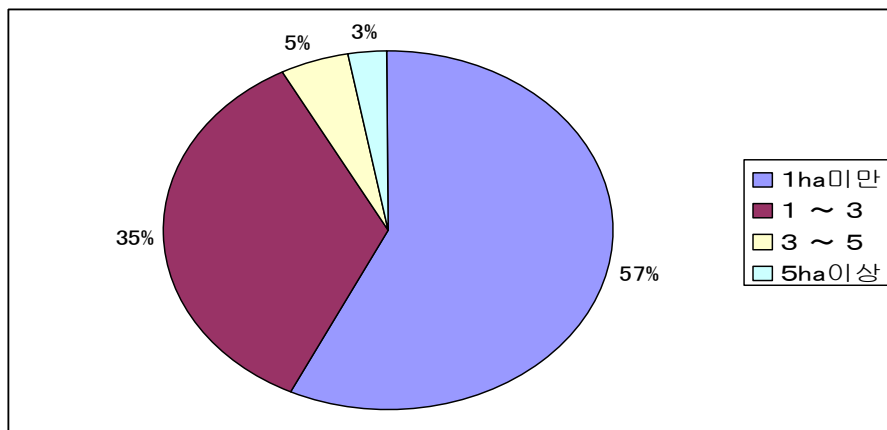
	1960(A)	1975	1985	2005(B)	B/A
경지면적(ha)					
북해도	3.54	6.76	9.28	18.68	5.3
도부현	0.77	0.80	0.83	1.30	1.7
부문별(전국평균)					
수도(a)	55.3	60.1	60.8	86.2	1.6
젓소(두)	2.0	11.2	25.6	59.7	29.9
비육우(두)	1.2	3.9	8.7	30.7	25.6
양돈(두)	2.4	34.4	129.0	1,095.0	456.3

주: 수도 및 양돈의 2005년 란은 2004년 수치임.

자료: 김태곤, 일본의 농업·농정동향,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

- 부문별로는 시설이용형 부문인 젓소와 비육우는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각각 29.9배, 25.6배 등으로 확대되었고, 양돈은 무려 456.3배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반면에 토지이용형 부문인 수도작은 1.5배 확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농정의 농업구조정책의 과제는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규모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일본의 농업경영구조는 영세 소농이면서, 분산된 농지필지, 그리고 쌀 중심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 2-7>은 경지면적 규모별 농가수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ha 미만으로 전체 농가의 절반을 넘는 약 57%(104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3ha 가 35%(65만호)를 차지하며, 5ha이상은 3%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2-7> 일본의 경지면적 규모별 농가비율(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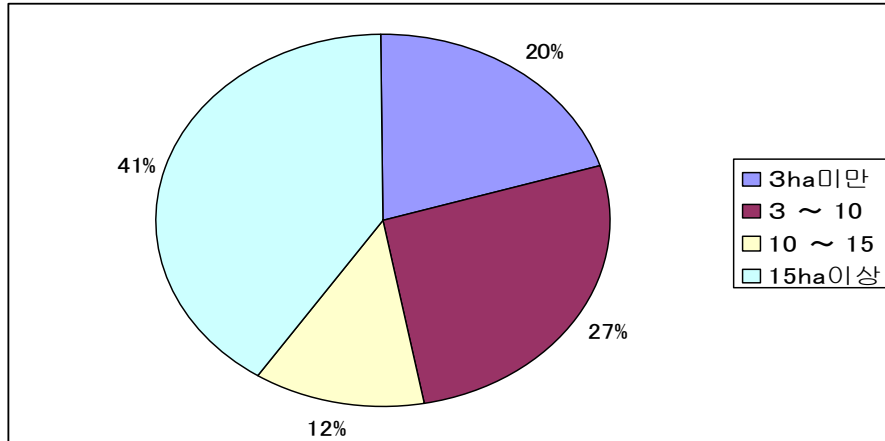


주: 홋카이도를 제외한 것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 반면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15ha 이상의 농가로 41%(2만호)에 달한다. 또한 3~10ha의 비율도 27%(1만호)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규모 농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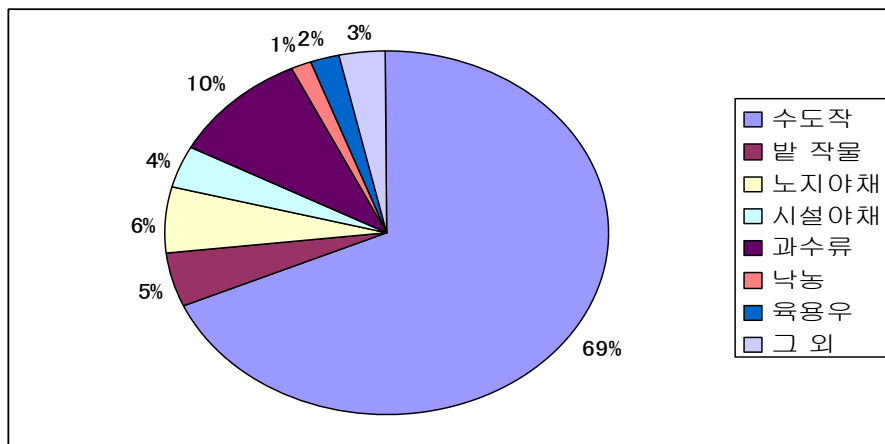
<그림 2-8> 홋카이도의 경지면적 규모별 농가수(2006)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 대부분의 일본 농가들은 한가지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단작경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도작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2006년 현재 수도작 농가수의 비중은 전체의 69% 수준이며, 다음으로 과실류 10%, 노지채소 6%, 밭작물 5%, 시설채소 4%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 농업경영조직별 농가수(2006)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 1.4. 농업GDP 및 농가소득

- 최근 일본 국내 총 GDP는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농업GDP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업 GDP의 비중은 1995년 1.44%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1.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04년에는 1.09%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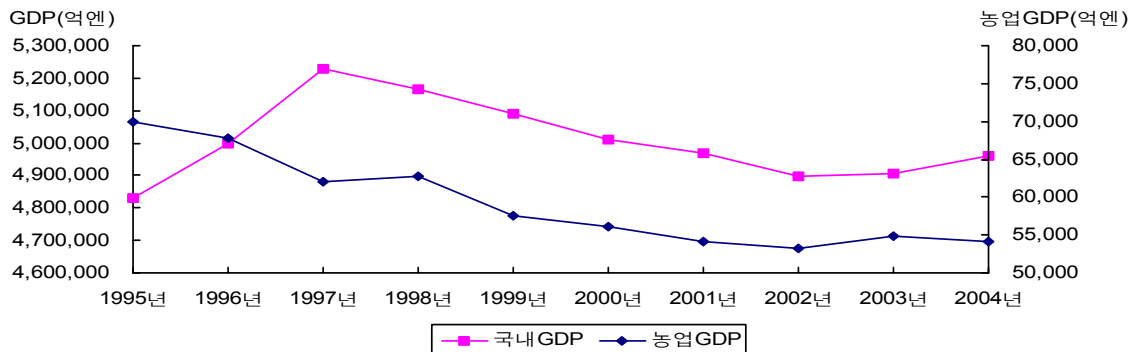
<표 2-5> 일본의 국내GDP와 농업GDP 추이

단위: 억 엔,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내GDP(A)	4,832,202	4,998,610	5,230,511	5,165,792	5,091,159	5,010,681	4,967,768	4,896,184	4,905,435	4,960,505
농업GDP(B)	69,921	67,836	62,056	62,753	57,550	56,120	54,105	53,227	54,797	54,043
B/A	1.44	1.36	1.19	1.21	1.13	1.12	1.09	1.09	1.12	1.09

주: 농업GDP는 농업과 임업을 포함함. 2004년도 농업GDP는 이전 3년의 평균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 일본 농가들의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호당 농가 소득은 1994년 846만엔 수준에서 2003년에는 771만엔으로 감소하였다. <표 2-6>

<표 2-6> 일본의 호당 농가소득 추이(1999~2003)

단위: 천엔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소득	8,459	8,280	8,022	7,842	7,712	5,083
농업소득	1,141	1,084	1,034	1,021	1,103	1,267
농외소득	5,130	4,975	4,751	4,527	4,323	2,241
연금 등 수입	2,188	2,221	2,237	2,294	2,286	1,575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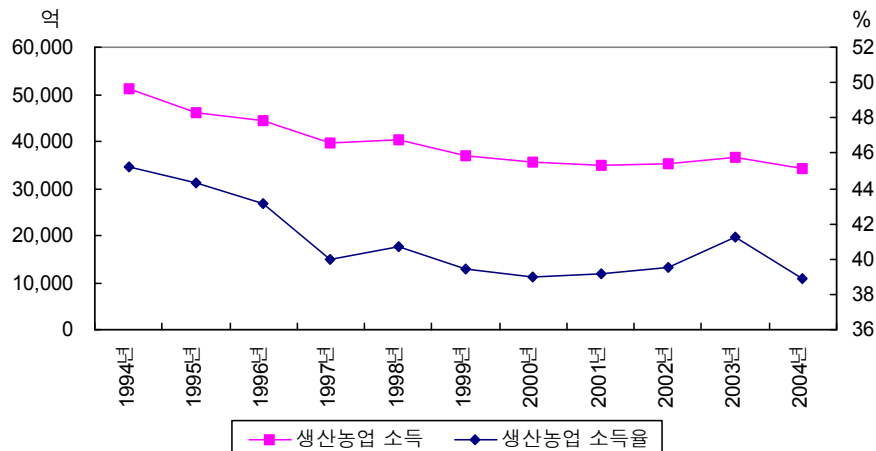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생산농업 소득을 역시 감소 추세를 보여 1994년 45.2% 수준에서 2000년에는 39%, 2004년에는 38.9%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표 2-7> 생산농업소득과 생산농업소득율 변화추이(1994~2004)

단위: 억엔, %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생산농업 소득(억엔)	51,084	46,255	44,421	39,651	40,440	36,865	35,562	34,848	35,232	36,528	34,152
생산농업 소득율(%)	45.2	44.3	43.1	40.0	40.7	39.4	39.0	39.2	39.5	41.2	38.9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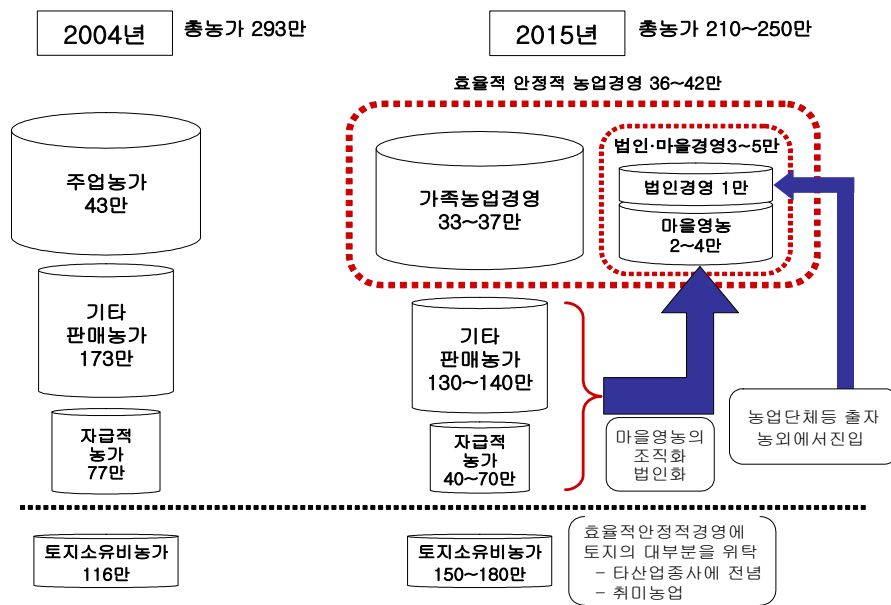


## 1.5. 농업경영구조 전망

- 일본 농정에 있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마을영농’을 구조정책의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개별경영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을 단위로 하는 마을영농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경영체로 인정하여 구조정책의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 이를 근거로 하여 2015년에 총농가수는 210~250만호로 감소하고, 이 중에서 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영체, 즉 구조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영체를 36~42만호로 전망하고 있다(일본농림수산성, 2005. 3).

- 구조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영주체의 구성은, 첫째 주업농가로 이루어진 가족 농업경영이 33~37만호(전체 농가의 15%), 둘째 법인경영 1만 조직, 마을영농 경영 2~4만 조직(평균 30호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60~129만 농가) 등으로 구성되는 법인·마을경영이 3~5만 조직이다.

<그림 2-10> 농업구조 전망, 2015년



자료: 김태곤, 일본의 농업·농정의 동향,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

## 2. 주요 농산물의 수급동향

### 2.1. 곡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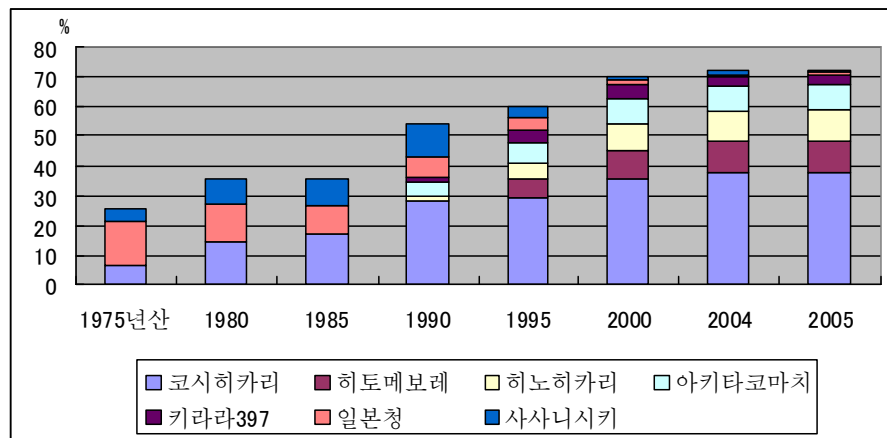
#### 가. 쌀

- 수도작은 일본 전체 농가의 7할이 재배하는 작물이다. 2005년도 수도의 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3.9%가 증가한 906만톤 이었다. 사단법인 전국 미곡 취급·가격형성센터(쌀 가격 센터)에 의하면 2005년도산 쌀의 입찰 가격은(2005년

8월 말~2006년 3월 말)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평균 60kg 당 200~700 엔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식량·농업·농촌 백서, 2006).

- 수도 주요 품종별 식부면적 비율의 추이는 <그림 2-11>과 같다. 우선 수도의 식부 면적 비율은 1975년에는 전체 식부 면적의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8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어나 2000년 이후 약 70%에 달하고 있다. 품종별로 보면 1975년 당시 전체 쌀 품종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던 코시히카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1990년 이후 전체 쌀 품종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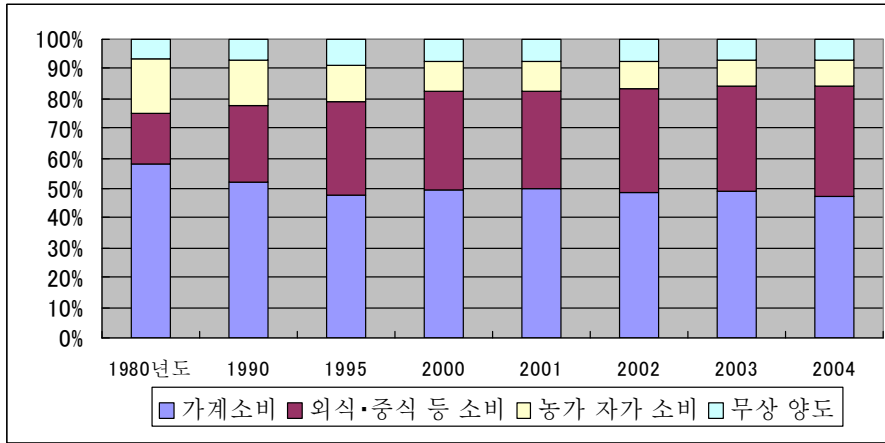
<그림 2-11> 수도 주요 품종별 식부면적 비율 추이(1975~2005)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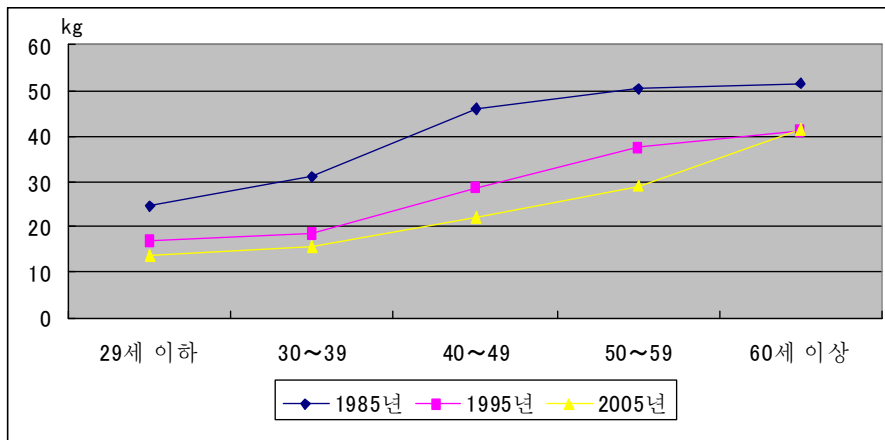
- 1980년도에 약60%에 가까웠던 쌀의 가정 소비 비율은 1990년도 이후 50%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20%에 가까웠던 농가 자가 소비 비율도 해마다 줄어 2004년에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식과 중식(中食) 등에 소비되는 비율은 해마다 늘어 1980년도에 15% 수준이었던 것에서 2004년도에는 무려 30%를 훨씬 넘고 있다. <그림 2-12>

<그림 2-12> 쌀의 분야별 소비비중 추이(1980~2004)



- 주1: 소비량은 공급 순 식량(주식용)을 현미 환산한 것임.  
 주2: 가정 소비는 2인 이상 세대(농림어업 세대를 제외함)의 세대원 1명당 쌀의 구입 수량을 현미 환산하여 총 인구를 곱해서 산출한 것임.  
 주3: 무상 양도란 농가 세대로부터 친족 등에게 증여한 수량을 말함.  
 주4: 외식 및 중식 등 소비란 소비량에서 가정 소비, 농가 자가 소비, 무상 양도를 뺀 것으로 쌀 가공 등도 포함함.  
 자료: 일본총무성 「가계 조사」, 일본농림수산성 「식량자급표」, 「생산자의 미곡 현재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농림수산성에서 계산

<그림 2-13>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 주: 2인 이상의 세대(농림어업 세대를 제외함)의 수치를 말함.  
 자료: 일본총무성 「가계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농림수산성에서 작성
- 가정에서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5년에서 1995년까지 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었으며, 1995년과 2005년 기간에서도 많게는 약 10kg (50~59 세) 이상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도 현재 60세 이상에서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41.4kg, 29세 이하에서는 60세 이상의 약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13.6kg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젊은 계층의 외식 및 중식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쌀 소비량이 크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일본의 주요 농식품 수급현황(2004)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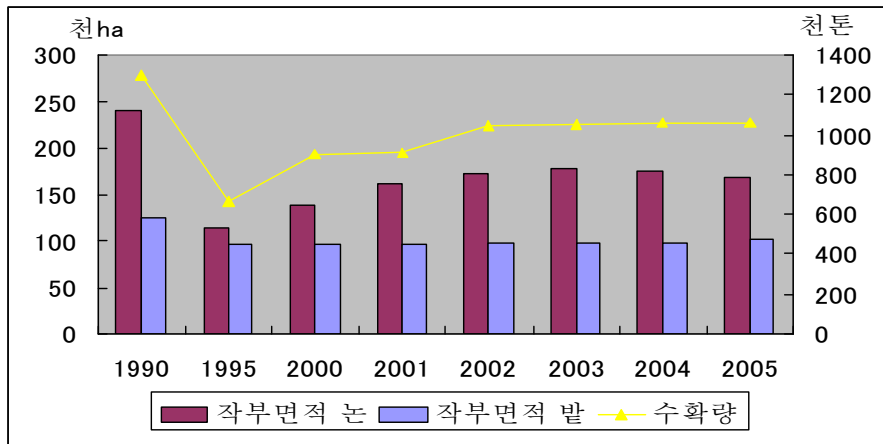
품목	국내생산량	국제무역		국내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가공용	식용용
곡 류	9,813	26,431	193	35,767	5,577	12,161
쌀	8,730	726	193	9,269	371	7,850
소 맥	860	5,484		6,266	364	4,123
보 리	183	2,094		2,315	1,055	31
나 맥	16	0		20	8	7
잡 곡	24	469		494	0	89
서 류	3,893	813	2	4,704	1,462	2,549
전 분	2,828	159		2,993	772	2,221
콩 류	303	4,754		5,162	3,653	1,191
채 소	12,286	3,051	4	15,333	0	11,864
과 일	3,457	5,353	44	8,761	16	5,298
육 류	3,024	2,532	1	5,520	0	3,547
계란	2,462	134	1	2,595	0	2,103
우유 및 유제품	8,290	3,995	9	12,319	0	11,948
어 패 류	5,135	6,055	627	10,481	0	4,411
해 조 류	120	68	3	185	23	162
설탕 류						
저 당	131	1,364	0	1,505	1,505	0
정 당	2,148	351	2	2,535	20	2,493
습みつ糖	22	19	0	41	0	41
당 밀	102	163	0	261	88	4
유 지 류	2,118	885	35	2,963	348	1,833
식물유지	1,787	768	33	2,517	236	1,677
동물유지	331	117	33	446	112	156
된 장	512	6	7	513	0	511
간 장	951	1	14	940	0	937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 나. 맥류

- 1990년에서 1995년 5년 동안 맥류는 식부면적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특히 논에서의 식부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이후 큰 변화는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맥류 (4맥) 의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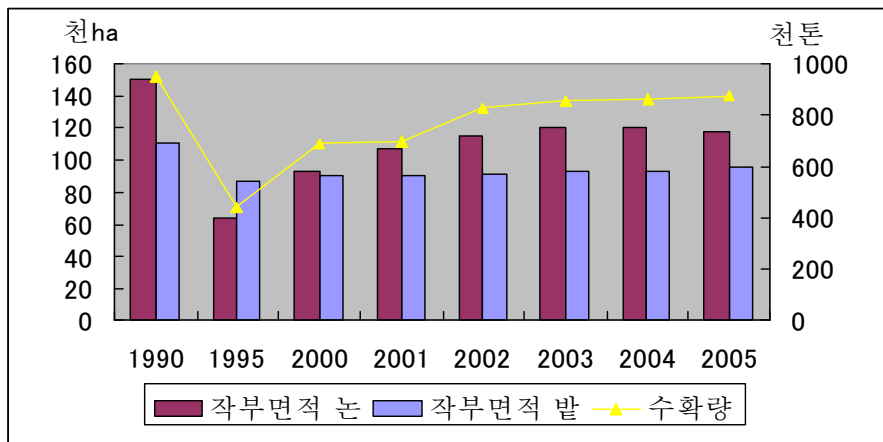


주: 4맥이란 밀, 이조 보리, 육조 보리 및 나맥을 말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작물 통계

- 밀 역시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식부면적과 수확량 모두 큰 폭으로 줄다가 2000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4맥 가운데 밀은 2005년 기준으로 87만5천 톤을 생산하여 전체 맥류 수확량인 105만8천톤의 약 83%에 이르고 있으며, 식부면적에서도 21만4천ha로 전체 식부면적인 26만8천ha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그림 2-15> 밀의 생산 동향(1990~2005)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작물 통계

- 밀 수입량은 2000년 596만톤 수준에서 국내생산량 증가에 따라 감소되어 2002년에는 497만톤으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수요량이 증가하여 2004년 수입량은 548만톤 수준이다. <표 2-9>

<표 2-9> 맥류의 수급 동향(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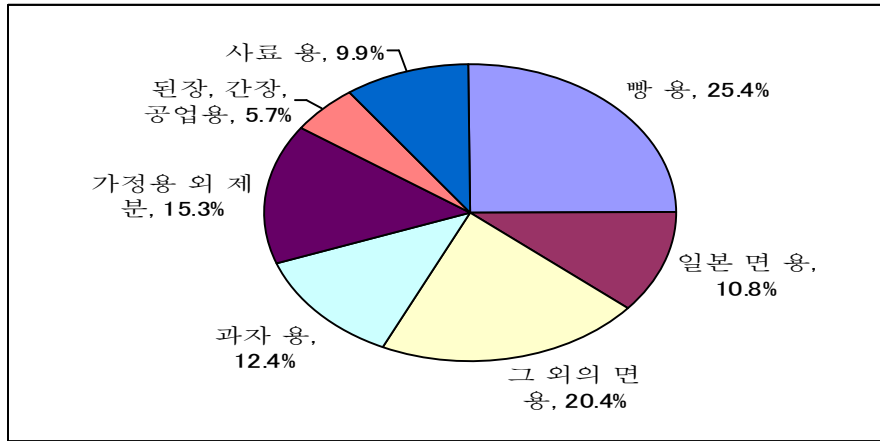
단위: 천톤

품목	연도	국내생산량	국제무역		국내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식용용	사료용	가공용	
소맥	2000년	688	5,688	0	6,311	5,299	446	383
	2001년	700	5,624	0	6,227	5,234	443	373
	2002년	829	4,973	0	6,203	5,207	440	375
	2003년	856	5,539	0	6,316	5,429	418	366
	2004년	860	5,484	0	6,266	5,431	421	364
보리	2000년	192	2,438	0	2,606	82	1,373	1,143
	2001년	187	2,153	0	2,526	83	1,329	1,106
	2002년	197	2,142	0	2,425	81	1,281	1,055
	2003년	180	1,999	0	2,263	1,195	4	984
	2004년	183	2,094	0	2,315	1,187	4	1,055
나뭇	2000년	22	1	0	21	13	0	7
	2001년	20	1	0	22	12	0	9
	2002년	20	0	0	20	9	0	10
	2003년	18	0	0	19	1	0	10
	2004년	16	0	0	20	0	0	8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통계 2006

- 밀의 용도별 소비는 면류용이 31.2%(이중 일본면용은 10.8%)로 가장 비중이 크고, 빵용 25.4%, 제분용(가정용 외) 15.3%, 과자용 12.4%, 사료용 9.9%, 장류(된장 및 간장) 5.7%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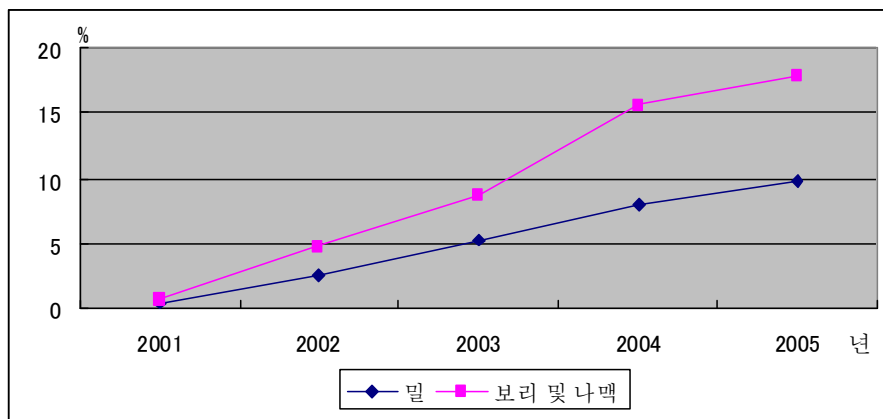
<그림 2-16> 밀의 소비 동향(2004)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일본 국내산 밀은 수입용 밀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균일하지 않고 제분 적성이나 면의 색상 등 가공 적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류로의 사용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리와 나맥은 최근 주식용과 소주용 등으로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품질 및 생산성의 향상, 생산의 안정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도부터 ‘맥신품종 긴급 개발 프로젝트’ 등에 의해 새로이 36품종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식량 농업 농촌 백서, 2006). 하지만 <그림 2-17>와 같이 신품종에 의한 식부 비율은 2005년 현재 보리 및 나맥에서 겨우 15%를 넘고 있으며 밀의 경우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신품종의 식부 비율 추이(200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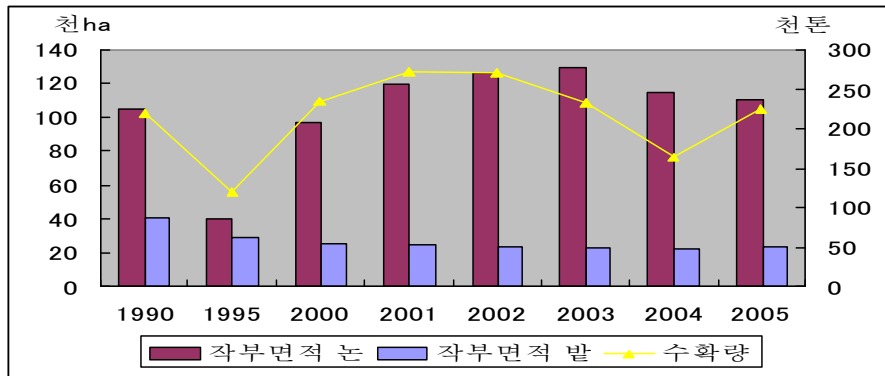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작물통계

## 다. 대두

- 국내산 대두는 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 이후 1995년까지 식부면적 및 생산량이 크게 줄다가,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2004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

<그림 2-18> 대두의 생산 동향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작물 통계

- 대두의 수입량은 2003년 517만톤 수준에 이르렀으나 2004년에는 441만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소비량 감소에 의한 것이다. <표 2-10>

<표 2-10> 대두의 수급 동향(2000~2004)

단위: 천톤

연도	국내생산량	국제무역		국내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식용용	사료용	가공용	
2000년	235	4,829	0	4,962	814	100	3,917
2001년	271	4,832	0	5,072	846	100	3,994
2002년	270	5,039	0	5,309	851	113	4,208
2003년	232	5,173	0	5,311	858	124	4,187
2004년	163	4,407	0	4,715	877	121	3,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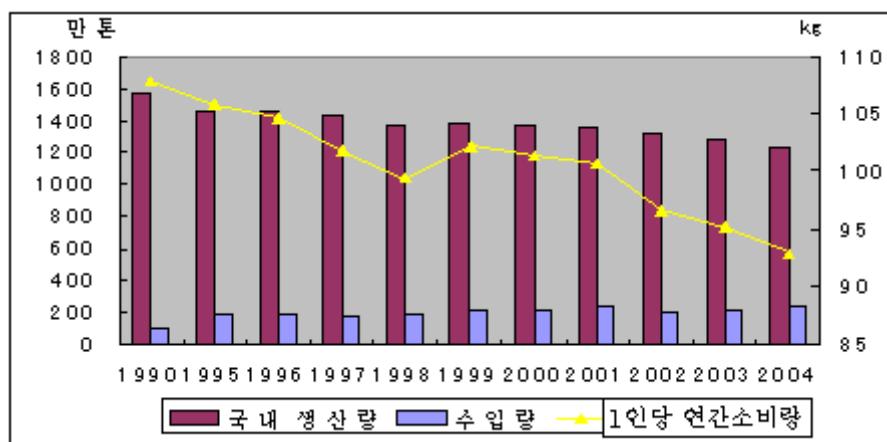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 국내산 대두는 거의 전량이 두부나 찐 콩, 낫또, 된장 및 간장 등의 식품용으로 가공되는데 입찰과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2.2. 채소류 및 과일류

- 채소의 생산량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04년도 채소의 소비량은 1,533만 3천톤으로 5년전에 비해 8.6% 감소하였다. 1인당 연간 소비량도 2004년에는 92.9kg로 5년전과 비교해서 9.1% 감소하였다. 수입량은 2004년도에 238만 4천톤으로 5년전과 비교해서 8.4%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년전에 비해 34.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입 채소 전체에 대한 중국산의 비중도 2004년도에는 5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채소의 수급 및 1인당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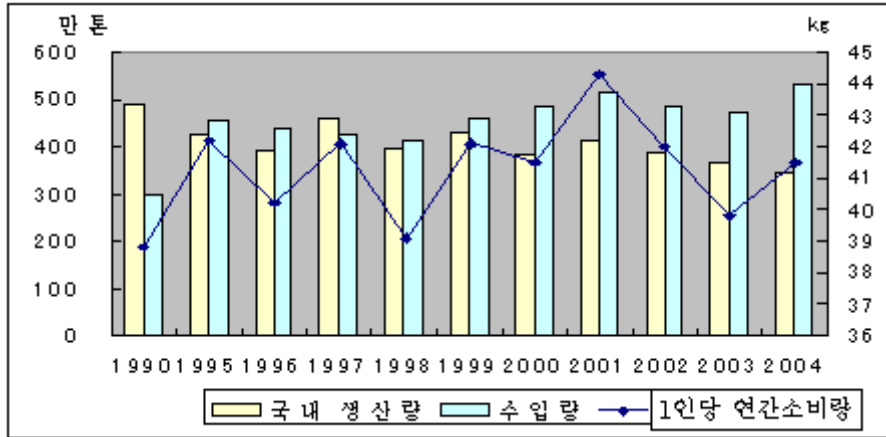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재무성, 무역 통계  
일본농림수산성, 식량 수급표

- 과실 및 과실 가공품은 1990년 이후 1997년을 제외하고는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웃돌고 있다. 2004년의 경우 국내 생산량에 비해 약 100만톤이 넘는 양

이 수입되었다. 또한 이러한 수급량과는 상관없이 소비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증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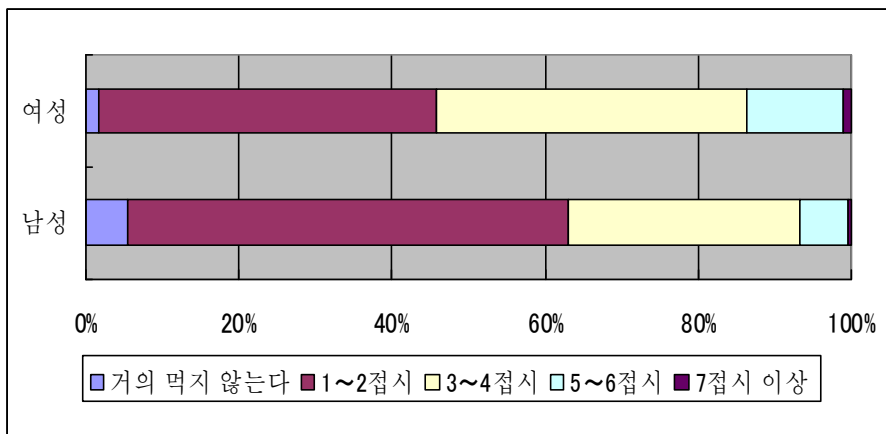
<그림 2-20> 과실류의 수급 및 1인당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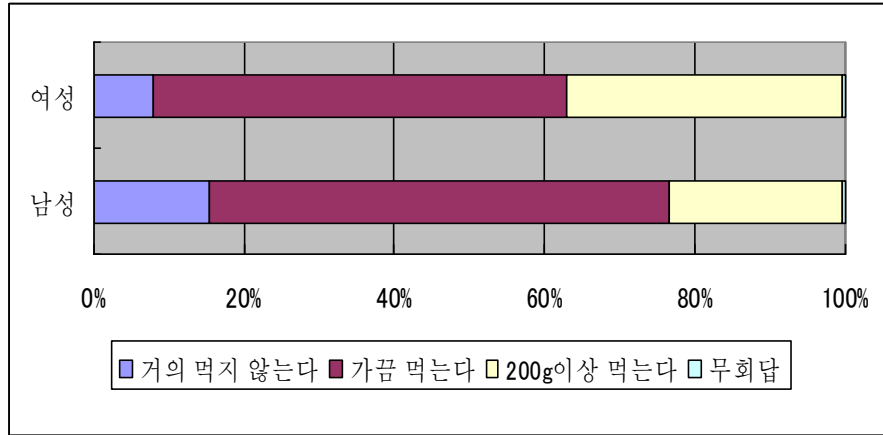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식량 수급표

- 야채와 과일의 소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소 경향이 있다. 건강유지를 위해 ‘야채 1일 5접시 분 (350g) 이상’, ‘매일 과일 200g 운동’ 등 소비확대운동이 국민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의 야채와 과일의 소비 경향을 보면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 <그림 2-22>
- 과일은 물론 채소의 1일 섭취량은 한국에 비해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채소소비량은 한국의 60%, 과일소비량은 80%에 불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1> 1일 과일 섭취량



<그림 2-22> 1일 야채 요리 섭취량



주: 전국의 20~69세의 남녀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회수율 87.8%)  
 자료: 야채 등 건강 식생활 협의회, 「야채·과일과 식생활에 관한 앙케이트, 2005.3.

### 2.3. 축산물

- 육류 전체로 볼 때 수요량은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사이에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2001년 9월 BSE문제 발생으로 2004년에 이르기까지 쇠고기의 수요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의 경우는 쇠고기의 대체재로서 이용되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는 2003년 12월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한 것에 이어 2004년 1월 일본 국내에서도 조류 독감이 발생됨에 따라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수요량이 줄고 있다. 한편 계란도 2003년과 2004년에 소폭의 감소되었으나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는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2-11>

<표 2-11> 축산물의 생산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추이

단위 :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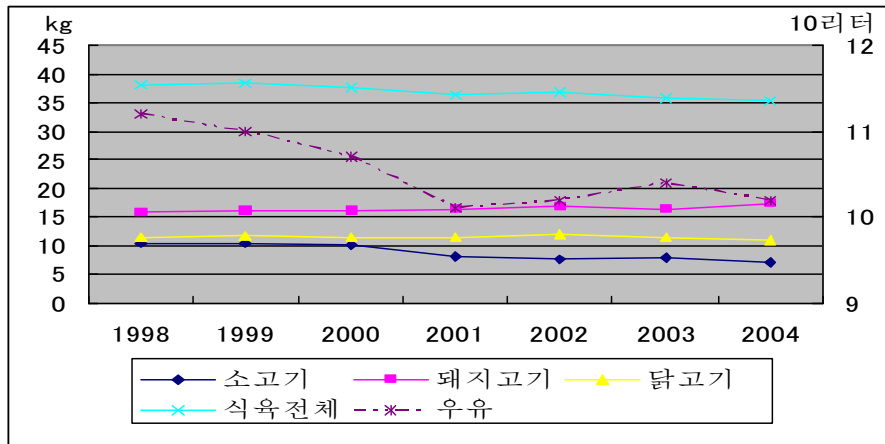
연도	육류 전체			소고기			돼지고기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1998	3,039	2,368	5,446	531	974	1,502	1,292	803	2,140
1999	3,032	2,578	5,538	545	975	1,507	1,276	953	2,180
2000	2,972	2,693	5,607	521	1,055	1,554	1,256	952	2,188
2001	2,917	2,604	5,434	470	868	1,304	1,231	1,034	2,236
2002	2,995	2,526	5,581	520	763	1,333	1,246	1,101	2,350
2003	3,018	2,473	5,545	505	743	1,291	1,274	1,145	2,406
2004	3,013	2,472	5,453	508	643	1,155	1,263	1,268	2,493

연도	닭고기			계란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생산량	수입량	수요량
1998	1,216	591	1,804	2,536	104	2,640	8,549	3,507	12,019
1999	1,211	650	1,851	2,539	119	2,658	8,513	3,683	12,129
2000	1,195	686	1,865	2,535	121	2,656	8,414	3,952	12,309
2001	1,216	702	1,894	2,519	114	2,633	8,312	3,896	12,174
2002	1,229	662	1,898	2,529	120	2,647	8,380	3,783	12,170
2003	1,239	585	1,848	2,525	110	2,633	8,405	3,925	12,205
2004	1,242	561	1,805	2,462	134	2,595	8,290	3,995	12,319

자료: 일본농림수산물성, 식량 수급표

- 식육 전체에 있어서는 전체 수요량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계 구입의 경우 2004년 현재, 6년전인 1998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의 구입량은 2001년에 급격히 줄었고 이후에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돼지고기의 구입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닭고기의 구입량은 2004년에 다소 감소되었고, 우유의 소비는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3>

<그림 2-23> 축산물별 가계 구입량 추이(1998~2004)



주: 2인 이상의 전 세대 (농림어업 세대를 제외함) 에 있어서 1세대당 연간 구입량을 말함.  
 자료: 일본총무성, 가계 조사

- 사료 수요량은 2001년 9월 BSE 발생으로 소의 출하가 일시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2002년에 조금 늘어났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4년에는 2,514만톤이었다. 조사료는 농후 사료의 4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농후 사료의 자급율이 10% 내외인 것에 비해 조사료의 자급율은 2004년 74%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료의 자급율은 2004년 현재 25.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12> 사료 수요량 및 사료 자급율의 추이

(단위 :만톤, %)

연도	수요량	조사료 공급량			농후 사료 공급량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순 국내산	
			양	비율		양	비율
2000년	2,548	576	449	78	1,973	218	11
2001년	2,537	557	435	78	1,980	200	10
2002년	2,571	566	439	78	2,005	195	10
2003년	2,549	539	407	76	2,010	190	9
2004년	2,514	564	420	74	1,950	211	11

주: 농후 사료 공급량의 '순 국내산' 란 국내산에서 유래하는 농후 사료 (국내산 사료용 밀과 보리 등) 을 말하며, 수입 식량 원료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 (수입 대두에서 착유한 후 발생하는 대두유 찌꺼기 등) 을 제외한 것을 말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 3. 농산물 무역 동향

-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최근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에는 2,260억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물의 수입액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5조 9,800억엔 수준이다. <표 2-13>

<표 2-13> 일본의 전체 수출입액과 농산물 수출입액 추이

단위: 억 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수출액	489,792	521,090	545,484	611,700	656,565
농산물수출액	2,090	2,144	2,049	2,126	2,260
총 수입액	424,155	422,275	443,620	492,166	569,494
농산물수입액	54,883	54,463	55,084	58,185	59,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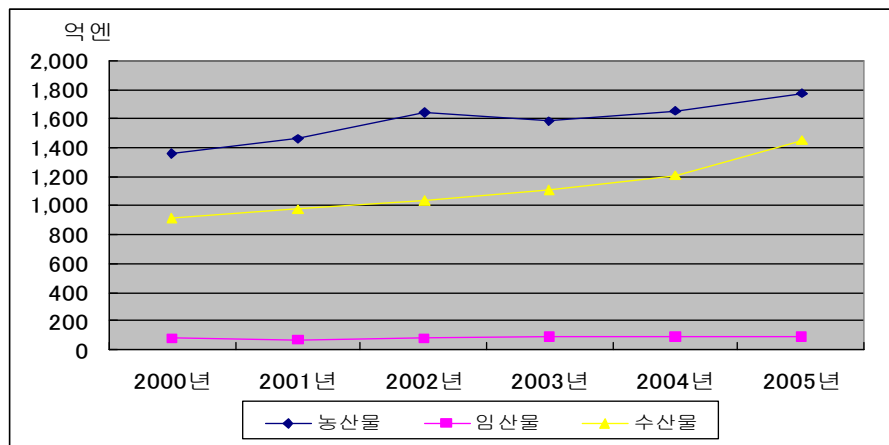
주: 농산물에는 임산물을 포함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 농림수산물 수출액 중 농산물이 가장 많아 2005년 현재 약 1,800억엔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산물의 수출액도 2005년에 급격히 늘어 약 1,400억엔을 넘고 있다. <그림 2-24>

<그림 2-24>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추이

단위 : 억엔



주1: 농산물은 담배 및 알코올 음료를, 수산물은 진주를 각각 제외한 금액임

2: 그래프의 상단의 수치는 농림 수산물 합계의 수출액임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수출 농식품 중 가장 중요한 품목은 사과로서 2005년 약 1만 7천 톤으로 금액은 약 53.5억엔에 달했으며 2000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8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다음으로 간장 수출액이 약 31억엔이었으며 녹차가 약 21억엔, 된장이 약 16억엔을 보이고 있다.
- 주요 수입품목으로서 농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옥수수, 수산물 중에서는 새우와 가다랭이 등이 차지하고 있다.

<표 2-14> 농림수산물의 수출입 추이 (2001-2005)

단위: 억엔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농림수산물 총 수입액	66,690	66,519	65,444	69,125	70,609
농산물	37,855	37,756	38,622	40,626	42,333
돼지고기	4,113	4,700	4,461	5,104	4,822
옥수수	2,370	2,495	2,778	3,175	2,851
임산물	11,891	11,452	11,403	12,446	11,965
가공재료	3,552	3,330	3,415	3,441	3,198
칩	2,134	2,086	1,981	2,097	2,264
수산물	16,944	17,311	15,379	16,054	16,310
새우	3,022	2,974	2,481	2,380	2,352
가다랭이·다랑어	2,214	2,405	2,215	2,335	2,152
농림수산물 총 수출액	3,649	2,759	2,789	2,954	3,310
농산물	2,601	1,646	1,588	1,658	1,772
사과	6	27	43	29	53
참마 등	10	20	15	13	12
임산물	70	80	90	88	92
원목	1	1	2	1	4
수산물	978	1 033	1 111	1 207	1 447
가다랭이·다랑어	132	111	135	136	164
호다데 조개	55	91	121	62	109

주: 수입액, 수출액에는 알코올음료, 담배, 진주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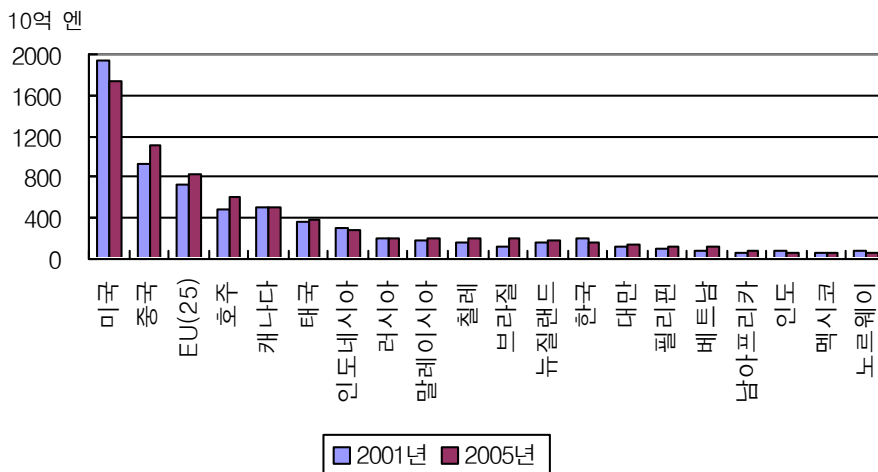
- 농식품의 주요 수입선은 미국, 중국, EU 순이며, 최근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및 EU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표 2-15>. 2001년 대비 2005년에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은 감소했는데 반해 중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수입선으로서 아시아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2-15> 농식품 수입국별 수입액 변화(추이)

단위: 십억엔

수입총액	2001년		200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개국 합계	7,212		7,657	
미국	1,938	26.9%	1,736	22.7%
중국	924	12.8%	1,121	14.6%
EU(25)	722	10.0%	825	10.8%
호주	477	6.6%	605	7.9%
캐나다	506	7.0%	495	6.5%
태국	355	4.9%	380	5.0%
인도네시아	304	4.2%	282	3.7%
러시아	203	2.8%	208	2.7%
말레이시아	172	2.4%	206	2.7%
칠레	154	2.1%	198	2.6%
브라질	117	1.6%	196	2.6%
뉴질랜드	159	2.2%	179	2.3%
한국	193	2.7%	163	2.1%
대만	131	1.8%	136	1.8%
필리핀	95	1.3%	131	1.7%
베트남	78	1.1%	120	1.6%
남아프리카	65	0.9%	82	1.1%
인도	78	1.1%	69	0.9%
멕시코	53	0.7%	61	0.8%
노르웨이	75	1.0%	57	0.7%

자료: 일본농림수산물성, 농림수산물통계 2006



- 2005년 기준으로 농식품의 주요 수출선은 홍콩 18.7%, 미국 17.9%, 대만 16%, 중국 12.1%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콩, 대만, 중국, 한국, 태국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입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농식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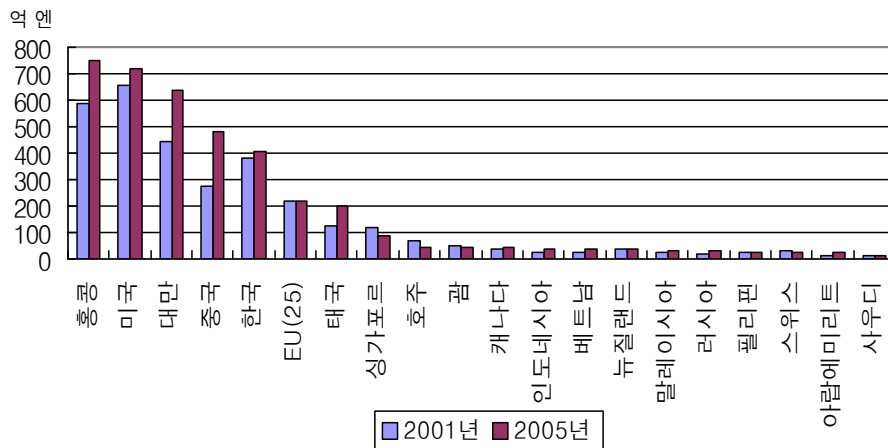
에 있어서도 아시아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표 2-16> 수출국별 수출액 변화(추이)

단위: 십억엔

수출총액	2001년		200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총액	4,442		4,008	
20개국 합계	3,180	71.6%	3,889	97.0%
홍콩	587	13.2%	749	18.7%
미국	655	14.7%	718	17.9%
대만	443	10.0%	640	16.0%
중국	278	6.3%	483	12.1%
한국	383	8.6%	406	10.1%
EU(25)	221	5.0%	217	5.4%
태국	123	2.8%	197	4.9%
싱가포르	117	2.6%	86	2.1%
호주	66	1.5%	46	1.1%
괌	50	1.1%	44	1.1%
캐나다	40	0.9%	42	1.0%
인도네시아	28	0.6%	39	1.0%
베트남	24	0.5%	37	0.9%
뉴질랜드	35	0.8%	35	0.9%
말레이시아	26	0.6%	34	0.8%
러시아	19	0.4%	29	0.7%
필리핀	23	0.5%	26	0.6%
스위스	32	0.7%	24	0.6%
아랍에미리트	15	0.3%	22	0.5%
사우디	15	0.3%	15	0.4%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 일본의 농산물 수입은 곡물을 비롯해 육류 그리고 과일 및 채소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류는 일정률의 국내 생산을 유지하고 있어 수입량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최근 수입량 비중

이 크게 증가하고 부류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국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육류와 과일 및 채소류라 하겠다.

- 축산품은 주로 미국,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곡물수입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이다. 과일류는 주로 미국, 칠레, 필리핀, 대만 등 으로부터 수입하고 채소는 미국, 중국, 한국, 태국 등 국가에서 수입한다. 한국이 일본의 주요 채소품목 수입대상국에서 상위 5위권에 있는 품목으로는 토마토, 파, 버섯류, 파프리카 등이 있다. <표 2-17>

<표 2-17> 농림수산물 품목별 수출입액(2005)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액		수출액	
	2001년	2005년	2001년	2005년
<b>계</b>	<b>7,212,019</b>	<b>7,657,006</b>	<b>444,218</b>	<b>400,825</b>
농산물	4,299,217	4,792,186	302,037	216,823
농산품	2,967,142	3,417,172	287,460	200,024
곡물·곡분제품	532,001	608,337	133,024	19,417
과일·과일제품	351,865	382,239	4,210	10,491
채소·채소제품	378,573	373,476	4,740	5,500
당류	58,317	56,450	1,523	2,402
기호식품	188,508	249,904	22,329	27,838
기타 식료품·음료	402,526	462,121	63,960	78,310
식물성유지(원료)	303,491	400,751	4,085	4,178
담배	308,900	362,941	29,163	27,902
천연고무류	60,839	131,869	250	160
면화	41,681	26,689	350	298
기타 농산품	340,440	362,394	23,825	23,525
축산품	1,324,721	1,370,424	14,008	15,941
동물	25,006	25,098	2,297	1,065
조수육류제품	1,020,163	1,074,827	1,571	1,318
낙농품, 조란	140,098	157,907	1,199	1,705
동물성유지	8,407	9,529	1,393	1,384
가죽, 모피, 양모	60,282	36,010	7,204	9,969
기타 축산품	70,766	67,052	343	500
누에류	7,355	4,590	569	858
임산물	1,189,053	1,196,539	6,959	9,174
원목	227,712	187,499	65	374
가공재	355,161	319,760	938	1,538
합판, 단판	217,451	224,110	2,223	2,183
기타 목재	154,108	214,540	2,167	3,101
기타 임산물	234,621	250,631	1,566	1,977
수산물	1,723,749	1,668,281	135,222	174,828
활어	34,718	61,287	3,514	6,434
수산물(생선,냉장,냉동,염장,건조)	1,278,373	1,233,644	63,912	93,620
수산물제품	272,765	289,685	26,979	40,809
어유, 해수유	5,693	5,037	1,007	1,320
진주	29,319	37,243	37,458	30,173
기타 수산물	42,652	41,384	2,352	2,472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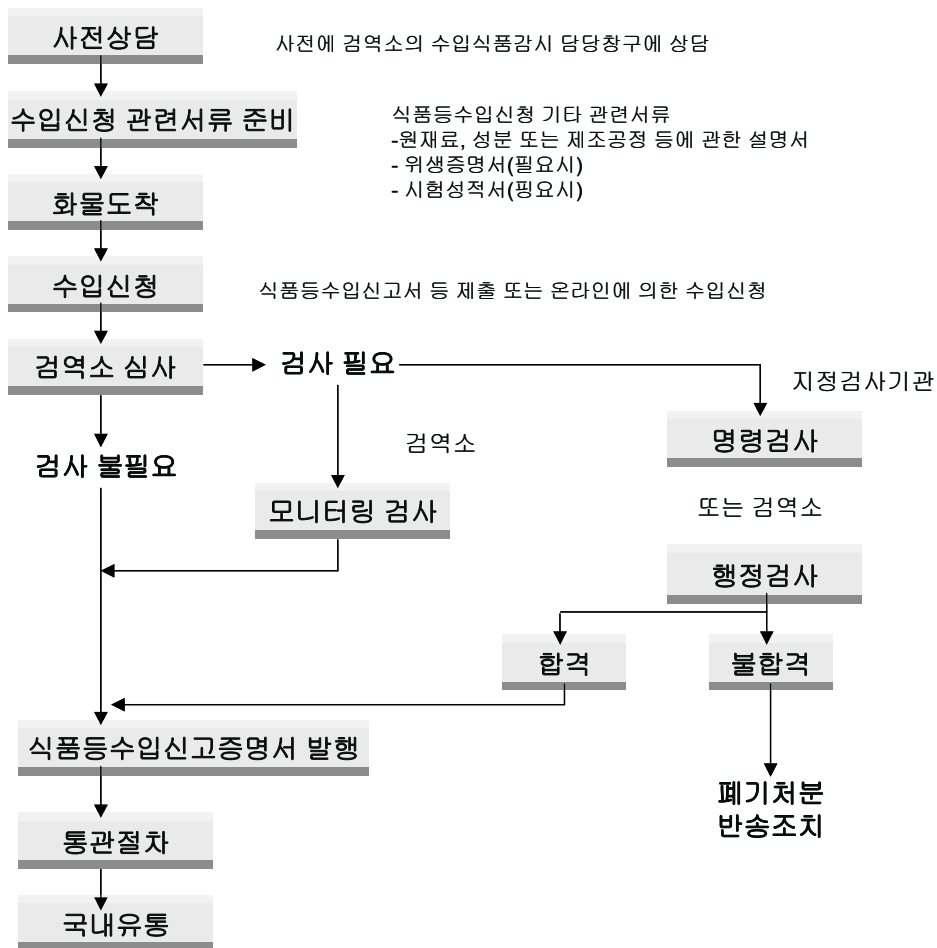
- 축산품은 주로 대만, 홍콩, 태국, 한국으로 수출하며 조제품 및 음료는 대만, 홍콩, 태국, 중국 등 지로 수출하고, 수산물은 태국,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 4. 농식품 수입체계의 특징

-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6조에 의거,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신청이 의무화되어 있다. 식품안전성 및 규격과 관련된 일본의 주요 법률로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일본 농업규격법■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제도의 개발에 관한 원칙과 식품관련 위험 평가기구인 식품안전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은 식품관련 위험관리당국인 후생노동성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한다. 이 법은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또한 식품, 첨가물, 용기 및 포장, 특정 장난감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 일반 요건과 규격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설정되며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식품에 적용된다.
-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 일본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없으나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농산물은 일본 측이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출 전에 검사를 받고 식물검역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수속 절차는 주로 위생안전성과 관련한 제조공정, 원료의 처리, 수송 도중의 문제발생 여부를 서류를 통하여 중점 심사하고 현장검사는 표시사항과 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조사한다.
- 일본이 수입식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서류심사인데 서류심사 적합 여부가 계속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요인이며 판능검사 실시여부도 서류심사로 결정되므로 수입식품 등의 신고서에 이에 적합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입신고서 내용은 수입방법, 신고번호, 품명코드, 선적중량, 생산국 및 제

- 조사 코드, 통관항 코드, 도착년월일, 신고년월일, 가공방법, 화물의 종류 품명, 수량, 선적수량, 포장종류, 용도, 선적년월일, 선적항, 화물의 기호 및 번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 및 편명, 보관창고의 명칭 및 소재지, 화물 제조자의 주소 및 생산지, 식품위생에 관련된 내용, 사고유무 및 개요
-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공방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서인데 설명서가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설명인 경우에는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현장검사에 의하거나 내용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정밀검사하게 된다.

<그림 2-25> 식품 등 수입신청 절차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http://www1.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http://www1.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

○ 일본 후생성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3단계의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단계 : 모니터링 검사 (Monitoring test)

- 수입식품에 대해 선 통관 후 5% 정도의 표본 검사를 실시
- 표본의 비율은 과거 위반 사례 및 위험도에 따라 다소 다름

(2) 단계 : 명령검사 (Testing-by-order)

- 모니터링 검사에서 1회 위반 사례 적발시, 검사 비율을 50%까지 상향
- 50% 모니터링 검사 기간 중에 추가 위반사례 적발시에 전수검사 후 통관하는 명령검사 체계로 전환
- 명령검사가 발동되면 검사가 완료되기 까지 통관이 지연됨
- 명령검사는 3-4일 정도 소요되며(토요일, 일요일, 축제일 등은 소요기간에서 제외) 표본추출이 지연되면 4일 이상 소요돼 검사결과에 따라 더 많은 검사일수가 소요될 수도 있음
- 검사요금은 수입자(輸入者)가 부담하게 되며 비용은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명령검사에서 모니터링 검사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추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수출국의 생산자, 생산지역 및 정부로부터 안전성 관리체계가 제시되어야 함.

(3) 단계 : 수입금지 (Comprehensive ban)

- 명령검사에서 최근 60회 이상의 표본에서 5%이상 위반사례 발견시 또는 보건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금지

- 수입금지선 의약식품위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 일본측은 한국산 파프리카에서 2005년 12월 8일과 2006년 1월 27일 2회의 안전성 기준위반이 발생하자(잔류농약 살충제 클로리피리포스의 농도가 허용기준치 0.5ppm을 초과한 0.6ppm으로 검출돼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 2006년 1월 30일부로 한국산 수출파프리카에 대하여 전수검사 조치를 실행하였다.
- 일본정부는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농림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사용하여 식품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이하 「농약 등」으로 칭함)을 규제하는 소위 ■포지티브시스템■(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후생성이 설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하는 경우 수입을 포함한 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제도도입의 배경에는 BSE,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일본국민의 수입식품을 포함한 식품에 대한 불안이 크게 고조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제도 도입결정에 따라 후생성은 수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2005년 11월 29일 동 제도의 실시내용을 고시하였고 2006년 5월 29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포지티브시스템■을 간략히 요약하면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농약 등에 포함된 규제대상물질은 ①농약, ②사료첨가물, ③동물용 의약품의 세 가지 종류이며 규제대상이 되는 식품은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체식품이 해당된다.

<표 2-18> 포지티브시스템의 기본구조

현행(2005.11.29현재)

포지티브시스템 이행후 (2006.5.29시행)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이 정해진 농약 등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250 농약, 33 동물용의약품 등에 잔류기준을 설정	
↓	↓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농약 등이 잔류해도 기본적으로 유통을 규제하지 않음.
	↓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농약,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에 정해진 799 농약 등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잔류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물질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시행까지는 현행법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약처리법에 의한 기준, 국제기준, 구미기준 등을 따른 잠정적인 기준 설정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양으로서 후생대신이 일정량(일률기준치)을 공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진 것을 공시(특정농약 등) 65 물질
+	↓	↓
등록과 동시에 잔류기준설정 등, 잔류기준설정의 촉진	일정량(0.01ppm)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대상외
↓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금지		

자료: 김홍우, 일본정부의 식품의 잔류하는 농약 등 포지티브시스템 도입개요, 주일한국대사관, 2006.2.

## 5. 최근의 일본 농정 동향

- 일본의 농업도 역시 WTO로 대표되는 세계화라는 국제 정세와 농촌의 과소화와 농가의 고령화 등의 국내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신농정" 이라는 이름하에 체질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 일본 농정에서 향후 10년간의 농정운용의 방침을 결정한 것이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2005. 3)이다. 여기에서 구조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영체로서 ①개별경영이나 법인경영으로 이루어지는 '인정농업자'와 ②일정한 조건을 갖춘 '마을영농'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해서는 2006년4월 「식량·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에서 발표한 「21세기 신농정 2006」이라 할 수 있는데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5.1. 식량·농업·농촌의 기본계획

- 2005년 3월에 발표된 「식량·농업·농촌 기본 계획」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식량,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시책이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식량 자급율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기본적인 방침

- 식(食)의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요구는 높아짐과 동시에 다양화·고급화 되고 있는 반면 농업의 구조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판단 아래 향후 10 년간에 걸쳐 농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자 한다.
- 개혁의 핵심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알기 쉬운 정책 체계의 구축, 소비자의 요구를 시책에 반영, 농민과 지역의 주체성과 창의력의 발휘를 촉진, 환경 보

전을 중시한 시책의 전개,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포함한 시책의 구축 등이다.

## 나. 식량 자급율의 목표

- 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공급열량 베이스의 종합 식량 자급율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품목별 자급율도 맥·대두 이외에는 현상유지 또는 저하되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요인을 검증하도록 한다.
- 따라서 소비 측면에서 알기 쉽고 실천적인 식육(食育)과 지산지소(地產地消)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쌀을 중심으로 하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촉진하며 국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경영 감각이 뛰어난 영농주체에 의한 수요에 입각한 생산을 촉진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대를 강화하며, 영농주체로의 농지이용을 집적시키고, 경축(耕畜) 연대에 의한 사료작물의 증산 등을 통한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추진한다.
- 더욱이 소비자 및 실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국산 농산물 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염두에 두고 칼로리 베이스의 목표 설정을 기본으로 해 나가면서도 생산액 베이스의 목표도 함께 설정한다.
- 자급률 향상의 실천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향상될 수 있도록 시책의 공정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 또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농업자·농업 단체, 식품 산업 사업자, 소비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립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 아래 주체적으로 실천케 한다.
- 기본적으로는 식량으로서 국민에게 공급되는 열량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 나가면서 2015년의 자급율의 목표는 상기의 노력에 의해 실현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다.

<표 2-19> 일본의 식량 자급률 목표

단위: %

	2003년도(%)	2015년도(%)
칼로리 베이스의 종합 식량 자급률	40	45
생산액 베이스의 종합 식량 자급률	70	76
주식용 곡물 자급률	60	63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전체의 자급률	27	30
사료 자급률	24	-

## 다. 분야별 주요 대책

### □ 안전한 식량 및 식품 확보

- 과학적 원칙에 입각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의 추진과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의 도입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의 확보한다.
- 식사의 적정 섭취량을 알기 쉽도록 나타낸 푸드가이드 (가칭) 의 책정·활용을 시작으로 연령대에 적합한 실천적인 식육(食育)의 실천을 국민운동으로서 추진한다.
- 생산자와 “얼굴이 보이고, 대화가 가능한 관계”를 통해 지역의 농산물 및 식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EPA의 체결 등을 통한 식량수입의 안정화 및 다원화, 식량안전보장 메뉴얼의 검증·정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및 식량원조, 국제적인 식량비축체제의 정비를 추진한다.

### □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 인정농업자 제도의 활용을 통해 지역에 있어 영농주체를 명확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집중적·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집락(集落)을 기초로 하는 영농조직 가운데 앞으로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는 주체를 영농주체로 정하고, 소규모 농가와 겸업농가도 영농주체가 되는 영농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농지의 이용·집적을 도모해 나가는 영농조직의 육성과 법인화를 추진한다.
- 취업 형태나 성별 등에 상관없이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폭넓게 인재를 확보함

과 동시에 여성의 농업경영, 지역사회에의 참가를 촉진하며, 고령자가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우량 농지의 확보와 효율적 이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영농주체로의 농지의 이용·집적을 추진함과 동시에 ① 경작 포기지의 발생 방지 및 해소를 위한 대책의 강화 ② 주식회사 등 임차방식으로의 진입을 인정하는 구조개혁특구를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농업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규율의 강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마련되어 있는 경영안정대책을 재검토하여 시책의 대상이 되는 영농주체를 명확화한 후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대책으로 전환한다.
- 농산물의 가공·직거래 등 경영의 다각화, 계약재배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등 경영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 가공 및 외식용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식품산업과 관련한 산학관의 연대의 형성과 산지 브랜드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결 및 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고품질 농산물의 특성을 살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관계 기관이 연대하여 연중판매촉진과 수입국 요구에 대응한 국내산지 만들기, EPA 등을 통한 수출상대국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영농주체에 의한 현지검증을 행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신기술의 개발·보급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단체와 도부현에 의한 실천 계획의 개정·공표를 통해 농산물생산비용의 감축을 촉진한다.
- 지역별 영농비전에 입각하여 영농주체의 육성 및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 국내 농업 전체를 환경보전을 중시한 방향으로 전환케 하기 위해 ① 농민이 노력해야만 할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민에 대해 각종 지원을 마련 ② 환경 부하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선진적인 대책을 지원한다.
- 기존의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만이 아니라 미이용 바이오매스와 자원작물의 비농업용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량생산의 범위를 뛰어넘은 농업의 새로운 지평 확대를 촉진한다.

## □ 농촌의 진흥

- 농지 및 농업용수 등을 적절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농촌환경의 보전 등에 기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선진 사례의 전국적인 확산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조건의 불리성을 보정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
- 관광입국이라는 국정의 방향과 연계하여 그린투어리즘(녹색광장)의 확대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추진한다.
- 도로, 오수처리시설, 정보통신기반 등 농촌생활환경의 정비,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복지 등 서비스의 확충, 치산(治山)·치수(治水) 대책, 토사재해대책, 도로방재대책, 농지방재대책 등 방재대책을 추진한다.

## □ 농업관련단체의 재정비

- 농업관련 단체 (농업협동조합 계통조직, 농업위원회 계통조직, 농업공제 단체, 토지개량구 등) 의 효율적인 재정비, 단체와 관련 기관의 상호협조 아래 영농주체 육성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삼림조합, 어업협동조합을 포함한 단체 간의 연대촉진방안을 마련한다.

## 5.2. 21세기 신농정 2006

- 「21세기 신농정 2006」 에서는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 전략’, 둘째, 영농주체의 육성 및 확보를 주축으로 하는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 셋째, 식(食)의 안전(安全) 안심(安心) 공급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食)의 안전과 식육(食育)’, 넷째, 새로운 식품 및 신소재 개발과 바이오매스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야’, 다섯째,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통해 “일어서는 농산어촌”으로 전환케 하는 ‘지역’ 이다.

## 가. 국제 전략

- DDA(도하개발아젠다), EPA협상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이념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고칠 것은 고친다”는 자세로, 전략적이고도 긍정적으로 대응한다.
- 중점적으로 농식품시장개척을 해야만 하는 국가와 지역별로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민과 관이 일체가 되어 일본 식문화의 해외 보급, 전략 농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촉진활동의 지원, 수출방해요인의 시정, 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액을 5년간에 두 배로 증대시켜 2004년의 2,954억엔에서 2009년에는 6,000억엔 달성을 목표로 한다.
- 국내 시장은 소자녀화·고령화되어 가는 반면, 동아시아지역은 경제 발전에 따라 농식품 수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은 구미와 다른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지금까지의 발상을 전환하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도전하는” 자세로서 EPA추진전략과 함께 일본 식문화의 해외 보급과 수출촉진전략, 지적재산권과 브랜드의 보호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 동아시아(중국, 타이완, 한국, 아세안 6개국)에 있어 국내 식품산업의 현지법인 활동규모를 5년간 50%정도 상승시켜 2005년의 84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에는 125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활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수한 농림수산물·식품을 지적재산으로 하여 그의 권리화와 적극적인 보호 및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식물 신품종에 대한 특허출허 건수를 5년간 50% 증가시켜 2005년도 1,358건에서 2010년도에 2,000건을 초과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2008년도에는 세계 최단수준인 2.5년으로 단축하도록 한다. 또한 DNA 품종식별기술에 있어 2010년까지 가공품(쌀, 딸기) 및 쇠고기에 대한 분석수법을 확립토록 한다.

## 나.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

- 의욕과 능력을 가진 영농주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2007년도부터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을 포함한 영농주체의 육성 및 확보를 가속화한다. 동시에 지역공동의 활동 및 영농을 통해 농지 및 농업용수

등의 자원과 환경의 보전 및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농지·물·환경 보전 향상대책의 도입을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가족농업경영을 33만~37만명으로, 집락영농경영을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만~4만으로, 이 같은 농업경영의 면적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70~80%로 확대시킨다. 일반기업 등의 농업진입법인 수를 5년간 3배 증가시켜 2005년 현재 156개에서 2010년에 500개에 달하도록 한다. 또한 39세 이하의 신규취농업자수를 매년 12,000명 정도 늘리도록 한다.
- 식량공급의 비용감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특히 농협의 경제사업에 관해서는 신용 및 공제사업에 비해 개혁이 늦어지고 있어 전농개혁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저렴한 농업생산자재의 공급 및 물류비용의 감축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 목표는 식량공급 비용을 5년간 20% 감축하는 것이다.

#### 다. 식(食)의 안전과 식육(食育)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가축 및 농작물 등에 대한 병충해의 침입, 만연방지를 통해 식량의 안정공급을 기한다. 또한 소비자요구 등을 반영한 JAS 규격의 내실화와 식품표시의 적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도모한다.
- 식육기본법 및 식육추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식육(食育)을 추진한다.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운동으로서 추진토록 한다. 그 일환으로서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관계 제고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관광과도 연대하여 지산지소(地產地消)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의 사용비율을 2004년도의 21%에서 2010년도에는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육농장의 실천이 시행되고 있는 시정촌의 비율을 2005년 42%에서 2010년에 60%이상으로 증가시킨다.

#### 라. 신분야

- 지금까지도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식품 및 신소재의 개발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잠재적인 수요에 걸맞는 개발을 추진한다. 동시에 기술이전 및 지역브랜드의 확립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산지의 형성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신식품 및 신소재의 시장규모를 5년간 3배 넘게 확대하여 2005년도의 200억 엔에서 2010년도에는 700억 엔에 달하도록 한다.

- 개정된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바이오에탄올 등 수송용 연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에탄올 이용의 실제 사례를 마련, 원료 농산물의 값싼 조달 방법의 도입, 저비용의 효율적인 생산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산 바이오매스 수송용 연료의 이용촉진을 도모한다. 동시에 목재생산 시스템과도 연계한 목질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2010년까지 바이오매스 열이용을 도입하여 원유 환산 308만 kl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산가스 배출량 6% 감축 약속의 약 10%), 바이오매스의 수송용 연료방식을 도입하여 원유 환산 50만 kl를 달성토록 한다.

#### 마. 지역

- 향후 농산어촌진흥에 있어서는 “일어서는 농산어촌 유식자 회의”의 제안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간의 노력이 농산어촌 전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활성화를 위한 보다 많은 지역의 참가 촉진, 제도전의 기회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농협 등의 의사결정과정 및 농업경영에 있어 여성의 참가를 촉진하여 농산어촌 활성화에 남녀 공동참여를 추진한다. 2010년까지 농림수산업을 핵으로 하면서 자율적이며 경영감각이 풍부한 전국의 모델이 될 만한 농산어촌의 사례수를 250개소로 확대하도록 한다.

### 5.3.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sup>6)</sup>

- 지금까지 중산간직불제(2000)와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품목횡단적(농가단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6) 김태곤, 일본의 농업, 농정의 동향,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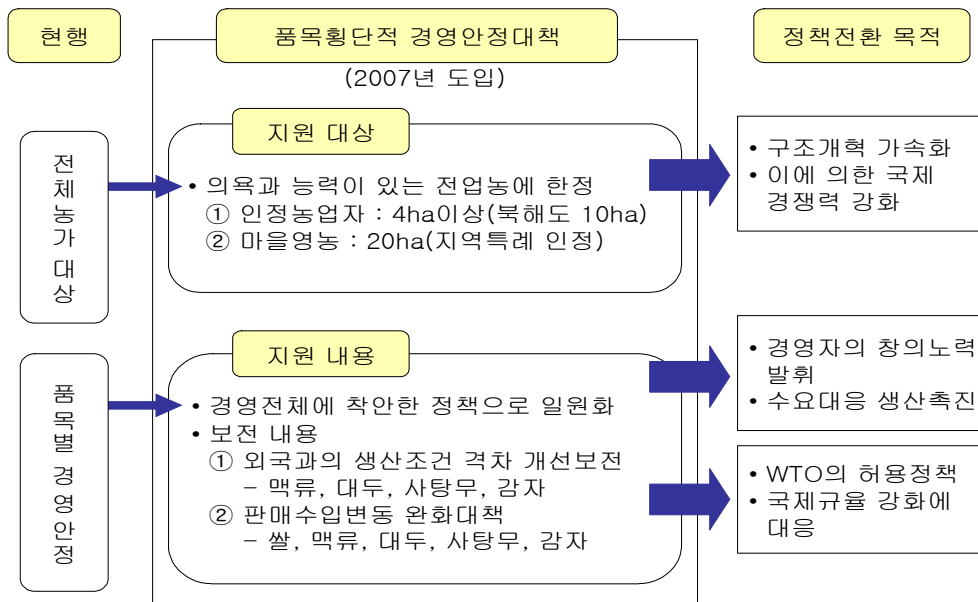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시장개방에 대한 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되, 정책대상을 극히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영안정 도모, 구조개혁 가속화,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 본 대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가에 한정하여 모든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현행 지원방식을 품목중심에서 경영단위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자의 창의와 노력을 발휘케 하여 수요에 대응한 생산을 촉진한다.

셋째, WTO 농업협정의 허용대상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정의 국제적인 규율의 강화에도 대응한다.

<그림 2-26>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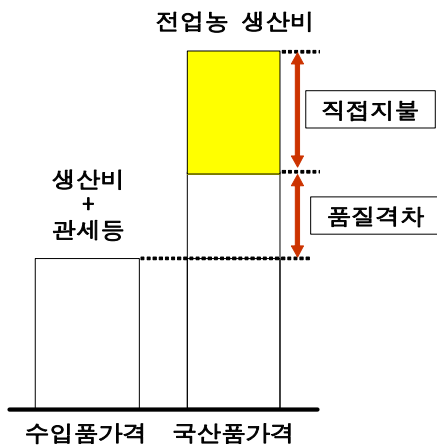


자료: 김태곤, 일본의 농업, 농정의 동향,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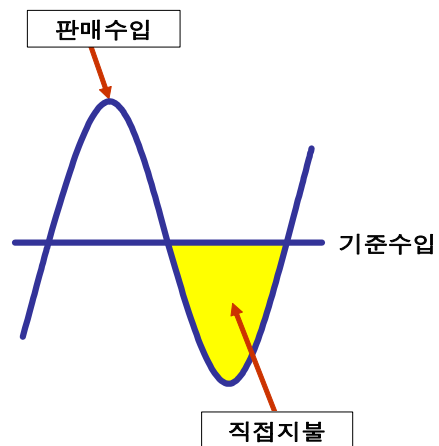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크게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과 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은 시장개방과 관세감축에 의하여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가 현저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상정하여 그 격차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것이다(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 대상 품목에 대해 시장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외국과의 생산조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①전업농의 생산비와 판매수입과의 차액에 주목하여 각 농가의 과거 생산실적에 근거한 지불과 ②매년도의 생산량·품질에 근거한 지불 등 두 가지를 고려하여 지불한다.

<그림 2-27>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보전방법

①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



② 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



자료: 김태곤, 일본의 농업, 농정의 동향,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

- 가격변동에 의해 판매수입 변동이 현저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 수입을 설정하여 당해 연도 판매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수입변동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이다(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 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은 일종의 변동형 직접지불로서 판매수입 변동에 대응하여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대책이다. 수입변동의 파악방법은 대상 품목별로 당해 연도의 판매수입과 기준기간(과거 5년 중 최고, 최저 연도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 수입과의 차액을 농가별로 합산·상쇄하여 판매수입 감소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의 90%에 대해 정부3 생산자1의 비율로 적립한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보전한다.
-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에는, ①맥류, ②대두, ③사탕무, ④전분원료용 감자 등 4개 품목으로 하고, 쌀에 대해서는 현재 고율 관세에 의해 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다. 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에는 ①쌀을 포함하여, ②맥류, ③대두, ④사탕무, ⑤전분원료용 감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채소, 과일, 축산은 품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제 3 장

# 재일 한인과 조직

### 1. 개 황

- 재일 한인사회는 일제 식민지 강점시기 초기에 자발적으로 도향한 사람들로 부터 시작되었다. 1915년 3,917명 정도에 불과하던 재일한인은 1925년에는 129,870명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로 1935년에는 625,678명 수준이 되었다. 강점시기 말기인 1939년부터 강제연행이 시작되면서 그 수는 더욱 확대 되어 1939년 961,591명, 1945년에는 1,115,594명에 이르게 되었다.
- 해방을 맞아 상당수의 재일한인이 귀국하게 되었으나, 60만명 정도는 일본에 잔류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및 경제적 여건 때문이었다. 해방직후 한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고, 귀국을 희망하더라도 귀환자가 고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1천엔으로 제한하였 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재일한인이 관망하는 자세로 일본에 잔류하게 된 것이다.
-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자발적 이주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들은 이른바 ‘뉴커머(new comer)’로서 새로운 재일 한인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 재일한인 수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57만명 수준에서 2005년에는 47만명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에는 일본 총무성자료와 민단자료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체류연장에 의한 정주자인 소위 ‘뉴커머’수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일한인 감소의 주된 이유는 재일 한인 2~4세의 일본인과의 혼인에 의한 국적변경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75년경 재일한인중 한인간 혼인 비율과 일본일과의 혼인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이었는데 반해 2000년에 이르러서는 전자의 비율이 12%, 후자는 88%로 일본인과의 혼인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한국국적 유지시 직장선택범위의 제약, 선거권 미보유, 해외방문시 번거로움 등은 물론 한국에 오더라도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야 하는 등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구조가 되어있다. 따라서 재일한인의 일부, 특히 젊은 계층의 경우 한국국적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만명 정도의 재일한인이 일본으로 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 연령별 재일한인 인구 변동 추이(1985~2005년)

단위: 명, %

연령집단	1985	1990	1995	2000	2005	
					총무성	민단 <sup>1)</sup>
85이상	1,271	2,025	2,978	4,528	6,169	22,324
80-84	3,047	4,335	5,899	7,300	9,654	
75-79	6,957	8,918	10,564	14,145	12,386	
70-74	12,131	13,841	17,549	15,646	17,442	
65-69	16,873	20,569	18,328	20,654	25,210	
소 계	40,279 (7.1%)	49,688 (8.8%)	55,318 (9.9%)	62,273 (11.8%)	70,861 (15.2%)	89,865 (15.0%)
60-64	23,683	20,328	22,795	28,484	31,138	38,582
55-59	22,470	24,423	30,606	34,770	37,183	47,612
50-54	26,001	32,057	37,347	41,896	38,039	48,458
45-49	33,742	39,216	45,550	43,328	37,716	48,766
40-44	40,629	47,503	46,666	42,962	38,558	50,632
35-39	48,892	48,818	46,267	44,755	39,167	51,960
30-34	49,358	48,117	48,830	46,356	40,879	56,238
25-29	46,683	50,476	50,461	49,958	35,040	49,238
20-24	46,888	47,450	50,106	39,128	31,556	41,347
15-19	49,286	49,605	40,534	33,038	22,304	25,394
소 계	387,632 (67.9%)	407,993 (71.9%)	419,162 (74.8%)	404,675 (76.5%)	351,580 (75.3%)	458,227 (76.6%)
10-14	54,106	42,920	36,012	24,924	17,923	20,449
5-9	46,969	38,107	27,626	20,387	14,850	16,980
0-4	42,248	28,890	22,296	16,645	11,423	12,864
소 계	143,323 (25.1%)	109,917 (19.4%)	85,934 (15.3%)	61,956 (11.7%)	44,196 (9.5%)	50,293 (8.4%)
총 계	571,234 (100%)	567,598 (100%)	560,414 (100%)	528,904 (100%)	466,637 (100%)	598,385 (100%)

주: 민단 통계자료

자료: 일본 인구센서스, Tamura(2003:90)에서 재인용, 1985년~2005년은 일본총무성 통계자료

- 재일 한인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1985년 65세 이상 비율이 7.1%에서 2005년에는 15% 이상으로 확대된 반면, 10세 이하 비율은 동 기간중 25%대에서 9%대로 감소하였다. 이는 재일한인의 고령화가 자연적인 수준에 비해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10세 미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젊은 재일한인들의 혼인 등을 통한 국적이탈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 일본내에서 재일한인의 거주지역은 오사카, 동경, 교토, 나고야, 요코하마, 후쿠오카 등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일 합방이후 부산과 시모노세키간 관부 연락선을 타고 온 한인은 시모노세키에 가까우면서도 탄광 등이 많았던 북부 큐슈지역 후쿠오카현에 집중되었다. 1923년 제주도과 오사카간 정기항로 개설로 오사카지역에 특히 제주도 출신 한인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강제연행시기에는 탄광지대가 많은 후쿠오카, 야마구치, 홋카이도 지역에 몰리기도 하였으나, 전후에는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 재일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최근 통계자료를 통해 비교해보면 <표 3-2>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사카지역이 가장 많고 동경, 고베시가 있는 효고현, 나고야시가 있는 아이치현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92년에 비해 2005년에는 히로시마지역 한인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을 크게 관동과 관서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관서지역(오사카, 효고, 아이치, 교토,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이 관동지역(동경,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등)에 비해 재일한인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재일한인 집중 상위 10개 지역 1992~2005

단위: 명, %

순 위	1992년 12월			순 위	1998년 12월			2005년 12월 한인수
	도부현 (都府懸)	한인수	비율		도부현 (都府懸)	한인수	비율	
1	大阪府(오오사카부)	183,322	26.6	1	大阪府(오오사카부)	163,067	25.5	114,215
2	東京都(도쿄도)	95,955	13.9	2	東京都(도쿄도)	92,984	14.6	70,477
3	兵庫縣(효고현)	71,108	10.3	3	兵庫縣(효고현)	66,869	10.5	47,570
4	愛知縣(아이치현)	54,581	7.9	4	愛知縣(아이치현)	49,264	7.7	35,539
5	京都府(교토부)	46,671	6.8	5	京都府(교토부)	42,606	6.7	29,066
6	神奈川縣(카나가와현)	34,188	5.0	6	神奈川縣(카나가와현)	32,338	5.1	26,054
7	福■縣(후쿠오카현)	25,502	3.7	7	福■縣(후쿠오카현)	22,994	3.6	15,862
8	廣島縣(히로시마현)	15,947	2.3	8	埼玉縣(사이타마현)	16,484	2.6	14,250
9	埼玉縣(사이타마현)	15,233	2.2	9	千葉縣(치바현)	16,265	2.5	13,616
10	千葉縣(치바현)	15,233	2.2	10	廣島縣(히로시마현)	14,066	2.2	9,040
	기 타	130,404	19.0		기 타	121,891	19.1	*N.A.
	전 국	688,144	100		전 국	638,828	100	*N.A.

자료: 일본국세조사 2006

- 재일한인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7.2%로 가장 많고, 음식 및 숙박업 15.3%, 제조업 13.8%의 순을 보이고 있고 1차 산업(농림어업 및 광업) 종사자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표 3-3> 재일한인의 직업별 분포(2005)

단위: 명, %

산업	취업자 전체		피고용자			자영업자	무임금가족 종사자
	수	%	전체	정규직	임시직		
농림어업	859	0.4	347	224	123	200	288
광업	133	0.1	66	63	3	12	3
건설업	25,182	11.3	13,352	10,903	2,449	6,304	1,335
제조업	30,749	13.8	20,022	16,659	3,363	5,366	2,432
전기,가스,열공 급,수도업	90	0.1	90	78	12	-	-
정보통신업	5,599	2.5	4,556	3,958	598	311	18
운송업	11,325	5.1	8,953	7,583	1,370	1,483	167
도소매업	36,183	16.2	24,554	18,976	5,578	5,509	2,132
금융/보험	5,552	2.5	4,421	4,108	313	640	104
부동산	6,413	2.9	2,591	2,322	269	1,464	274
음식/숙박업	34,155	15.3	15,070	9,942	5,128	11,575	5,561
의료/복지	12,116	5.4	10,156	8,129	2,027	1,188	351
교육/학습지원	6,225	2.8	5,354	3,740	1,614	653	57
서비스	38,365	17.2	25,407	19,709	5,698	5,450	1,385
공무 (정부관계업)	290	0.1	290	120	170	-	-
기타 기관	9,608	4.3	7,625	5,739	1,886	1,190	254
한인 합계	222,844	100.00	142,854	112,253	30,601	41,345	14,361
일본 전체	772,375		647,004	466,935	180,069	61,831	22,815

자료: 일본총무성 통계자료 2005

## 2. 특징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은 다른 나라의 해외동포와 비교할 때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다른 재외한인의 대부분은 이민자의 신분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업·교육·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재일한인은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비자발적으로 강제 이주되어 해방될 때까지 다양한 핍박과 차별을 받은 한인을 주축으로, 식민지 이전시기 및 해방 이후시기에 자발적으로 이주 또는 체류하는 한인이 공존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재외한인에 있어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갖는 것이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예: 재미교포, 재중교포, 재러시아교포 등), 재일한인의 경우에는 식민지시대의 아픈 기억 등의 이유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인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해방이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까닭에 재일 한인사회도 친남한 한인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중심으로 ‘재일한국인’, 친북한 한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이라 불리고 있다. 물론 ‘조선’이라는 의미는 한반도 출신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재일조선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련계의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재일한국인’중 1965년 한일협정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은 ‘올드커커(old comer)’, 그 이후에 일본에 온 사람은 ‘뉴커머(new comer)’로 부르는 등 다양한 호칭이 있다.

넷째, 재일한인의 다양한 유형과 관련하여 법적 지위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고, 현재의 법적지위 역시 다양하다.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일본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반면, 대부분의 재일한인은 1965년 한일협정 이전에는 무국적 상태였다. 협정 이후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협정영주권’이 부여되었으나, 총련계 한인은 무국적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1982년 일본이 난민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특례영주자’지위가 부여되었다. 1991년 재일한인 3세 이하의 자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영주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민단계·총련계 재일한인 모두 ‘특별영주권자’의 지위를 받게 되었다. 한편 뉴커머 중 사실상의 정주자는 일반적으로 매3년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 3. 조 직

- 재일한인 조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올드커머 중 친남한한인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올드커머 중 친북한한인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뉴커머중 사실상의 정주자조직, 뉴커머중 주재상사원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한인 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1. 민 단

##### (1) 민단의 역사

-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재일조선인련맹(조련)」이 결성되었으나 모국에서의 신탁통치문제로 재일한인사회에서도 좌우대립이 격화되어, 반공세력을 중심으로 「조련」에서 이탈하여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을 결성하였다. 1946년 1월 친남한한인조직인 「신조선건설동맹(건동)」이 새롭게 결성되었는데, 1946년 10월 「건청」과 「건동」이 합동하여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이 발족하게 되었다. 시기별로 「민단」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1946.1~1950.6

- 「민단」은 발족과 함께 재일한인의 귀국사업 후원, 민생문제 지원 등을 위해 미군점령사령부(GHQ) 및 일본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민단」과 「조련」의 투쟁이 격화되었다. 1946년 7월 「건청」과 「조련」이 격돌한 川崎사건을 비롯해, 1949년 4월의 東京枝川사건, 같은해 5월, 좌우학생들이 충돌한 조선장학회사건, 8월의 「민단」과 「조련」의 일대결전이었던 下關사건 등이 발발하였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같은 해 9월 8일 민단은 한국 정부로부터 재일동포의 유일한 공인단체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같은 해 9월 28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개칭하였다.

#### 나. 1950년대

- 모국에서의 반공·친공세력간의 대립, 일본내에서의 공산당 활동의 확산 등에 따라 「조련」은 1949년 GHQ에 의해 해산 당하였으나, 일본공산당 지도하에 「민전」을 조직하여 격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한 까닭에 반공세력인 「민단」과도 치열한 대립투쟁이 계속되었다.
- 1950년 7월 「민단」은 644명의 재일청년학도를 중심으로 학도의용군을 조직하여 인천상륙작전 참가를 포함한 한국전쟁에 파견하였다.
- 1953년 7월 정전이후에도 일본 각지에서 6·25때의 대립감정으로 「민단」과 「조련」간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련맹(총련)」으로 노선전환과 더불어 명칭을 변경한 구 「조련」을 상대로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 1959년 8월 「민단」은 일본적십자와 북한적십자 사이에 체결된 「재일조선인 귀환협정」에 의해 조총련동포를 북한 공산치하에 북송하는 것은 인도적인 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북송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 다. 1960년대

- 본국에서 「4·19혁명」, 「5·16군사혁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민단내에서는 본국에 대한 자세 문제로 일시적인 혼란이 일어났고, 같은 시기 「민단」에 대한 「총련」의 공세가 격심해졌다.
- 1965년 「한일회담」 타결을 둘러싸고 민단내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본국의 발전을 위해 민단으로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한일협정 내용에 순응키로 하였다.
- 1966년 1월부터 1970년 1월까지 한일협정에 의한 영주권신청운동에 역량을 경주, 신청자가 36만 5천여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 명실공히 조직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 라. 1970년대

- 1970년 오오사카(大阪) 만국박람회 본국인초청사업 등을 전개하여, 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 1972년부터 1973년에 걸쳐 「조선총련」의 영향을 받은 일부 불순분자들에 의한 「민단」에 대한 파괴공작이 극심하여, 민단조직이 일시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조국과 「민단」을 아끼는 단원들과 청년들의 노력에 의해 정상화되었다.
- 민단조직 정상화와 더불어 모국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 부응하고자 민단도 새민단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모국의 150여개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10여억엔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 1975년 7월부터 「조총련」 산하 동포들의 성묘단을 조직, 한국에 보내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약 4만8천명에 달하는 조총련동포들을 민단조직으로 전향케 하였다.
- 「새민단」운동을 전개하여 조직정비와 조직강화에 힘쓴 결과, 전국 49개 지방본부, 383개 지부, 약 5천개의 반조직을 구축하여 1976년까지 약 40만명의 단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 마. 1980년대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재일한인에 대한 권익옹호투쟁을 전개하였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미비했던 법적지위와 처우상의 문제해결을 일본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함과 동시에 공영주택 입주문제, 아동수당, 연금 등의 복지문제, 국적에 의한 취직차별문제, 지문날인 문제 등 외국인등록법의 인권 침해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1986년 「지문날인철폐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80여만명의 서명을 획득, 권익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는 1991년 1월 10일 한일외상간의 각서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반영되게 되었다.
-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단을 중심으로 재일한국인들이 540억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금하여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일본인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을 참관단으로 조직해 서울에 보내, 홍보활동에도 커다란 성과를 올리는 등 본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 또한 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재일경제인을 중심으로 「재일한국인투자협회」를 조직하여 「신한은행」신설과 함께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진출한 재일한국인 기업들을 후원하였다.
- 그 밖에도 독립기념관 건설모금운동, 평화의 댐 건설모금, 수해의연금, 바이코리안운동(한국물산구매운동), 대전엑스포 지원사업 등 본국에서 일어난 전국민적인 문제 및 사업에는 항상 동참하였다.

#### 바. 1990년대

- 1991년 1월 10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외상간의 합의를 통해, 협정영주 3대 이후의 기속적(羈束的)인 영주권부여가 확정되었으며, 지문날인 철폐 등에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처우에 있어서는 국적에 의한 취직 차별, 민족교육권 문제, 지방 자치체에 대한 참정권 문제 등 미비한 점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 1994년 4월 명칭을 「재일본 대한국민단」으로 개칭하였으며, 1994년 5월 민단은 특수한 역사적인 연유로 인해 영주하게 된 재일동포가 일본지역사회에 생활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반세기 동안의 무권리 상태를 지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참정권운동」을 추진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 1997년말 본국이 IMF위기에 처했을 때 재일동포는 국난 타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외화송금운동」을 전개하여, 약 870억엔의 일화를 송금하였다. 이는 많은 민단 단원에게 본국의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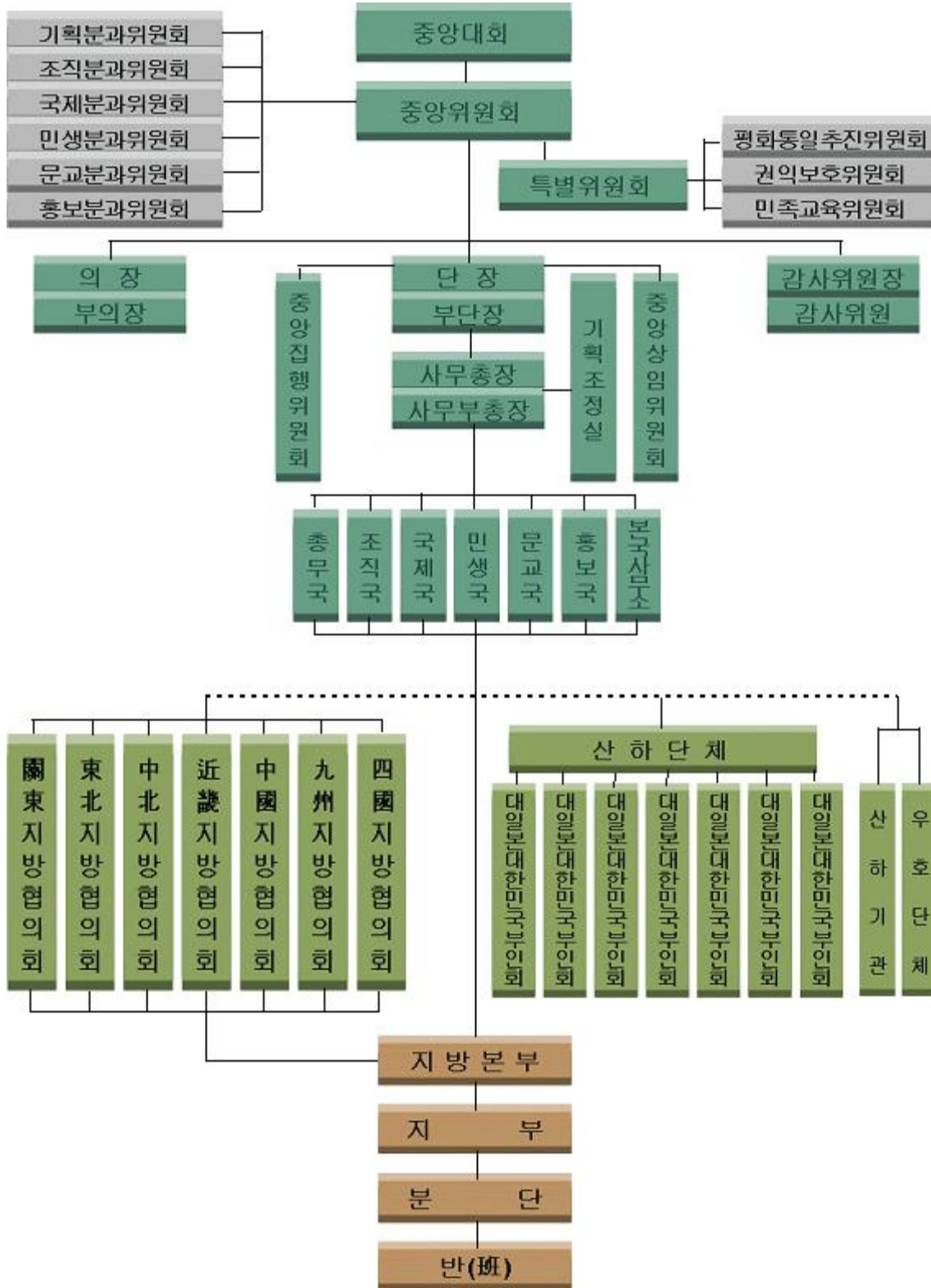
#### 사. 2000년대

-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정부의 「햇볕정책」과 「조총련」을 끌어안으려는 자세로 인해 한국정부와 「민단」간의 관계는 다소 서먹해진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 동경지역에 거주하는 뉴커머들을 중심으로 「한인회」를 결성하여 기존 「민단」과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한국정부가 이 조직에 힘을 실는 듯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민단」의 모국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확대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 민단의 조직 및 규모

- 재일민단은 동경에 있는 중앙본부 산하에 7개 지방협의회가 있고, 각 지방협의회 산하에 지방본부(칸토 협의회 산하 12개 지방본부, 토호쿠 7개, 추호쿠 6개, 킨키 6개, 추고꾸 5개, 큐슈 9개, 시코쿠 4개)를 두고 있으며, 지방본부 산하에는 지부(총 308개), 지부 산하에는 분단 및 반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림 3-1>, <표 3-4>, <부록 1>
- 2005년말 현재 민단 구성원은 60만명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오사카부와 효고현을 중심으로 한 킨키지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경도와 요코하마시(카나가와현)를 중심으로 한 칸토지역,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한 큐슈지역 순을 보이고 있다.
- 민단의 단세는 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연증가자(출생자-사망자)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귀화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표 3-5>. 동시에 귀화자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인 까닭에 민단 구성원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젊은 층의 귀화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재일민단은 산하조직으로 「재일본 대한민국의청년회」 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민족적 차별,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한 의식구조 등으로 한국계 일본인으로도 충분하다는 계층이 늘어나는 탓에 민단 구성원의 축소 및 빠른 고령화 추세는 대세로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필자가 지방본부 몇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동경과 오사카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감소 추이가 덜 한 반면 히로시마현과 같은 지방도시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일부 지방민단 조직이 활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 민단의 조직 체계도



<표 3-4> 민단의 단세(團勢) 현황(2005)

단위: 개소, 세대, 명

지방협의회	지방본부명	지부(支部)수	분단(分團)수	반(班)수	세대수	국민등록자수	재류동포수 <sup>1)</sup>
칸토 (關東)	도쿄(東京)	21	22	74	12,364	37,931	101,620
	카나가와(神奈川)	9	38	169	6,987	22,899	34,024
	치바(千葉)	9	9	30	1,171	5,245	18,076
	야마나시(山梨)	1	0	0	240	1,060	2,529
	돗치기(栃木)	6	0	0	445	1,515	3,212
	이바라기(茨城)	6	0	36	752	2,259	5,877
	사이타마(埼玉)	6	0	0	2,601	6,765	18,292
	니시도쿄(西東京)	4	0	0	2,112	6,274	동경에 포함
	군마(群馬)	0	0	0	588	1,601	3,064
	시즈오카(靜岡)	4	2	41	1,182	3,951	6,872
	나가노(長野)	5	0	0	859	2,727	4,741
	니이가타(新潟)	5	0	0	348	1,481	2,394
토호쿠 (東北)	미야기(宮城)	4	0	0	925	3,911	4,617
	홋카이도(北海道)	11	0	0	1,111	2,153	5,647
	아오모리(青森)	5	0	0	245	758	1,278
	야마가타(山形)	1	0	0	308	866	2,081
	이와테(岩手)	2	0	17	232	645	1,144
	아키타(秋田)	4	0	0	159	567	827
	후쿠시마(福島)	0	0	0	359	2,030	2,084
츄호쿠 (中北)	아이치(愛知)	14	0	332	7,082	28,906	44,135
	기후(岐阜)	7	0	0	953	3,028	6,606
	미에(三重)	8	0	91	1,259	4,476	6,744
	이시카와(石川)	4	0	24	304	2,032	2,381
	후쿠이(福井)	10	3	17	488	1,675	3,948
	토야마(富山)	3	0	0	304	988	1,514
킨키 (近畿)	오사카(大阪)	35	2	580	25,935	110,500	146,678
	효고(兵庫)	16	20	14	15,045	42,357	60,289
	교토(京都)	15	48	141	8,585	33,655	36,853
	나라(奈良)	9	14	24	1,277	5,323	5,367
	시가(滋賀)	10	0	0	1,232	3,998	6,716
	와카야마(和歌山)	5	0	0	1,152	3,369	3,430
츄고쿠 (中國)	히로시마(廣島)	15	0	137	2,133	10,565	12,088
	와카야마(岡山)	4	7	61	1,857	5,566	7,464
	돗토리(鳥取)	1	1	0	310	1,180	1,494
	시마네(島根)	3	0	0	323	980	1,025
	야마구치(山口)	10	3	117	2,617	9,167	9,392
	후쿠오카(福岡)	16	41	85	3,347	12,342	20,625
큐슈 (九州)	나가사키(長崎)	3	0	4	422	1,106	1,395
	사가(佐賀)	5	0	0	374	730	1,016
	오이타(大分)	8	0	0	490	1,923	2,755
	미야자키(宮崎)	1	0	6	98	455	733
	구마모토(熊本)	2	0	0	324	1,029	1,177
	가고시마(鹿兒島)	0	0	0	150	240	556
	가고시마(對馬島)	0	0	0	19	52	나가사키에 포함
	오кина와(沖繩)	0	0	3	190	260	616
	카가와(香川)	0	0	0	221	821	1,131
시코쿠 (四國)	에히메(愛媛)	1	0	0	354	1,109	1,678
	코우치(高知)	0	0	10	224	569	806
	토쿠시마(徳島)	0	0	0	65	168	428
	합 계	308	210	2,013	110,122	393,207	607,419

주: 재류동포총수는 법무성 입관자료(2004.12월말 현재) 기준

<표 3-5> 재일동포의 자연 및 실질 증가 추이(1955~2005)

단위: 명

구분	출생(A)	사망(B)	자연증가(A-B)	귀화	실질증가
1955년	14,424	3,565	10,859	2,434	8,425
1960년	12,122	3,775	8,347	3,763	4,584
1965년	12,645	3,318	9,327	3,438	5,889
1970년	12,070	3,077	8,993	4,646	4,347
1975년	11,597	3,038	8,559	6,323	2,236
1980년	9,907	3,173	6,734	5,987	747
1985년	4,838	3,417	1,421	5,040	△3,619
1990년	5,253	3,895	1,358	5,216	△3,858
1995년	3,650	4,577	△927	10,327	△11,254
2000년	2,681	4,483	△1,802	9,842	△11,644
2005년	1,876	4,660	2,784	9,689	△12,473

자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2006

### (3) 민단의 운영 및 부동산 소유 현황

- 민단의 운영은 구성원의 단비(회비)와 후원금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구성원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운영비 감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민단본부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단비가 4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로시마민단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1985년에는 6,000만엔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5,000만엔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재일민단의 각급 조직은 다양한 건물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지방본부·지부·분단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물수는 175개에 이르고 있다<표 3-6>. 이중 78개는 회사 또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소유형태로 되어있다. <표 3-7>

<표 3-6> 민단 각급조직별 부동산 보유 현황(2006)

단위: 개소

구분	지방본부	지부	분단	계
소유	40	130	5	175
임차지	1	26	3	30
본부건물사용	-	4	-	4
임대	4	2	-	6
자택	-	85	-	85
계	45	247	8	300

자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2006

<표 3-7> 민단 보유 부동산의 법인 형태(2006)

단위: 개소

구분	토지			건물		
	지방본부	지부	계	지방본부	지부	계
주식회사	4	6	10	4	6	10
유한회사	5	14	19	4	17	21
합명회사	-	2	2	-	2	2
협동조합	7	29	36	7	26	33
특정비영리활동법인	1	-	1	1	-	1
준학교법인	1	2	3	1	2	3
재단법인	2	2	4	2	2	4
신용조합	1	1	2	-	-	-
地緣단체	-	1	1	-	1	1
중간법인	-	1	1	-	1	1
기타 <sup>1)</sup>	-	1	1	-	2	2
계	21	59	80	19	59	78

주: 兵庫・播丹支部는 下戸田町内會 名義로 되어 있음

자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2006

- 현재 이 같은 민단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민단의 운영재원을 마련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 (4) 김치 네트워크 협의회

- 2005년 7월 재일중앙민단내의 조직으로 「김치네트워크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본 협의회는 한국식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전통김치의 효능 및 효과,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일본에 확산시킴과 동시에 한국요리를 취급하는 업소에 전통김치를 소개하는 등 김치관련 종사 재일한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7년 3월 현재 서울에서 출생한 후 일본에 유학 일본척식(拓植)대학에서 상학(商學)박사학위를 받은 김영렬씨(1953년생)가 회장을 맡고 있고, 관련기업대표들인 김용길(코마야), 안경식(草の家), 박화생(名峰), 김규환(해찬들 재팬), 구정애(마포식품), 배오성(GOSEI), 西村永健(永健)씨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쓰이물산의 澤合昌三씨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활동영역을 김치로부터 한국식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한식문화협의회■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다.

## 3.2. 총련

- 1945년 10월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은 공산주의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맥아더사령부와 일본정부에 의해 1949년 9월 해산되어 버렸다. 해산 당시 전국적으로 48개 부현본부, 458개 지부, 306개 분회로 조직되어 있었고, 구성원은 36만여명 수준이었다. 산하단체로 「민청」,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재일본조선학생동맹」 등이 있었으며, 민족교육을 강조하여 초·중·고교 등 578개의 5만여명에 이르는 민족학교를 운영하였다.
- 1950년 12월 일본공산당 중앙민족대책본부에서 민전 결성을 의결함에 따라 1951년 1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었고, 조련과 함께 해산당했던 「민청」이 「재일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으로 재조직되었다. 조련 해산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조국방위위원회(조방위)」가 조직되어 일본공산당과 함께 미군의 군수품 생산 및 수송 등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였다.
- 1955년 5월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조련」을 계승하는 형태로서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한인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설립하였다. 총련은 일본공산당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북한의 자금을 받는 등 북한과 밀착된 조직이 되었다. 총련은 1959년부터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을 시작하여 1984년까지 계속하였는데 동기간 중 총 93,339명의 재일동포가 북송되었다.
- 197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체제와 지도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에 대해 내부반발이 커지면서, 1972년 총련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계간 잡지 「삼천리」를 발간해 오던 주도세력이 총련에서 이탈 「한민련」을 조직하였다. 이를 계기로 총련세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 이후 남한이 북한에 비해 경제적 우위를 뚜렷이 나타냄에 따라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출범당시 총련조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원은 8만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4만명 수준이며, 총련계 재일 한인수는 10만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총련산하에는 계층별, 직능별, 성별 활동과 선전 및 홍보활동을 여러 단체를 두고 있다. 산하단체로는 「재일조선청년동맹」, 「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재일조선인 교육회」, 「재일조선인 교직원동맹」, 「재일조선인 과학자협회」,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조선유학생동맹」,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재일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

일조선인체육연합회」 등이 있다. 또한 주요 사업단체로는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조선문제연구소」,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재일수출입상사」,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총련 중앙학원」 등이 있다.

- 2006년 말 현재 「민단」과 「총련」간의 대립관계는 북한의 경제위기, 민단 세력의 절대적 우위, 양쪽 소속원들의 현실적인 생활의식 등의 이유로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조직단위에서는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이나 지방참정권 획득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3. 뉴커머

- 일본의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특별영주권자의 두 종류가 있다. 1945년 한국정부 수립 이전에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과 그들의 자손들을 특별영주권자로, 정부수립이후 한국 국적을 갖고 일본으로 간 한인들은 일반 영주권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65년에 「한·일 협정」이 조인되었으므로 이른바 「올드커머」, 「뉴커머」의 분류기준은 한·일 협정이전 및 이후 시기의 재일한인으로 하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 재일한인으로서 「뉴커머」는 1960년대 및 70년대는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일본경제가 활황국면을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일본으로의 유학 등도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뉴커머」는 약 14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 불법체류자를 합칠 경우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초기의 「뉴커머」들은 기존의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재일한인, 이른바 「올드커머」에 의한 유무형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까닭에 「올드커머」와의 관계가 매우 절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 「뉴커머」중에는 현재의 「민단」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가 된다. 하지만 「뉴커머」의 숫자가 확대되어 이들만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올드커머」와의 긴밀했던 관계가 다소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4.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재일 한인

- 재일한인 중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민단 및 뉴커머조직 등의 협조를 얻어 정리한 관련 종사자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하 자료는 민단계 재일한인 통계이며 총련계 자료는 누락되어 있음을 밝힌다.
- 2007년 현재 재일한인이 운영하는 회사 중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분야에 속하는 주요회사 1,513개의 업종별·지역별 분포는 <표 3-8>과 같다. 1,513개 중 한국 요리점이 606개로 가장 많고, 주점 163개, 기타 음식점 112개, 육상 및 해양 운송업 109개, 음식료품 소매업 96개, 무역업 78개 순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림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은 각각 4개, 40개, 8개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경도가 238개로 가장 많고, 효고현 138개, 오사카부 126개, 홋카이도 11개, 교토부 97개, 카나가와현 92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업종별 제일한인회사의 지역별 분포(2007)

단위: 개

도도부현	농림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상해운송 유및양송	창고업	무역업	음식품 음료도매업	음식품 음료소매업	관련 담관소매업	슈퍼 퍼편점	기타 소매점	한국 요리점	중국 요리점	레스토랑	잡점	기타 음식점	주점	계
전국	4	40	8	109	13	78	40	96	16	21	7	606	55	60	85	112	163	1,513
홋카이도	1	2	-	-	-	1	1	2	3	3	1	74	3	1	4	8	7	111
아오모리	-	1	-	-	-	-	-	-	1	-	-	-	-	4	2	-	-	8
이와테	-	-	-	-	-	-	1	-	1	-	-	4	-	-	2	-	-	8
미야기	-	1	-	-	-	-	1	3	2	-	-	6	-	1	1	7	2	24
아키타	-	-	-	-	-	-	-	-	-	-	-	5	-	-	-	1	-	6
야마가타	-	-	-	-	-	-	-	2	-	-	-	1	-	1	-	-	1	5
후쿠시마	-	-	-	-	-	-	-	-	1	-	-	1	-	1	-	1	1	5
이바라키	-	-	-	-	-	-	-	1	-	-	-	1	1	-	-	1	2	6
토치기	-	-	2	1	1	-	-	-	-	-	-	4	-	1	1	1	4	15
군마	-	1	1	-	-	2	-	1	-	-	-	7	-	-	-	-	4	16
사이타마	-	1	1	1	-	-	1	-	-	1	-	13	-	2	1	2	2	25
치바	-	-	-	1	-	-	2	4	-	-	-	14	1	2	1	4	3	32
동경	-	8	-	8	2	32	8	17	-	1	-	80	7	7	13	21	34	238
카나가와	-	1	-	7	1	5	-	6	1	-	-	42	3	4	4	3	15	92
니가타	-	1	-	-	-	-	-	1	-	-	-	4	-	-	1	-	1	8
후쿠야마	-	-	-	1	-	-	-	-	-	-	-	3	-	-	-	-	1	5
이시카와	-	-	-	-	-	-	2	2	-	-	-	10	-	-	-	-	-	14
후쿠이	-	1	1	-	-	-	1	1	1	-	-	3	-	1	-	-	-	9
야마나시	-	-	-	-	1	-	-	-	-	-	-	7	1	1	-	1	1	12
나가노	-	3	-	2	-	2	-	-	-	1	-	4	1	5	-	-	1	19
기후	-	-	-	6	-	3	-	3	-	2	-	26	5	1	3	5	4	58
시즈오카	-	-	-	-	-	-	1	-	-	-	-	9	-	-	-	2	3	15
아이치	-	3	-	9	1	1	1	5	-	-	-	28	4	5	5	3	14	79
미에	-	-	-	1	-	-	-	1	-	-	-	18	1	1	1	-	1	24
시가	-	-	-	2	-	-	-	2	1	-	-	8	3	1	1	6	8	32
교토	2	3	1	5	1	1	6	9	1	7	3	21	7	2	11	7	10	97
오사카	-	6	-	16	4	15	2	8	-	2	-	33	5	7	10	9	9	126
효고	-	1	-	20	1	7	6	10	3	1	1	43	4	1	15	11	14	138
나라	-	-	-	1	-	-	-	-	-	-	-	1	-	1	-	-	-	3
와카야마	-	-	-	1	-	-	1	3	-	2	-	12	3	1	3	1	2	29
돗토리	-	-	1	-	-	-	-	1	-	-	-	2	-	-	-	1	-	5
시마네	-	-	-	-	-	-	-	-	-	-	-	1	-	1	-	-	-	2
오카야마	-	1	-	3	-	1	3	2	1	-	-	29	3	1	2	2	3	51
히로시마	1	1	-	5	-	-	-	6	-	-	1	11	1	1	-	1	6	34
야마구치	-	-	1	7	-	2	-	2	-	-	-	8	1	1	2	2	1	27
토쿠시마	-	-	-	-	-	-	-	-	-	-	-	1	1	-	-	-	-	2
카가와	-	-	-	1	-	-	-	-	-	-	-	3	-	-	-	-	1	5
에히메	-	-	-	-	-	-	1	-	-	-	-	15	-	-	-	1	1	18
코우치	-	-	-	-	-	-	-	-	-	-	-	1	-	1	1	-	-	3
후쿠오카	-	2	-	9	1	2	2	3	-	1	1	33	-	3	-	8	4	69
사가	-	2	-	-	-	-	-	-	-	-	-	6	-	-	-	-	2	10
나가사키	-	-	-	1	-	-	-	1	-	-	-	2	-	1	-	3	-	8
쿠마모토	-	-	-	-	-	-	-	-	-	-	-	3	-	-	-	-	1	4
오이타	-	1	-	-	-	-	-	-	-	-	-	1	-	-	-	-	-	2
미야자키	-	-	-	1	-	3	-	-	-	-	-	-	-	-	-	-	-	4
카고시마	-	-	-	-	-	-	-	-	-	-	-	2	-	-	-	-	-	2
오키나와	-	-	-	-	-	1	-	-	-	-	-	6	-	-	1	-	-	8

-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별 재일한인 회사의 내역은 <부록 2>와 같다. 또한 재일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중 광복 60주년과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2006년에 개최된 「한일 우정의 잔치」에 참여한 곳의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3>과 같다. 본 행사에는 한국산 삼계탕이 무료로 제공되었는데 모두 37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오사카부 145개소, 동경도 31개소, 효고현 16개소, 카나가와현 14개소, 교토부 13개소 순으로 관서지역(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등)이 관동지역(동경도, 카나가와현 등)에 비해 월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1) 재일한국식품연합회

- 한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주로 가공식품)의 대일 수출에 있어 일본내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식품회사들의 공동·협력하여 상호이익의 증진은 물론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재일한인 및 일본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2005년 12월 「재일한인식품연합회」를 설립하였다. 본 연합회는 유한책임중간법인(有限責任中間法人)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농식품의 수입에 대한 사전 상담
  - 한국농식품의 품질 및 가격 등의 안정화를 위한 자주적 관리체계 확보
  - 일본 소비자에 대한 한국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상담 및 홍보
  - 한국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 정보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 한국농식품의 수입 및 통관, 유통수속의 신속화 및 원활화 추진
- 2006년 말 현재 「이동재팬」(이동막걸리의 일본법인) 사장인 김효섭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김규환(해찬들재팬), 신상윤(신인터내셔널), 정동규(台宇), 배상호(세진물산)씨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합회의 회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4>와 같다.

### (2) 농식품관련 재일 한국기업

한국기업 중 농식품관련 회사가 일본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갖고 있는 곳은 2006년 말 현재 35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위치 등은 <부록 5>와 같다. 동경지역이 가장 많고, 오사카, 후쿠오카 순으로 나타났다.

# 제 4 장

## 대일 농식품 수출현황과 문제점

### 1. 대일 농식품 수출추이와 구조

#### 1.1. 농식품 수출 현황

-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2001년 1,580백만달러에서 2006년 2,304백만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8%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채소류는 연평균 2.0%, 과일류 11.8%, 화훼류 4.9%, 김치 0.5%, 인삼 3.4%씩 증가한 반면, 산림부산물은 연평균 9.0% 감소하였다.
- 국가별로는 지난 5년간 일본은 연평균 0.4%, 홍콩은 2.2%로 수출증가세가 완만한 반면, 미국은 10.3%, 중국 19.0%, 러시아 9.9%, 대만 14.2%, 기타 국가 13.6%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표 4-1>. 2006년 현재 수출실적 기준으로 대일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아 28.2%를 차지하고, 미국이 12.3%, 중국이 11.3% 순을 보이고 있다.

<표 4-1> 국가별 수출실적(2001~2006)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요수출품목
						수출액	비중	
합계	1580.3	1639.9	1,859.8	2,085.0	2,221.5	2304.4		
일본	638.9	590.0	657.5	728.6	713.3	651.1	28.3	소주, 김치, 채소류(파프리카)
미국	172.6	213.9	223.2	284.7	280.3	282.4	12.3	인삼류, 밤, 난초, 면류
중국	108.7	129.9	166.1	213.7	231.2	259.5	11.3	당류, 면류, 과자류, 밤, 난초
러시아	129.2	134.5	157.4	175.4	203.8	207.5	9.0	돼지고기, 면류, 소스류
홍콩	131.4	106.7	99.2	119.3	123.7	146.2	6.3	당류, 인삼류, 맥주, 연초류
대만	47.3	65.3	62.0	71.0	110.1	91.9	4.0	과실류, 인삼류, 커피류, 김치
EU	33.5	35.2	52.5	64.5	67.5	48.7	2.1	연초류, 면류, 커피류, 선인장
기타	318.7	364.4	441.9	427.8	491.6	617.1	26.7	

자료: 농림수산통계 2006

- 최근에 김치 기생충알 파동, 엔화 하락, 농약잔류검사 강화(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 도입)등의 원인으로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대일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국가에 대한 가공식품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으로는 인삼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김치, 가공식품이 소폭 증가하였다. 중국으로는 인삼 및 장류 등 가공식품이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고 동남아시아로는 딸기, 돼지고기, 당류 수출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 2006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2,304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하였는데 국가 전체 수출증가율 14.4%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정이다. 총 수출실적 중에서 물량 기준으로 가공식품의 비중은 82.9%(금액기준 74.5%), 신선농림축산물은 12.8%(금액기준 23.2%)로 가공식품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 농식품 수출 추이

(단위 : 천톤, 백만불)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율(%)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식품 합계	2085.0	1481.5	2221.5	1433.5	2304.4	△3.2	3.7
신선농림축산물	550.9	220.8	608.2	184.0	535.5	△16.6	△12.0
- 채 소	127	56.7	138.5	46.3	133.6	△18.2	△3.5
- 김 치	102.7	32.3	93.0	25.6	70.3	△20.7	△24.4
- 인 삼	89.2	2.1	82.5	1.9	88.6	△9.5	7.4
- 화 훼	48.5	10.0	52.1	8.1	40.4	△19.0	△22.5
- 과 실	85.7	80.6	120.9	65.6	98.4	△18.6	△18.6
- 돼지고기	27.3	14.7	34.3	12.2	23.9	△17.0	△30.3
- 가금육(닭, 오리)	3.5	3.1	9.5	3.2	8.5	3.2	△10.5
- 산림부산물	67.0	21.3	77.4	21.1	71.8	△0.9	△7.2
가공농림축산물	1534.1	1260.7	1613.3	1249.5	1768.9	△0.9	9.6
- 가공식품	1437.2	1189.9	1540.7	1188.1	1716.7	△0.2	11.4
- 목 재 류	96.9	70.8	72.6	61.4	52.2	△13.3	△28.1

자료: 농림수산통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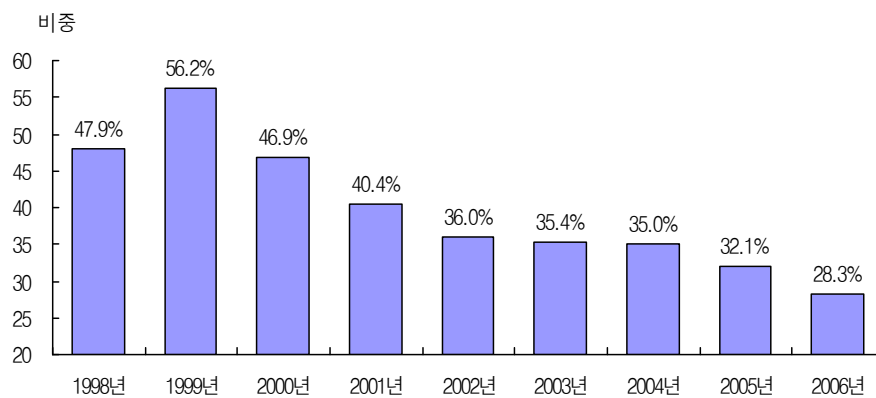
- 채소, 과실, 축산물 등 신선 농림축산물은 전년 대비 12.0% 감소하였다. 품목

별로 돼지고기 30.3%, 김치 24.4%, 화훼 22.5%, 과일 18.6%, 파프리카 15.5%로 크게 감소하였다.

## 1.2. 대일 농식품 수출추이

-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약 2,217천톤을 최고로 이후 점차 감소해 2006년 현재는 440.6천톤에 지나지 않고 있다. 수출금액 비중도 50% 이상이었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6년 현재는 28.3%(물량 기준 30.7%)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

<그림 4-1> 대일 농식품 수출액 비중의 변화(1998~2006)



자료: 농림업주요통계

- 대일 농식품 수출은 김치과동, 엔화약세 등 악영향의 지속으로 200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6년에는 또한 농약잔류검사를 강화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실행으로 신선농림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2006년 대일 농식품 수출실적은 7억 4천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일본의 주요 농식품 수입선 중 우리나라는 2003년 6위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에는 브라질, 칠레, 프랑스, 덴마크 등에도 밀려 10위로 추락하였다. <표 4-3>

<표 4-3> 일본의 10대 농식품 수입선

단위: 백만달러, %

순 위			국 가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1	1	1	미 국	11,592	26.3	11,308	22.8	11,121	22.1
2	2	2	중 국	6,251	14.2	7,635	15.4	8,148	16.2
3	3	3	호 주	2,999	6.8	4,344	8.8	4,329	8.6
4	4	4	캐나다	2,615	5.9	3,074	6.2	3,073	6.1
5	5	5	태 국	2,450	5.6	2,362	4.8	2,521	5.0
13	9	6	브라질	859	1.9	1,299	2.6	1,495	3.0
8	7	7	프랑스	1,299	2.9	1,493	3.0	1,466	2.9
12	10	8	칠 레	939	2.1	1,238	2.5	1,384	2.7
7	6	9	덴마크	1,308	3.0	1,653	3.3	1,366	2.7
8	8	10	한 국	1,312	3.0	1,453	2.9	1,351	2.7
			소계	31,624	71.7	35,859	72.2	36,254	71.9
			기타	12,462	28.3	13,778	27.8	14,145	28.1
			총계	44,086	100.0	49,637	100.0	50,399	100.0

자료: MOF Foreign Trade Statistics (Ministry of Finance)

- 농식품 수출액 중 대일수출 비중을 부류별로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김치류 89%, 화훼류 66.3%, 채소류 65.1%, 가금육류(닭, 오리) 61.2%, 인삼류 33%의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치류, 화훼류, 채소류, 가금육류의 대일 수출 비중은 모두 60% 수준을 넘는 등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같은 부류의 수출선 다원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1.3. 품목별 대일 수출 구조

- 2006년 대일 총 농식품 수출액 중 가공식품의 비중은 51% 수준이다. 농식품의 대일수출 구조는 신선농림축산물 위주에서 점차 가공식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4>

- 신선 농산물 중 채소류, 화훼류, 인삼류는 2004년, 과일류는 2006년, 산림부산물  
물은 2002년을 고비로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인삼류(홍삼 및 백삼)  
와 산림부산물(밤 및 송이버섯)의 감소 추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식품 중에서는 김치류와 음료, 소스류의 수출물량이 2004년을 고비로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연초류는 빠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일  
가공품, 삼계탕, 면류는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다  
소 주춤한 상태에 있다. 인삼가공품(홍삼정, 인삼음료 등)은 인삼류와는 달리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류는 2003년 이후 10만톤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품목별 대일 수출 변화추이(2002~2006)

단위: 천불,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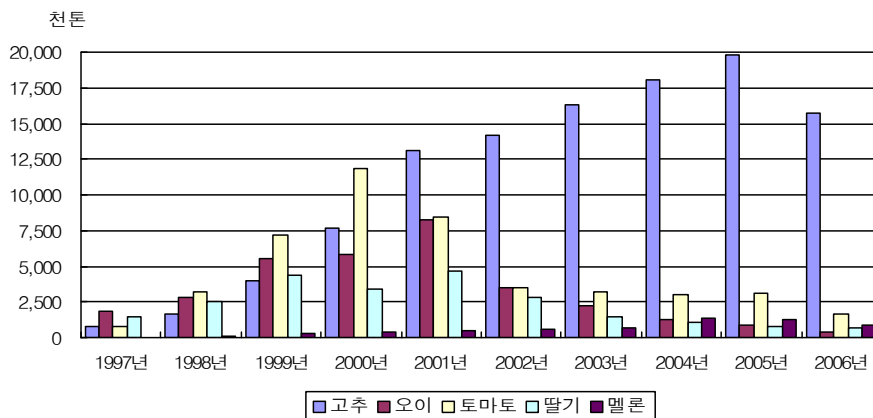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b>농식품 합계</b>	<b>590,027</b>	<b>452,860</b>	<b>657,453</b>	<b>462,270</b>	<b>728,594</b>	<b>498,065</b>	<b>713,299</b>	<b>483,553</b>	<b>651,064</b>	<b>440,581</b>
<b>신선농림축산물</b>	<b>251,226</b>	<b>77,417</b>	<b>270,158</b>	<b>76,400</b>	<b>283,979</b>	<b>95,322</b>	<b>273,774</b>	<b>91,871</b>	<b>214,023</b>	<b>66,464</b>
채 소 류	140,481	57,881	163,158	59,093	193,880	76,653	189,359	71,738	149,611	49,704
고 추	34,209	14,175	47,656	16,270	52,528	18,033	61,331	19,793	51,628	15,703
배 추	117	305	1	2	4,625	8,146	1,307	2,511	86	158
양 배 추	336	1,108	304	719	3,067	5,073	3,386	7,615	1,157	2,087
오 이	5,015	3,527	3,589	2,234	2,164	1,239	1,433	916	560	343
토 마 토	6,925	3,531	7,111	3,213	8,500	3,025	7,009	3,093	4,178	1,685
딸 기	5,739	2,846	3,766	1,446	3,617	1,031	3,402	786	3,249	693
멜 론	1,101	555	2,163	721	4,564	1,407	3,809	1,264	2,680	837
가 지	2,795	1,669	1,981	1,009	2,036	938	1,377	652	840	417
호 박	678	763	634	664	328	256	291	203	479	242
수 박	563	450	191	144	135	85	241	106	98	45
화 훼 류	22,909	4,573	29,736	5,507	36,180	5,967	31,359	5,464	26,838	5,706
장 미	7,112	1,359	10,401	1,849	11,595	2,195	10,540	2,062	8,825	2,564
국 화	7,177	2,068	8,394	2,208	9,268	2,156	8,502	1,927	6,971	1,717
백 합	6,950	904	9,477	1,173	13,337	1,390	10,484	1,191	9,716	1,212
과 실 류	5,530	5,329	6,953	6,053	11,391	8,473	16,941	10,795	14,177	7,991
사 과	111	64	16	15	166	54	104	67	178	190
배	321	355	59	34	499	278	306	186	330	222
기타감귤류	317	119	1,117	362	2,513	852	6,229	2,225	6,488	1,657
인 삼 류	1,553	16	986	11	2,040	53	656	5	261	3
홍 삼	537	4	448	2	989	44	14	0	131	0
백 삼	1,016	13	985	9	1,050	9	641	5	130	2
돼 지 고 기	810	122	884	98	4,504	969	495	123	176	11
가 금 육 류	3,859	1,057	2,926	906	609	117	4,322	861	2,692	738
닭 고 기	486	448	927	557	93	47	659	307	810	380
오리고기	3,374	609	1,976	344	516	70	3,663	554	1,882	358
산림부산물	76,084	8,439	65,515	4,732	35,375	3,090	30,642	2,885	20,268	2,311
밤	51,258	8,052	43,762	4,332	17,586	2,840	14,795	2,654	11,785	2,175
표고버섯	2,261	155	4,014	255	2,248	140	1,741	103	1,450	100
송이버섯	22,564	232	17,739	145	15,541	110	14,107	129	7,034	37
<b>가 공 식 품</b>	<b>311,738</b>	<b>247,068</b>	<b>360,666</b>	<b>268,897</b>	<b>427,469</b>	<b>294,694</b>	<b>411,937</b>	<b>285,269</b>	<b>388,034</b>	<b>268,526</b>
김 치 류	74,126	27,097	87,169	30,584	96,911	32,428	86,428	29,663	62,637	22,793
인삼가공품	26,458	593	28,243	579	30,795	639	28,660	520	28,892	520
홍 삼 정	4,238	30	5,131	34	4,878	32	4,934	34	4,053	29
백 삼 정	10,116	43	10,663	40	11,486	44	11,300	41	11,243	39
인삼음료	4,626	371	6,869	396	6,230	423	5,589	345	2,521	172
과실가공품	2,014	2,952	2,883	3,915	3,932	5,161	4,789	5,938	3,276	4,094
삼 계 탕	1,541	417	1,631	388	1,558	362	2,997	690	2,526	577
소 스 류	4,886	2,308	6,688	3,114	8,814	4,096	9,089	3,987	8,231	3,533
고 추 장	2,233	1,135	3,206	1,505	4,223	1,804	4,067	1,831	3,222	1,449
된 장	139	153	359	304	281	248	391	343	745	533
간 장	57	44	182	363	519	846	442	378	284	163
커 피 류	1,049	1,156	1,311	1,173	1,813	1,688	2,331	1,819	2,416	1,504

자료: 농림수산물정보 <http://www.kati.net>

### 1.3.1. 채소류

- 대일 수출 주요 채소 품목은 고추(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딸기, 멜론 등이다. 2000년까지는 토마토가 가장 많고 오이의 비중은 컸었으나 2001년 이후로는 파프리카 위주의 수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그림 4-2> 주요 채소류 대일 수출실적 변화추이(1997~2006)



자료: 농림수산물정보 <http://www.kati.net>

- 파프리카의 대일수출은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본수입시장에서 70%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세를 계속하다가 2006년 농약허용치 초과로 한국산 파프리카가 샘플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격 변화되면서 수출물량은 대폭 감소되었다. 현재 전수조사 조치는 해제되었지만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시행에 따라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토마토는 2000년에 11,876톤 수출량을 달성한 이후 2006년 현재 1,685톤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토마토 수출은 2000년 당시 일본 수입시장의 90% 이상 수준을 점유하였지만 2005년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일본수입시장에서의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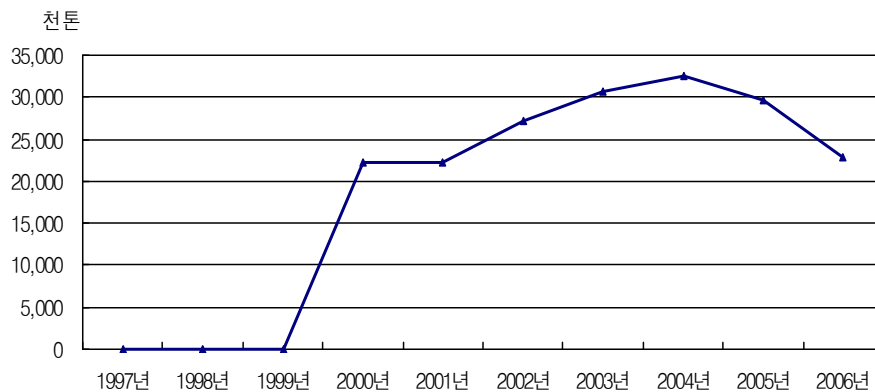
지위도 미국에 밀리게 되었다. 이 같은 수출물량 감소의 원인은 2002년 국내 방울토마토 가격상승으로 수출물량이 감소한데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에서는 당도가 높은 ‘치카’와 같은 품종이 개발되어 식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빼빼’ 및 ‘꼬꼬’와 같은 오래된 품종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멜론의 대일 수출량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감소추세 및 당도와 신선도 제고 미흡 문제 등으로 2006년에는 감소하였다.

### 1.3.2. 김치류

- 88 올림픽 이후 한국의 식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90년대에 들어와서 김치수출이 시작되었다. 2004년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졌으나 2005년 기생충알파동 이후 한국산 김치에 대한 일본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값싼 중국산 김치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수출량도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림 4-3>

<그림 4-3> 대일 김치수출 실적(199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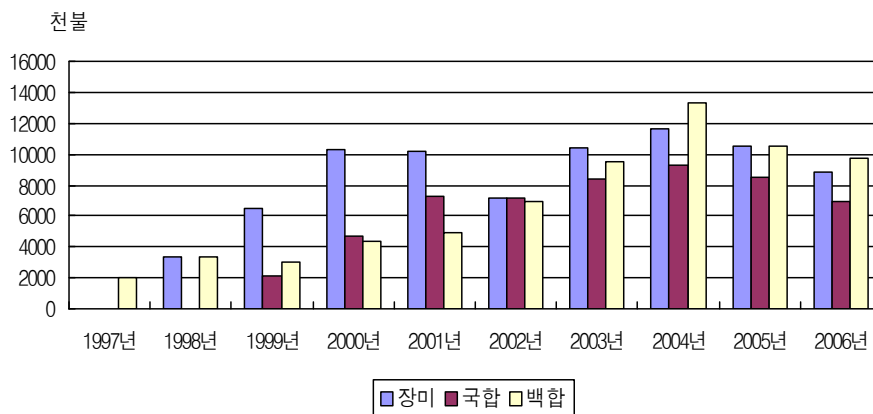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정보 <http://www.kati.net>

### 1.3.3. 화훼류

- 화훼류 중 대일 수출품목은 주로 절화류인 장미, 국화, 백합이다. 화훼수출업

체의 영세성, 품목별 단지화의 미흡으로 수집·선별 등의 유통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수출대상 신제품의 개발 등이 지연됨으로써 일본에서의 한국산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장미는 2005년의 33.8%에서 2006년에 15.5%, 국화는 14.2%에서 9.4%, 백합은 85.9%에서 85.0%로 감소하였다. <그림 4-4>

<그림 4-4> 대일 화훼류 수출 추이(1997~2006)



자료: 농림수산정보 <http://www.kati.net>

- 일본의 2006년 국화(스프레이, 대륜, 소륜 등) 수입량은 2억 130만본에 이르는 데 스프레이 국화는 말레이시아산(일본인이 현지 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대륜 국화는 중국산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신제품인 ■神馬 ■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 밖에도 베트남산의 수입이 확대되는 이유 등으로 한국산 국화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 장미는 최근 인도산과 케냐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산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인도산은 노지재배로 인한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지

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입지는 보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백합의 경우에는 향기 등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신제품개발, 물류비용절감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경우 점유율 회복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1.3.4. 가금육류

- 한국산 닭고기에 대한 일본인 소비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수출경쟁국은 태국, 브라질, 중국, 미국 등이며 한국산은 2003년 기준으로 수입 전체 물량의 0.08%에 불과하였다. 냉장다리육은 일본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기타 부위는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 삼계탕은 일본시장에서의 소비가 다소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출 확대 전망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삼계탕의 대일 수출은 2005년 300만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로 2006년에는 다소 감소해 250만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5> 삼계탕의 국가별 수출 추이(2004~2006)

단위: 톤, 천불

국가	2004년		2005년(A)		2006년(B)		증감율(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470	1,946	830	3,520	960	4,056	15.6	15.2
일본	362	1,558	690	2,997	577	2,526	△16.4	△15.7
대만	38	160	78	316	278	1,120	255.1	254.3
홍콩	64	203	57	180	77	262	34.9	45.4
필리핀	3	12	2	11	0	0	-	-
터키					16	94	-	-
기타	3	13	3	16	12	54	300.0	237.5

자료: 농림부, 2007년 농식품 수출대책, 2007.2.

- 오리고기의 대일 수출액은 아직까지 큰 편은 아니지만 야끼니꾸점을 중심으로 구이용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꾸준히 소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량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 1.3.5. 주류

- 일본에 대한 수출 주류의 주종은 소주이다. 일본의 회석식 소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산 회석식 소주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03년 기준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5> 대일 주류수출 실적(1997~2006)



자료: 농림수산정보 <http://www.kati.net>

- 대일본 맥주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2003년 수출실적이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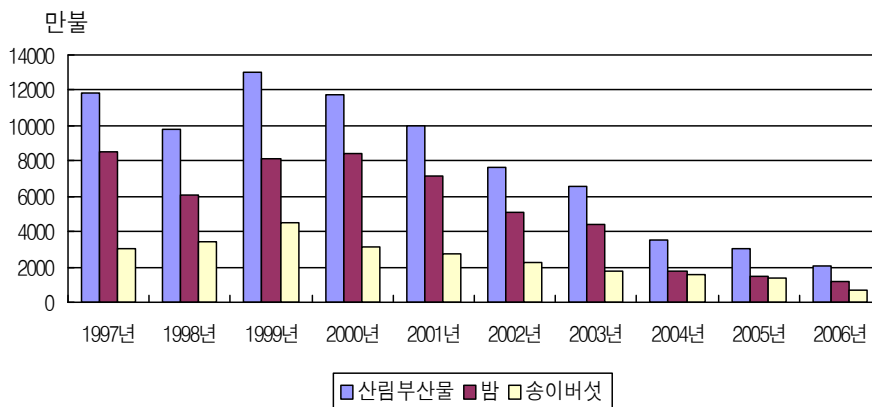
하였다가 최근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의 발포성 청주 및 탁주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가장 크다. 한국의 산사춘, 복분자 등 민속주 수출이 늘고 있는데 특히 한국산 막걸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 1.3.6. 산림부산물

- 산림부산물의 대일수출은 90년대까지는 1억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지만 2000년 이후 빠른 속도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6> 대일 산림부산물 수출 추이(1997~2006)



자료: 농림수산정보 <http://www.kati.net>

- 대일 산림부산물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밥이다. 최근 일본의 밥 소비시장이 위축됨과 동시에 중국산 저가 밥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간밤, 생밤 등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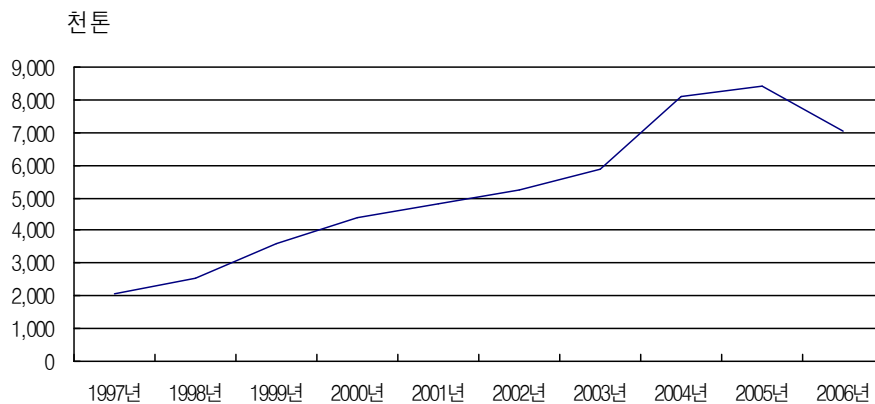
12.7% 하락하였다.

- 송이버섯은 1999년 4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였으나 국내시장가격의 상승, 신선도 유지 미흡, 저가의 중국산 및 북한산 송이버섯의 일본시장 진출 등의 이유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3.7. 면류 제품

- 한국산 면류의 대일 수출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품목은 라면, 냉면, 당면 등이다. 라면의 경우에는 2003년도 기준하여 일본 전체 수입량 4,500톤 중 2,286톤을 차지하였다.

<그림 4-7> 대일 면류 수출 실적(1997~2006)



자료: 농림수산정보 <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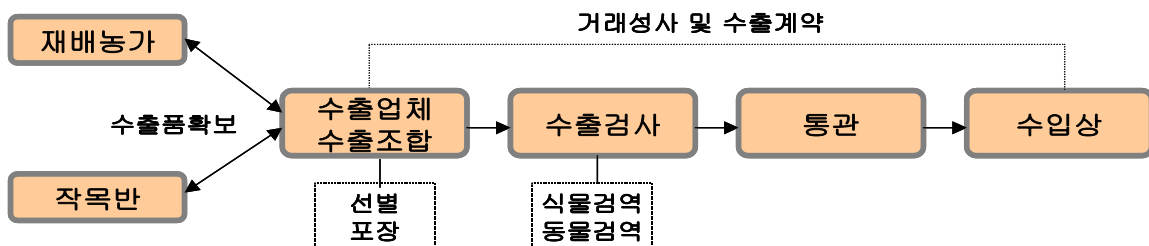
- 한국산 라면은 신라면을 중심으로 소비자 및 유통업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매운 맛과 더불어 최고기스프의 감칠맛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 2. 농식품 수출 관련 체계

### 2.1. 수출 농식품의 유통체계

- 대일 농식품 수출에 있어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그림 4-8>과 같다. 수출업체가 일본 바이어와 거래를 성사시켜 오다를 받은 후, 산지의 재배농가 혹은 작목반에서 수출물량을 수집하여 가공, 선별, 포장하여 수출을 진행한다. 산지가공, 선별, 포장은 산지의 조합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조합에서 수출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을 수집하여 가공, 선별, 포장을 책임지고 수출업체에 넘기기도 한다. 또한 수출조합에서 직접 해외 수입상 혹은 해외 조합지사를 통해 오다를 받고 수출물품을 수집하여 가공을 거친 후 수출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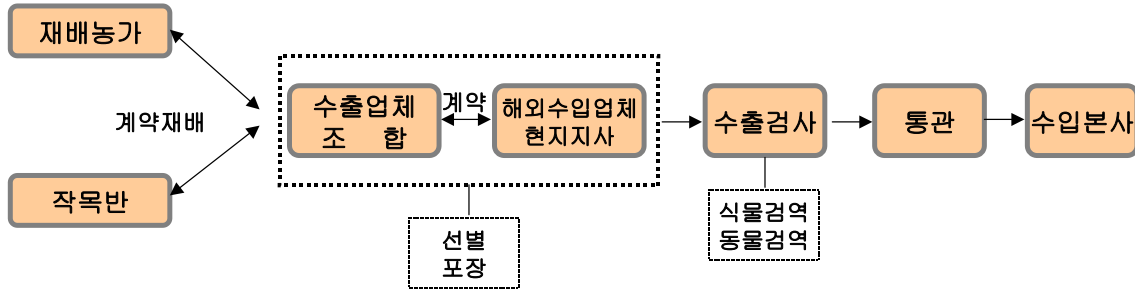
<그림 4-8> 대일 수출 농식품 유통체계 1



- 대일 농식품 수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연중 일정한 물량공급으로 신용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와 해외수입업체가 협력하여 계약재

배를 통해 연중물량공급을 보장하는 <그림 4-9>와 같은 수출경로가 성공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9> 대일 수출 농식품 유통체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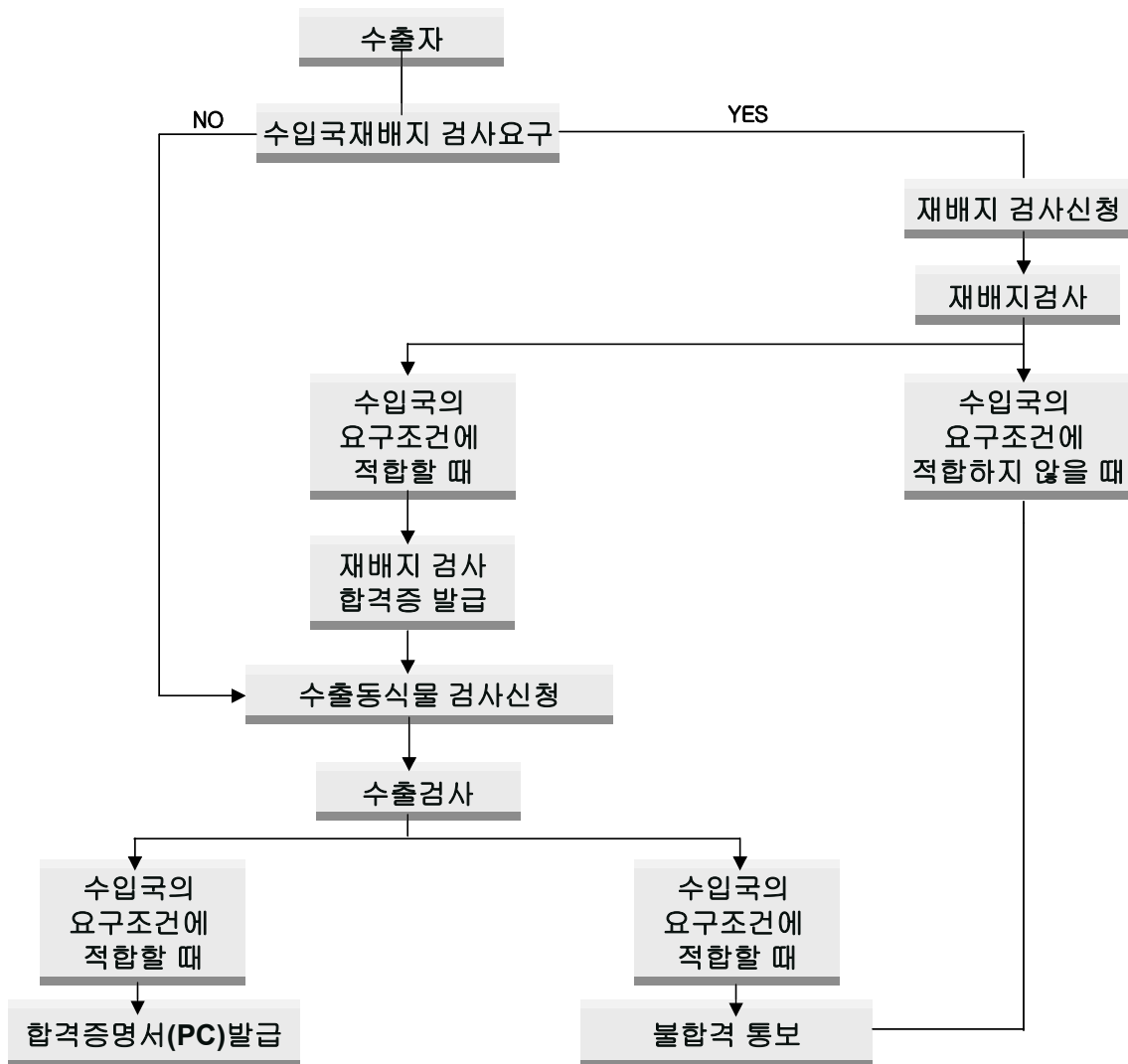
- 일본으로의 농식품 수출에 있어 국내 가격등락이 영향을 주어 수출신용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수출농가들은 국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 물량을 내수시장에 판매하여 고정물량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따라서 신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림 4-9>와 같은 수출경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현재 이같은 수출경로의 대표적인 사례는 파프리카이다. 파프리카의 주 생산지인 전북지역의 ■농산무역■은 일본의 ■돌재팬■ 한국 현지 지사와 연중 고정물량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농산무역■은 현재 10만평에 달하는 재배지역을 확보하여 재배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작목반 단위에서 직접 해외수입상과 거래를 성사시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물량이 적은 편이다.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처럼 규모화, 전문화된 형식의 수출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2.2. 수출 농산물 검역체계

- 수출업자가 농림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여부에

관하여 동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물일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축산품일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후 선·기상 적재시는 검역실시 내용과 화물대조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적재를 지시하게 된다. 현행 수출 농식품의 검역체계는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 > 수출 농산물의 검역체계



자료: 국립식물검역소 <http://www.npqs.go.kr>

- 수입대상국에서 유해 농산물 유입을 사전에 막고자 할 때는 식물방역관을 수출국에 출장케 하여 수출 전에 수입할 농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지검역체계도 있다. 대미 수출 과실의 경우에는 미국 식물방역관이 우리나라 현지에서 사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출국의 생산단계부터 검역을 하는 현지검역은 도착지 검사의 한계, 도착 후 검역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 검역 대상 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국가기관의 필수검역을 받는 외에도 신뢰도가 높은 민간단체의 검역기관을 이용하는 검역체계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대일본 수출품목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출자한 칭다우청위식품안전연구개발유한공사(靑島誠譽食品安全研究開發有限公司)가 있다. 본 공사는 민간기업 자격으로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식품과 관련한 일본 대기업이 이 공사의 검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공사여서 일본 수출 농식품에 대한 필수검역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입상들은 중국 수출상들에게 본 공사의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농식품의 경우에는 <그림 4-10>의 일반적인 수출 검역경로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은 경우 수출통관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일본의 수입검역단계에서 소독, 폐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대일 수출농산물에 대한 클레임 발생현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과일 및 채소류 등의 경우 9,695건 가운데 601건이 소독처리 되고 125건이 폐기처분되었다. 또한 2006년 초에는 대일 수출 파프리카에서 농약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샘플조사가 전수조사로 변경되어 큰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표 4-6> 한국산 주요 수입농산물의 검역결과(2005)

단위: 톤

품목	합계		소독처리		폐기처분		비율(%) (소독, 폐기)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일본 전체	428,339	2,949,918,831	14,649	352,802,280	5,055	4,752,896	4.6	12.1	
한국산 전체	個	3,095	59,622,571	468	11,149,463	34	168,095	16.2	19.0
	kg	9,695	45,310,063	601	5,628,258	125	94,552	7.5	12.6
	本	26	20,630	0	0	0	0	0	0
식재용식물(個)	647	3,921,784	24	125,275	18	70,641	6.5	5.0	
식재용(個)	5	3,571,300	0	0	0	0	0	0	
식재용종자(kg)	409	146,270	1	8,145	55	180	13.7	5.7	
절화(個)	2,443	52,129,487	444	11,024,188	16	97,454	18.8	21.3	
생과일(kg)	244	557,063	14	80,428	4	674	7.4	14.6	
채소(kg)	8,049	34,755,662	576	5,488,596	63	92,686	7.9	16.1	
곡류(kg)	68	1,602	0	0	0	0	0	0	
콩류(kg)	17	18,783	1	90	0	0	5.9	0.5	
기호·향신·약염료(kg)	609	2,108,171	8	50,850	1	1,000	1.5	2.5	
유비사료(kg)	299	7,722,512	1	149	2	12	1.0	0	
기타(kg,本)	27	20,631	0	0	0	0	0	0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 식물검역통계 2005

### 2.3. 수출지원체계

- WTO체제에 대응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농림산물의 고품질화, 규

격화, 포장개선, 물류개선 및 수출확대 기반구축 등을 적극 유도하여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수출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재원은 농수산물농안기금이고 법적근거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29호, 2000.6.7) 및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6. 12)이다.

- 1994년부터 정부에서는 수출농산물의 원예전문단지(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왔다. 농림부훈령 제1247호에 근거한 원예전문단지는 현지사정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집단화된 원예작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지역(규모)을 과수·채소·화훼담당부서에서 품목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정된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연차별로 수출단지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통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수출물류비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12~5%)를 줌은 물론 수출컨설팅 실시, 전담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서비스, 해외연수 등의 지원을 한다.
- 2006년 6월말 현재 모두 133개(채소류 34, 과실류 54, 화훼류 45)의 수출단지가 지정되었고, 총면적은 9, 721ha, 해당 농가수는 7, 948농가로 나타났다. <표 4-7>

<표 4-7> 지역별 수출단지 지정현황 (20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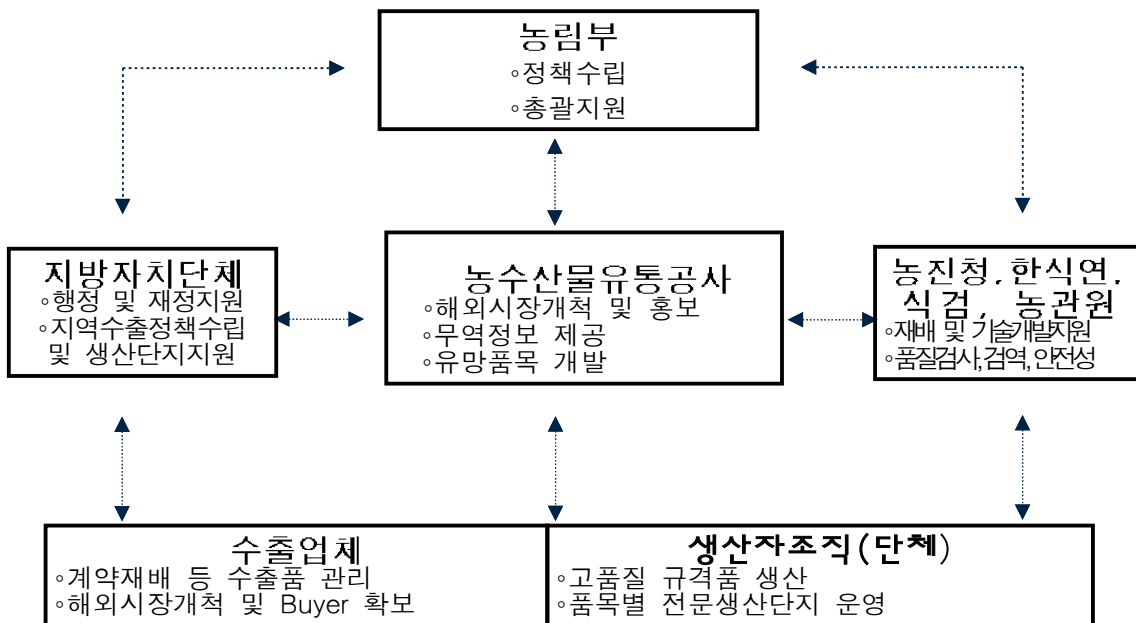
단위: 개소, ha, 호

구분	지정현황				면적	농가수	'06 평가결과				
	계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최우수	우수	일반	저평가	계
합계	133	34	54	45	9,721	7,948	18	18	51	40	127
경기	13	1	7	5	2278	1255	1	1	3	6	11
강원	7	3	-	4	75	78	1	4	2	-	7
충북	7	-	6	1	511	312	-	1	5	-	6
충남	15	1	6	8	3049	1992	2	4	8	1	15
전북	19	5	5	9	674	654	3	3	3	9	18
전남	21	9	7	5	1065	1212	5	2	8	6	21
경북	17	1	12	4	1133	1276	2	1	5	8	16
경남	20	13	4	3	409	435	2	2	9	5	18
제주	9	-	5	4	220	328	1	-	4	4	9
광주	1	1	-	-	79	230	-	-	1	-	1
울산	4	-	2	2	228	176	1	-	3	1	5

- 이중 최근 지정된 곳을 제외한 127개 단지에 대한 평가결과 36개소만이 최우수 및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70%정도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행 농산물 수출관련 정책수립 및 자금지원은 농림부에서 정책수립 및 총괄

지원을 책임진다. 지원자금관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식물검역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품종 개량, 기술지도, 제품개발, 품질검사, 검역지원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수출정책을 수립하고 차원의 예산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림 4-11>. 그 밖에,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별도로 수출 활성화사업과 수출원자재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총 1,223개 농협중 308개 수출농협에 대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수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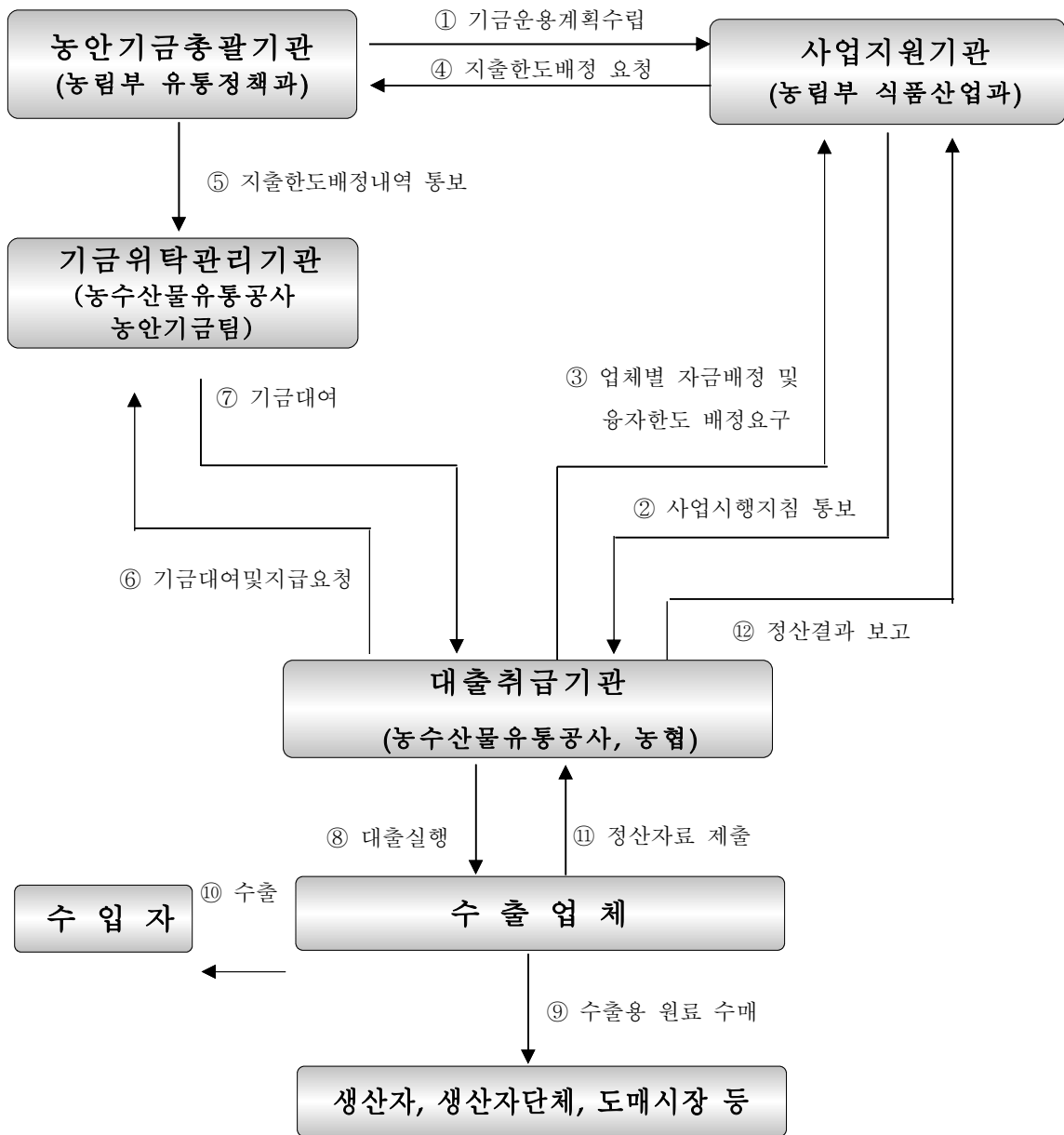
<그림 4-11> 수출지원체계



가.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림부의 수출관련 지원자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운용, 결산 등 업무를 위탁 관리한다. 공사에서는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업체의 원료구매자금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업체를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대상 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그림 4-12>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체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 수출관련 지원사업은 크게 운영활성화지원과 시설현대화지원으로 구분된다 <표 4-8>.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원료구매자금, 운영활성화자금, 유망품목 시장 개척자금, 가공식품업체 지원자금, 부자재 공급지원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표 4-8> 수출지원사업별 지원계획(2007)

사 업 명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목적	대출금리
<input type="checkbox"/> 운영활성화지원	286,155		
○ 원료구매자금	120,000	수출업체(생산자·생산자단체 포함)에 대해 수출에 필요한 농림식품의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국산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 소득 증진 도모	3.0~4.0%
○ 운영활성화지원	166,155		3.0~4.0%
- 운영활성화자금	(136,030)	농식품 수출업체(생산자·생산자 단체 포함)의 수출을 위한 농산물의 저장·가공·포장·운송·부자재 구매비 및 부재자 공급업체의 부자재 비축공급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국산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3.0~4.0%
-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	(8,000)	수출업체(생산자·생산자 단체 포함)에게 수출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완제품, 부자재 등 물품구입 및 저장·가공 등 부대비용을 적기에 신속 지원함으로써 국산농식품 수출촉진 도모	3.0~4.0%
- 가공식품업체 지원자금	(18,845)		4.0%
- 부자재 공급 지원자금	(3,280)		4.0%
<input type="checkbox"/> 시설현대화지원	5,000	농산물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수출시설의 현대화와 국내 농산물의 수출기반 강화	3.0~4.0%
<b>계</b>	<b>291,155</b>		

주: 대출금리 :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 3.0%, 비농업인 4.0%(단, 수출업체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0%p, 우수업체 0.5%p 인하적용)

- 정책자금의 지원시기는 품목별·사업별로 수요시기에 맞추어 자금 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시설현대화지원금이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인 외에 모두 12개월이다.
- 수출업체 및 생산자조직은 사업별 지원시기에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에서는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자금을 배정한다. 수출지원금을 사용한 업체들은 추후 수출실적을 제출하고 공사에서는 수출업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체에 1.0%, 우수업체에 0.5%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 수출관련 정책자금 지원실적은 1991년 이후 계속 증가되어 1999년에 2,630억원이 집행되었다.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309개 업체에 대해 3,527억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에는 220개 업체에 2,86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표 4-9>

<표 4-9> 수출관련 자금지원 추이(1997~2006)

단위 : 백만원, 개소

자금명	품 목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농 안 기 금	합 계 (업 체 수)	183,587 (289)	237,540 (419)	263,006 (379)	252,984 (324)	226,690 (271)	338,440 (305)	352,660 (309)	321,625 (304)	259,167 (228)	286,154 (220)	
	원료구매 자 금 (1년)	92,475 (123)	125,026 (187)	121,514 (134)	100,406 (120)	98,582 (96)	107,840 (92)	110,838 (90)	108,312 (88)	117,163 (88)	118,780 (92)	
	양 과	-	3,292 (18)	-	-	-	-	-	-	-	-	
	표고버섯	5,046 (7)	4,864 (9)	5,054 (8)	4,379 (5)	3,763 (5)	3,700 (5)	3,468 (5)	2,897 (7)	2,123 (6)	2,323 (6)	
	김치원료	7,224 (15)	9,896 (15)	11,000 (12)	13,550 (19)	15,739 (13)	19,495 (14)	21,349 (13)	22,933 (12)	26,921 (12)	25,836 (12)	
	채 소 류	16,634 (25)	14,988 (19)	14,820 (21)	18,200 (28)	18,200 (23)	20,206 (21)	18,137 (20)	13,542 (20)	15,332 (19)	20,427 (19)	
	버 섯 류	700 (2)	728 (2)	488 (1)	200 (1)	100 (1)	30 (1)	30 (1)	27 (1)	-	-	
	과 실 류	13,717 (17)	16,959 (17)	16,257 (15)	13,920 (16)	14,962 (14)	18,570 (15)	24,827 (16)	28,894 (16)	39,327 (21)	42,352 (25)	
	밤	28,788 (19)	28,220 (21)	27,075 (13)	28,000 (12)	30,300 (11)	30,824 (9)	29,925 (8)	28,321 (8)	19,645 (8)	16,860 (10)	
	송 이	5,897 (13)	7,004 (15)	6,334 (15)	7,125 (12)	6,454 (11)	4,086 (7)	2,368 (8)	839 (6)	601 (4)	906 (5)	
	인 삼 류	11,880 (14)	12,336 (21)	13,413 (16)	12,120 (16)	7,264 (11)	8,899 (14)	7,675 (13)	7,870 (13)	10,225 (13)	9,437 (12)	
	화 훼 류	799 (6)	892 (6)	373 (4)	1,285 (6)	1,210 (5)	1,570 (4)	2,599 (4)	2,599 (4)	2,599 (4)	129 (1)	
	생 약	1,790 (5)	1,648 (6)	1,058 (6)	927 (4)	590 (2)	460 (2)	460 (2)	390 (1)	390 (1)	510 (2)	
	돼지고기	-	23,395 (36)	24,722 (21)	-	-	-	-	-	-	-	
	채소종자	-	804 (2)	920 (2)	700 (1)	-	-	-	-	-	-	
	명계.떡갈잎	-	-	-	-	-	-	-	-	-	-	
	운영활성화자금 (1년)	68,101 (143)	81,015 (176)	89,085 (162)	115,000 (137)	83,749 (112)	196,112 (142)	197,311 (128)	177,114 (133)	126,067 (80)	158,031 (91)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 (1년)	12,000 (1)	15,226 (31)	32,383 (54)	21,000 (47)	29,903 (55)	29,659 (65)	35,131 (82)	33,256 (78)	11,694 (56)	8,150 (35)	
시설현대화자금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11,011 (22)	16,273 (25)	20,024 (29)	16,578 (20)	14,456 (8)	4,829 (6)	9,380 (9)	2,943 (5)	4,243 (4)	1,193 (2)		
수 발 기 금	합 계 (업 체 수)	-	-	-	-	-	-	-	-	81,932 (111)	91,096 (92)	
	운영 자금 (1년)	정기	-	-	-	-	-	-	-	-	70,556 (81)	-
		수시	-	-	-	-	-	-	-	-	10,416 (29)	-
		원료 구매비	-	-	-	-	-	-	-	-	-	50,909 (45)
		수출 부대비	-	-	-	-	-	-	-	-	-	40,187 (47)
시설현대화자금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	-	-	-	-	-	960 (1)	-		
축 발	축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	-	-	-	-	-	26,824 (21)	31,897 (22)	28,710 (21)	28,003 (20)	26,813 (19)	
총 계		183,587	237,540	263,006	252,984 (324)	226,690 (271)	365,264 (326)	384,557 (331)	350,335 (325)	369,102 (359)	404,063 (331)	

주1:절대업체수:'97(195),'98(255),'99(233),'00(209),'01(175),'02(242),'03(251),'04(247),'05(256), '06(251)  
 주2:원료구매는 '80년, 수매유통지원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은 '98자금부터 공사 직접사업수행  
 에서 용자사업으로 전환  
 주3: '05년부터 농안기금과 수발기금으로 재원분리 지원  
 주4:돈육수출업체 유통자금은 '98년도부터 일반업체에 포함 지원, 돈육포장제지원자금은 '99년도부터 물류비 보조금으  
 로 전환 지원  
 주5:축산물관련자금은 '01년부터 축발기금으로 재원전환 지원, 공사와 농협으로 대출이원화 운영하며 지원실적은 공사  
 취급분임. 축산물가공운영자금 전체규모 : ('01) 476억원<구체역발생으로 미지원>, ('02)392억원, ('03) 391억원, ('04)  
 477억원, ('05) 376억원(공사지원액 :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 230억원, 도축장 운영자금 50억원), ('06) 500억원(공사

지원액 :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 218억원, 도축장 운영자금 50억원)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 자금 배분을 보면 원료구매자금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현대화자금은 1990년대말 부터 급격하게 줄어 1997년 당시 전체의 6% 수준에서 2006년에는 0.04%에 불과한 수준이다. 1994년부터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여 자동화 비닐온실, 곽질판온실, 유리온실 보급 등에 집중함에 따라 시설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IMF 한파로 시설원예부문의 과잉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1990년대 말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보조 등 지원사업이 없어지게 되어 현재까지도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 원료구매자금 지원은 과실류, 김치류, 채소류, 밤, 인삼, 표고버섯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부터 돼지고기와 채소종자에 대해서도 신규로 구매자금을 융자하였다.
- 연간 수출지원자금 중 대일농식품 수출에 지원되는 비중은 2006년 해외시장개척사업비 기준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의 농식품 수출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사업내용 (2006)

사업명칭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컨설팅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에서 수출까지 단계별 집중 지도 -해외 재배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가 개별 지도 -수입국 검역, 통관제도, 해외시장정보, 수출추진시 유의사항,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하여 애로·건의사항 해소 및 개선 -자연재해, 병해충 등 애로사항 발생시 상시컨설팅 체제 운영 -수출유망 가공식품 컨설팅 실시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 I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기관으로서 기능 수행('06년부터)- -ISO 9001(국제품질인증) 획득 지원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 II	-대일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모니터링 제도 운영 -대일 채소류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운영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전문생산단지 평가 등 사후관리	-농림부 주관, 지자체(실태조사)·농수산물유통공사(현지 확인) 시행 -전년도 단지 운영실적에 대해 조사 및 운영실적 분석 -평가단지 부류별(과실, 화훼, 채소) 4등급산정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차등지원 : 최우수(12%), 우수(9%), 일반(5%)
수출유망농산물 개발지원(가공식품)	-상품개발·개선, 마켓테스트, 판촉활동·수출상담 등에 필요 경비 -총 사업비의 70%(35백만원 이내/1품목)
신선농산물 개발수출사업	-물품대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시장조사 단계부터 수출정착화 단계까지 연차적 차별적 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국내산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품목별·국가별로 산정된 표준물류비의 30% 수준 지원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운영	-경쟁력 있는 품목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브랜드화 목적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단감(예정) -Whimori 통합마케팅 전개로 브랜드 가치 제고
김치·인삼 캐릭터 등록, 사용권 부여 및 관리	-캐릭터 해외상표 등록·관리 -캐릭터 사용권 부여 및 관리 -캐릭터 부착품 김치('05:35업체)·인삼('05:26업체)수출물류비 지원
12ft 냉장컨테이너 운영	-국내 산지에서부터 일본 소비지까지 냉장유통(Cold Chain System)과 복합운송체계(Door-To-Door) 구축 -운영대수 : 29대 -운영방법 : 대한통운(주)에 위탁운영관리 -운영항로 : 4개 항로(※ 선임 : \$470) - 부산 ⇄ 일본 시모노세키 / 하카다 / 오사카항 - 마산 ⇄ 일본 시모노세키항
“환변동보험” 가입지원	-국내 수출기업이 환위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업체당 50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임차료 및 장치비1부스(9㎡)에 한하여 100% 지원 -미주·유럽지역 및 신규참가 항공료 50% 지원 (업체별 1인) -통역판촉요원은 20업체 이하 50% 지원 -한국관 일괄 광고방식으로 100% 지원 -신선농산물 운송·통관비(100만원 한도) 및 냉장비품비의 50% 지원
개별참가박람회 지원	-업체별 500만원(1회기준) 범위내에서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1업체당 반기별 3회 -연간 60회 내외 (상·하반기 각 30회 수준으로 운영)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임차비·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홍보비 등 행사비용의 80%이내지원
수출농산물 해외광고	-TV, 인터넷 등 전파매체를 활용한 해외홍보 -지속적 홍보효과가 있는 옥외광고 실시(김치,인삼,과실류 등) -전문지·일간지 광고 및 홍보책자·캘린더 제작 등 인쇄매체 광고
기획홍보마케팅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확대기반 조성 -해외 한국음식요리교실, 해외 학술세미나, 시식홍보 Free 마케팅, 한국식품로드쇼, 문화·스포츠마케팅, 세계 유명요리학교인 프랑스의 「르프르동 블루」와 연계한 김치의 세계화, 한국농식품 수출홍보대사 위촉, 홍보활동 전개
해외조직망 운영	-7개국 10개소에 해외 aT센터(Korea Agro-Trade Center) 운영 -중소 수출업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장개척 지원 -해외홍보 지원

## 나.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 농업기술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연구기술개발과 기술지도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수출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신품종을 개발
  - 수출현장에 필요한 애로기술을 집중개발
  -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및 전문맞춤형 기술지도
- 수출액 2백만불 이상의 19개 작목을 중점 개발작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을 위한 수출전담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06년 현재 수출전담연구팀에 참여한 연구원은 중앙·도 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의 총 405명이고 2007년에는 47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수출전담팀이 운영하는 작목은 현재 수출 성숙기에 있는 채소류 6개 작목(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가지, 멜론), 과일류 4개 작목(사과, 배, 감귤, 단감), 화훼류 5개 작목(과수, 장미, 난, 국화, 백합, 선인장), 축산 및 특작 4개 작목(돼지, 닭, 인삼, 버섯)이다.

<표 4-11>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실적(2006)

사업 개요	실 적
수출용 신품종 개발	-5작목 82품종: 채소1(토마토1),과수8(사과3,배2,포도1,감귤2),화 훼66(장미17,백합10,난8,국화15,선인장16),버섯7(느타리6,팽이1)
수출작목 전담연구팀 운영	-현장밀착 기술지원: 총 2,564회(정기96,수시 2,437회) -현장연구 15과제, 해외정보수집 5개팀
로얄티 지불 최소화를 위한 장미,딸기사업단 운영	-장미: 국산 품종 보급률 향상: '05(1)→('06)2.2%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분홍색의 매직핑크 등 17개 품종 육성 -딸기:국산 품종 보급률 향상: '05(9)→('06)17.8%
농산물 안전성 강화기술 개발	-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지침서 발간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제도 교육 45회 진행 -GAP 확립을 위한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서 보완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170개소) -가축방역 교육: 11회 627명, 방역현장 기술지원: 2회 24개시군
우리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전문기술 지원	-수출상담실 설치 운영: 170개소, 담당지도사 193명 -수출상담실 전문기술 집합교육 추진: 258회 52,943명

자료: 농림부, 2007년 농식품 수출 대책, 2007.2.

## 다. 지방자치단체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별로 특성 있는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주요 수출전략품목과 지원사업내용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지자체별 수출지원사업(2007)

구분	주요 수출전략품목	수출지원사업
경기도	파프리카,배,포도,선인장,절화류 등	-수출시장별 특성을 살린 해외마케팅 강화 -755백만원 도시군비로 다국적 유통기업 등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755백만원 도시군비로 해외 식문화에 맞는 고품질 과실 육성
강원도	파프리카,여름딸기,백합,엔다이브,라스베리 등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6개사업, 89억원 -유통인프라 및 경영개선 지원:6개사업,35억원 -수출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우수농식품 생산:4개사업,16억원 -해외마케팅 추진 및 유망품목 발굴:5개사업,4억원
충청북도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05 30개소→'06 32개소, 1,900백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79백만원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150백만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50업체 29백만원 -농식품 해외인증 지원: 20백만원
충청남도	과실류,엽·과채류,화훼류,버섯류 등 신선농산물과 김치,젓갈,백삼 등 가공식품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60백만원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 100백만원 -수출용포장재 지원:1,400백만원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250백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지원: 74백만원 -농수산물 상품설명회 개최: 60백만원 -aT해외지사를 통한 업무대행비 지원: 40백만원 -교포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50백만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224백만원 -수출농수산물 해외홍보물 제작: 60백만원 -수출담 시상 및 시군 인센티브 제공: 220백만원
전라북도	파프리카,배,절화류, 토마토,등 신선농산물 및 인삼,김치,주류,과자류,절임 반찬류 등 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으로 신규바이어 발굴 및 시장 다변화: 200백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참가업체당 1,500천원 -수출물류비 지원: 1,644백만원 -수출 유망품목 생산기반 조성: 520백만원 -관상어 수출전략단지 조성: 250백만원
전라남도	파프리카,방울토마토,배,단감,난,장미,국화,가금육,밤,버섯류,유자음료,복분자(소주) 등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2863백만원 -해외 마케팅 활동강화:1,540백만원 -효율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 3,808백만원
경상북도	사과,배,포도,딸기,파프리카,화훼 등	-고품질 안전 수출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49억원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주력시장 집중공략: 240백만원 -수출농가 행정지원 강화: 1,277.5백만원
경상남도		-생산시설 현대화 개보수:100개 수출농단 시설 현대화 36억원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 및 지원 체제 구축: 26억원 -수출 농산물 안전성 대책 강구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 활성화:165백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축산물, 감귤 등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1,060백만원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지원:1,000백만원 -수출유망품목 국내외 관측활동 강화: 115백원 -수출보험료 확대지원:40백만원 -수출기반시설 확충 지원:6,200백만원

자료: 농림부, 2007년 농식품 수출 대책, 2007.2.

## 라.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역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무이자 수출자금지원,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수출거점 농협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2007년 농협중앙회의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거점 농협수를 현재 79개소에서 2007년 말까지 90개소로 확대
  - 해외사무소별 중점 수출품목의 개발 (일본의 경우 목우촌 삼계탕과 장계농협 약과)
  - 무이자 수출자금을 현행 1150억원 수준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
  - 기존의 동경(3월), 킨톤(10월) 박람회 외에 신규로 시드니(9월), 모스크바(9월)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
  -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주에 ■농협건강식품 전문점■개설
  - 중국 남경 및 직할시 5곳에 ■농협가공제품 전물판매코너■ 개설

### 3. 대일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의 도입 등 일본 소비자의 안전(安全)·안심(安心)을 향한 추세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생산농가 및 소규모 수출업체의 이같은 현상에 대한 몰이해, 허술한 검역수준으로 인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 “중국산보다는 낮지만 일본산의 60~70% 가격수준이면 적당하다”는 것이 현 상황이라 하겠다.
- 여기에 국내가격이 상승할 경우 내수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까닭에 수출계약물량 및 등급 등을 맞추지 못함으로써 상거래상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선도 유지의 미흡, 일본인이 선호하는 규격 및 포장의 미흡 등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 소규모 수출업체의 난립 및 이로 인한 과당 경쟁은 거래교섭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격 등 거래조건의 불리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일부 수출업체는 계약된 품질 및 수량을 의도적이던 아니던 간에 맞추지 못해 신용도를 더욱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특정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대국 소비자의 현재의 선호도는 물론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 이에 걸맞는 생산(품종 및 재배기술 등의 선택 및 변화)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거래선의 선택, 상대국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특정 수출주체가 책임을 지고 수출 상대국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 이에 적절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대소비자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수출업체가 이같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물적 여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물론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다양한 지원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특정품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사업이나 활동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체계는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년 상황이며, 이같은 상태에서 대일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하겠다.

- 우리나라 수출유망품목의 대부분은 종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하는 시설채소, 화훼 등에 있어 수출생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향후 품종보호수준이 강화될수록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품종개발 및 육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품종개발 육종주체도 목표와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지 못한 까닭에 얼마 되지 않는 재원마저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라나 민족은 각기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농식품 수출의 첩경은 식문화를 알리면서 이에 동반되는 농식품을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식문화는 일본의 식문화에 비해 원료 및 종류의 다양성은 물론 수준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같은 차이점을 일본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내에는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접한 일부 일본인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재일 한인집단이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의 식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이같은 그룹을 활용하여 우리 식문화와 농식품 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전략이 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 제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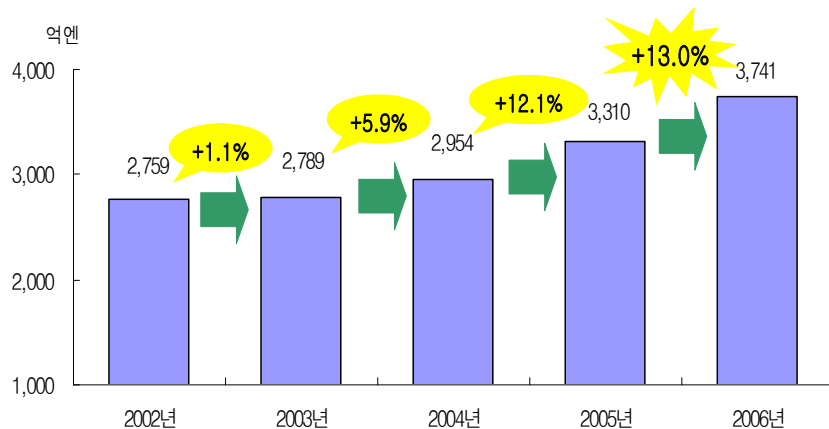
## 선진국의 농산물 수출전략

### 1. 일본의 농식품 수출전략

#### 1.1. 현황

-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국(長壽國)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식문화와 日本食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日本食과 식재(食材), 농산물 등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소득 계층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고품질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이 같은 변화 추이에 조응하여 일본은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수준이 가장 높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농식품 수출액의 신장율은 연간 1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5-1> 일본 농식품 수출동향



주: 알코올 음료, 담배, 진주는 제외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 통계

- 최근 일본 농림수산물 무역동향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수출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13.0% 상승한 3,741억엔이다.
- 부류별 농식품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공식품(특히 장류), 어패류, 청과류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청과물 수출은 급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1>

<표 5-1> 부류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2001~2005)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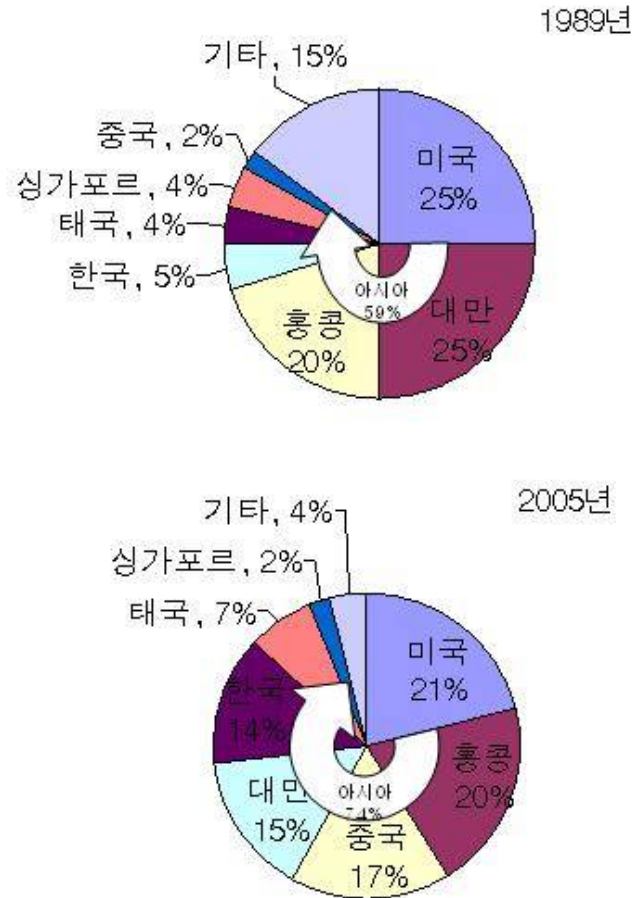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2,986,377	2,124,546	2,282,596	2,592,776	2,872,508
육류	8,054	3,954	5,745	6,222	7,015
어패류	527,014	532,824	636,485	744,779	856,439
채소·과일류	36,257	61,852	75,916	66,787	94,299
곡물·가공곡물	1,024,879	94,770	90,938	96,768	87,212
커피·차·향신료	17,847	21,408	23,329	28,034	32,227
가공식품류	1,263,098	1,291,765	1,351,948	1,548,695	1,700,290
기타 동식물 제품	109,228	117,973	98,235	101,491	95,026

주: 화훼류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JETRO, 무역·투자·국제수지통계 2006

- 수출선별로는 1989년과 2005년도를 비교할 때 아시아지역의 비중이 59%에서 74%로 증가하였다<그림 5-2>. 특히 중국 및 한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때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수출선 상위 10개국의 변화(1989/2005)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고, 홍콩, 대만 순을 보이고 있다<표 5-2>. 중국으로의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는 어패류(62.1%)이며 다음으로 가공식품(32%)인 반면 홍콩 및 대만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가공식품류 비중이 70% 를 상회, 어패류는 각각 11%와 7%로 나타나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5-3>

<표 5-2> 주요국별 농식품 수출액 추이(2003~2005)

단위: 백만달러, %

국가·지역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액	비율	수출액	비율	수출액	비율
전세계 합계	2,283	-	2,593	-	2,873	-
홍콩	398	17.5	455	17.5	511	17.8
대만	393	17.2	413	15.9	504	17.5
미국	418	18.3	444	17.1	503	17.5
중국	193	8.4	294	11.3	352	12.3
한국	270	11.8	325	12.5	303	10.5
태국	122	5.3	101	3.9	149	5.2
싱가포르	76	3.3	68	2.6	73	2.5
괌	30	1.3	38	1.5	40	1.4
호주	39	1.7	34	1.3	36	1.2
캐나다	29	1.3	32	1.2	32	1.1

자료: JETRO, 무역·투자·국제수지통계 2006

<표 5-3> 주요국별·품목별 수출비중(2005)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중국	한국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합계(백만달러)	352	303	149	511	504	73
육류	0.0	0.0	-	1.0	-	-
어패류	62.1	51.3	72.2	11.4	6.5	13.8
채소·과일류	1.2	0.2	1.1	1.8	13.1	1.2
곡물·가공곡물	1.3	0.0	3.7	8.8	0.9	11.4
커피·차·향신료	1.0	0.6	0.4	0.5	0.5	2.9
가공식품류	32.0	41.0	18.8	74.8	77.0	67.7
기타 동식물 제품	2.2	6.8	3.7	1.7	1.9	3.0

자료: JETRO, 무역·투자·국제수지통계 2006

## 1.2. 정부의 추진체계

- 공격적인 농정추진이라는 기치아래 2005년 3월 농식품수출액은 5년간 2배로 증가시켜 2009년까지 6,000억엔 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식료·농업·농촌정책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동시에 2005년 4월 농림수산물관련단체, 경제계, 유통, 관광, 식문화, 지자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본 협의회에서는 수출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동년 11월에는 수출촉진 로고마크와 해외배포를 위한 팜플렛

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전세계 10여곳에서 전시·상담회의 개최 및 상설점포를 개설하였다.

- 수출촉진을 위한 통일된 로고는 고품질, 안전, 안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태국어 등 모두 17개국 언어로 제작되었다<그림 5-3>. 로고의 おいしい(오이시이)라는 말은 식품의 맛을 극찬하는 일본어로서 ‘日本’, ‘和’의 이미지를 디자인한 것이며, 「Japanese food quality」 글자를 포함한 주홍색의 4각형은 고품질의 일본, 농·림·수·가공식품(총 4종)이 세계를 향해 수출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농식품에 대한 해외홍보를 위해 팜플렛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림 5-4>. 예를 들어 영어 팜플렛의 경우 모두 15쪽으로 구성되었는데 건강, 전통, 아름다움, 계절성을 강조하여 일본의 대표적 농식품이라 할 수 있는 스시, 덴푸라, 쌀, 간장, 미소, 4계절 과일, 어패류, 녹차, 청주 및 소주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요리방법까지 담고 있다.

<그림 5-3> 일본 농식품의 수출촉진 로고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그림 5-4> 일본 농식품의 해외 홍보자료(영어)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 또한 2006년 4월 발표된 「21세기 신농정2006」의 내용 중 “동아시아 식품산업공동체 구상”에 따라 2006년 7월 「동아시아 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연락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본 협의회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 농식품의 확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산업계]

-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재)식품산업센터
- (사)일본푸드서비스협회
- (사)대일본수산회
- 전국은행협회
- 식품산업중아협의회
- 일본체인스토아협회
- (재)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 일본상공회의소
- (사)일본무역회

[관련 성청(省廳)· 관련단체]

- 일본농림수산성 · 외무성 · 경제산업성
- 내각관방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국제협력은행(JBIC)
- (독)국제협력기구(JICA)
- (독)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일본아시안센터
- (재)해외무역개발협회(JODC)
- (재)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 국토교통성
- 후생노동성
- 농림어업금융공고
- (독)일본무역보험(NEXI)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학술계]

- (독)농업 · 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 (독)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JIRCAS)

- (사)농림수산첨단기술산업진흥센터(STAFF)
  - (주)농림중금(中金)종합연구소
  - (사)일본식품과학공학회
- 본 위원회는 동아시아지역에 있는 일본의 농식품 관련 현지법인의 활동규모를 5년내 30~50% 신장시키고, 매출액은 현재 84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까지 110~125억 달러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2006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였다.
-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농림수산성의 2006년도 예산은 12.5억엔 수준이며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5-4>

<표 5-4>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출촉진 지원 방향(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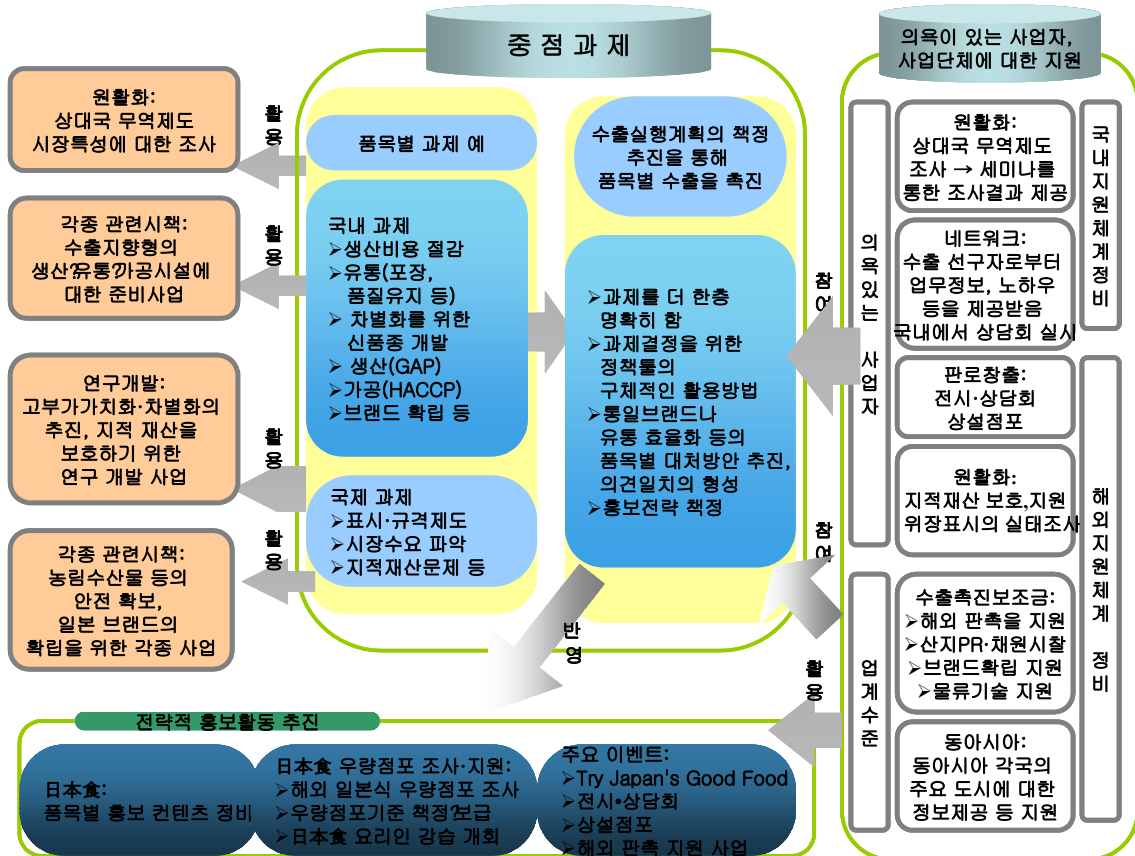
분야	주요내용
관료창출·확대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의 주입제도 및 유통·소비실태의 정보수집·분석·제공</li> <li>· 전시회·박람회 등 관료창출의 기회제공</li> <li>· 현지 고급백화점 등에서 연중 판매활동 및 요리 강습회 등을 통한 홍보</li> <li>· 수출확대 예상품목에 대한 팜플렛마련 등 중점적 지원</li> </ul>
수출저해요인의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저해요인의 데이터베이스화</li> <li>· 상대국가에 대한 개선 요청</li> <li>· 상대국가 요구시 즉각적인 검역조건 등의 정비</li> <li>· FTA를 통해 고관세 등 장애 제거</li> </ul>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침해대책 매뉴얼의 충실화</li> <li>· DNA분석에 있어 식별기술의 개발지원</li> <li>· 아시아국가에 대한 신제품종육성 권리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li> </ul>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06

- 2007년도 일본의 민관합동에 의한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체계도는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2007년 수출촉진추진 체계도



자료: 일본농림수산물성

### 1.3. 일본의 농식품 수출사례

가. 쌀

시마네현 JA西いわみ: 「健康元氣米」

- 2003년부터 대만에 쌀 수출 시작
- 대만시장의 최고급미(1kg에 300~400엔)와의 가격격차가 1.5배 정도  
(1kg에 7000엔; 일본 국내판매가격은 500엔; 일본 국내 최고가격은 850엔)
- 2kg 포장 500포대(약 1톤)를 3일만에 판매 완료
- 판매대상(구매자)은 대만의 부유층과 재(在)대만 일본인이며 주로 선물용으로 구입
- 지역의 맑은 물, 주야간 온도격차를 활용하여 안전한 쌀을 생산함으로써  
상품차별화
- 고급백화점과 定期定量 판매를 계속하고 있고, 高雄에 있는 일본 백화점과  
새로운 계약체결

나. 참마(長いも)

홋카이도 JA帶廣연합(7개 농협 연대): 「十勝川西長いも」

- 1960년대 후반 심경(深耕)이 가능해지면서 생산이 본격 궤도에 오름
- 1980년대에는 국내 주산지인 아오모리를 추격하여 연중판매를 개시  
(11월에 수확, 다음해 10월까지 출하)
- 10여년전 대만에 藥膳붐이 불면서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다”는 공식기관의 발표에 따라 참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대만에도 참마가 있으나 수분이 적고 찰진 맛이 없어 고베중앙청과(神戸中央青果)가 「十勝川西長いも」의 안정적인 공급력을 인정하여 홋카이도산을 대만에 수출 (1999년 680톤, 2005년 1,000톤, 2006년 1,200톤)
- 현재 일본에서 대만에 수출되는 참마는 연간 3,000톤으로 十勝川西長いもの 최대 라이벌은 JA帶廣大正의 「大正長いも」임(大正長いも는 대만의 臺中・臺南 중심임. 十勝川西長いも는 臺北 중심이고 최근에는 臺中・臺南으로 확대하면서 그 지역산과의 경쟁이 치열)
- 일본에서는 800~1,000g의 「2L」 사이즈가 선호되는데 반해, 대만에서는 1,200g 이상의 「4L」 사이즈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현지 소매가격은 일본의 2배 수준
- 帶廣→小■→舞鶴→敦賀→神戸→釜山을 경유 10일 만에 대만에 도착하고 관세는 13%
- 최근에는 값싼 중국산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선을 다원화하고 있음

다. 감(和歌山현)

### 와카야마현 도근조생(刀根早生)

- 와카야마현의 북부인 紀川 유역을 중심으로 주산단지를 이루고 있음.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감귤 생산지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감귤가격 하락으로 대체작목으로서 감 재배면적이 확대(주로 도근조생을 식재)
- 1985년 감 재배면적은 2,000ha에 이르렀고, 1997년에는 생산과잉(현내 생산량 6만톤)현상으로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1998년 이후 자연재해 등으로 6만톤 정도의 생산수준을 유지
- 노지의 경우 최근 중곡조생(中谷早生) 등 도근조생보다 조기 출하되는 품종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은 도근조생은 9월 상·중순 수확하여 10월 상순에 출하하는데 타 지역 출하도 많아 과잉현상으로 가격하락현상을 보이게 되므로 수출을 추진
- 2000년 현의 보조사업으로 대만·홍콩으로의 시험수출을 시작하였고 2003년 「전국과실수출진흥대책협의회」의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수출(2005년 현재 총 52톤(홍콩 50톤, 대만 2톤))
- 홍콩시장에서 대과는 값이 비싸도 구매층이 있으며, 중과도 가격이 싸 구매층이 많은 등 감에 대한 수요는 다양함. 판매시 현지언어로 된 팜플렛을 사용하고 시식판매도 하고 있으며 판매단위는 날개, box, 봉지 판매 등으로 다양
- 대만의 경우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수출량도 적지만 작년 중과를 일본식(日本食) 이벤트에서 판매하여 ‘맛있다’ ‘품질이 좋다’ ‘안심할 수 있다’ 등 호평을 획득
- 출하에서 현지에 판매되기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품질저하(軟化)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품질관리대책 마련하고 현지 판매자 및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
- 현지 바이어를 일본 산지로 초청 및 감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등을 통해 부유(富有) 품종과의 차별성을 부각

### 라. 딸기(いちご)

후쿠오카(福岡)브랜드: 「あまおう」(あかい/まるい/おおきい/うまい)

- 「일본 최고의 딸기산지」 탈환을 내걸고, 2002년에 생산을 시작하여 2003년에 현내 재배면적의 50%, 2005년에는 70%(계통공동판매면적은 100%)인 390ha까지 브랜드화하여 내수는 물론 수출을 추진
- 내수용과 수출용 구분 없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출하시 맛의 저하 및 출하굴곡 발생을 막기 위해 조기작형의 억제 등 생산자의 이해를 유도하였고, 항공수송 이착륙시의 충격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예방키 위해 국내에서의 2단 포장을 1단 포장으로 통일
- 브랜드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에 후쿠오카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후쿠오카 브랜드 마크(あまおう)를 제정하고 등근 福마크의 국제상표 출원을 신청(2004년 10월 홍콩을 시작으로, 2005년 2월 대만, 2005년 5월 한국에 대해 국제상표를 취득(중국은 별도 신청중))
- 신선도 등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수출비용은 크지만 항공편으로 수출하고 있음. 국제 판매가격은 국내가격의 2배(수송비용 및 관세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비슷)이고 고급백화점 및 양판점에서 평가가 좋아 수출량은 2003년 1.4톤에서 2005년 40톤으로 급증
- 홍콩 및 대만에는 미국산 및 한국산 딸기가 많이 수입 판매되고 있지만 고품질을 내세운 후쿠오카 「あまおう」에는 적수가 되지 못함
- 수출물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최대의 과제는 「일본 제일의 딸기산지」 탈환임.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농가 및 산지에서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효과가 있음

### (1) 쇠고기

- 구제역(2000년 3월), 광우병(BSE, 2001년 9월)발생에 따라 일본산 쇠고기 수출이 정지(2000년 3월 이전 일본산 쇠고기 수출량 최대치는 1999년 304톤(이중 미국으로 수출량은 14톤))
- 미국 및 캐나다에서 일본산 쇠고기 수입해제 이후(2005년 12월)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 대미 수출량은 14.5톤(全農: 군마현 및 가고시마현의 和牛肉을 2006년 7월말까지 미국으로 5톤 수출, 이또(伊藤)햄: 2006년 5월부터 대미 수출 시작, 7월까지 1.4톤 수출)
- 미국 이외 국가로 6개현이 홍콩, 싱가포르 등 수출 재개를 시작하였고, 3개현은 캐나다 등으로 수출을 검토 중임.

### (2) 돈육(내장 포함) 및 계육

- 홍콩 등으로 돈육(내장 포함) 및 계육을 8개현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의 일본 요리점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3개현은 한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을 검토

일본산 축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 및 품목 (2006. 7)

구분	수출가능 품목 <sup>1)</sup>	협의중인 품목 <sup>2)</sup>
미국	우육	가금육
캐나다	우육	
홍콩	가금육, 돈육, 돈피, 우피	우육
대만	돈피, 우피	우육, 가금육
한국	돈피, 우피	우육
태국	돈피, 우피	우육, 가금육
중국	우피	우육, 가금육, 돈피
싱가포르	가금육	
필리핀	가금육, 돈피	
인도네시아	가금육	
말레이시아	돈육	
호주		우육
유럽연합		우육, 가금육, 콜라겐 등

주1: 수출이 해금된 품목

2: 수출해금을 협의중인 품목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 (3) 食肉수출촉진을 위한 농림수산성의 노력

- 국제부와 소비·안전국에서 일본산 쇠고기 수입 정지국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홍콩, 대만, 태국, EU 등)
- 국제부의 무역과세과 수출촉진실에서 해외시장 파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마. 食肉

바. 醬油(간장)

- 장유는 된장, 일본술과 함께 일본의 독특한 양조(釀造)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두 및 밀 등의 곡물과 소금을 원료로 국균(麴菌)을 넣어 효모 및 유산균을 발생시킨 것을 말함. 제조방식은 본양조(本釀造)방식, 혼합양조(混合釀造)방식(아미노산액을 더해 숙성한 것), 혼합방식(간장에 아미노산을 혼합한 것) 등 3가지가 있음.
- 고이구치(濃口:진한 간장), 우수구치(薄口:묽은 간장), 타마리(溜り: 발효후 소금과 물을 넣어 숙성시킨 진간장), 사이시코미, 시로 등 5가지 종류
- 특급(特級), 상급(上級), 표준(標準) 등 3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간장 총생산량 93만kl중 약 70%가 등급표시 제품
- 총 인구의 감소, 요리별 국물 및 멸치국물 등의 증가 등으로 간장의 일본내 소비량은 1970년대 초반을 고비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장유업계는 전통식품에서 차지하는 간장의 가치(문화, 식생활상의 효용 등)를 차세대에 계승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食育에 동참
- 반면 해외시장에 있어서는 일본내 기업에 의한 수출량은 물론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의한 간장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1973년 미국에 일본기업이 진출하여 간장을 생산 시작한 이래 해외진출기업에 의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06년 현재 일본에서 수출되는 물량은 연간 2만kl 수준임에 반해 해외진출기업에 의한 현지 생산량은 18만kl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진출국은 미국, 싱가포르, 대만, 네덜란드, 영국, 중국 등임.

일본 간장의 주요국별 수출량 추이(1989~2005)

(단위: kl, 개국)

구분	미국	중국	홍콩	한국	호주	태국	기타	계	대상국가 수
1989	4,657	19	146	179	225	159	3,034	8,419	53
1993	7,187	160	480	172	299	580	3,229	12,107	60
1998	3,032	1,544	1,260	121	596	988	3,443	10,984	56
2003	2,392	2,769	1,551	820	576	557	4,128	12,793	57
2004	2,650	3,005	1,627	776	731	604	4,323	13,716	55
2005	3,409	2,959	4,031	729	790	783	5,067	17,768	58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 통계

### 기포망의 사례

- 1957년에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슈퍼마켓에 판매를 시작하여 15년만에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3위가 되고 10년후에 1위(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55%(2위 회사의 점유율은 25% 수준에 불과))로 상승
- 1973년 위스컨신주에 제조공장을 설립(현재 규모는 당시의 14배 수준)



## 2. 선진국의 대일 수출전략

### 2.1. 프랑스 - 농식품진흥공사(SOPEXA)

-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SOPEXA)는 프랑스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프랑스 식문화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1961년 프랑스 농무부와 생산자단체가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였다. 1970년대에 유럽, 미국, 일본 등 20개 해외지사를 설치하였고, 80년대 말에는 2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33개국에 38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 연간 총예산 중 정부지원은 1/4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식품분야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관련 상담, 국제적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및 컨설팅, 해외시장개척 및 소매마케팅 전략수립 및 다양한 식품유통망과의 연계사업 연결, 프랑스 식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해외전시회, 판매촉진 활동, 농식품 수출기업의 위기관리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등이 있다.
-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의 일본사무소는 프랑스산 주류(와인, 스피릿 등), 육류(주로 돈육), 유제품(주로 치즈), 조미료 등의 판촉을 위해 1985년 동경에 설립하였다. 12명으로 구성된 일본사무소는 프랑스의 각 지역별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와인시음회, 요리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각 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 물론 본사로부터의 지원금도 있어 연간 15~20억엔 수준의 판매촉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 농식품은 주로 와인(알코올음료), 내츄럴치즈, 돈육 등이다. 알코올성 음료가 2003년 기준으로 800~900억엔으로 일본의 와인수입 국가별 실적에서 45.4%인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치즈로 60억엔을 초과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SOPEXA 일본사무소의 판촉활동은 와인과 치즈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 프랑스 식품(와인, 치즈 등)의 일본내 유통에 있어 SOPEX의 일본사무소가 직

접 관여하지 않고 관련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와인은 일본 주류회사, 수입상사, 대형유통업체가 치즈는 수입상사와 대형유통업체가 수입 판매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와인의 경우 일본의 대형 음료업체 및 상사(산토리, 기린맥주, 아사히 맥주 등)등이 취급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 SOPEXA 일본사무소의 활동 중 특기할만한 점은 프랑스 식문화 전파를 담당 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 “Image France” 사업이다. 프랑스산 제품을 이용하는 7개 요리 경연대회, 10개의 소믈리에 경연대회, 4개의 제빵대회 등을 2~3년 마다 개최하면서, 우수한 일본요리 전문가들에게 프랑스의 최고의 명예로 알려진 Joel Robuchon, Jacques Puitsais 등을 인정받게 함으로써 프랑스 식문화 영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동시에 프랑스 와인 판매달인을 매년 50명씩 선발하여 “콘세이예(conseiller)” 인정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프랑스 여행 초대, SOPEXA 홈페이지에 해당점포 소개, 주류 전문지에 소개 등)를 부여하기도 한다.
- 특히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대한 판촉활동, “Image France”등의 이벤트를 통한 프랑스 식문화의 홍보, 프랑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동향 파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DB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및 판촉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외식 및 소매업체에 대한 DB를 활용, 일본내 2만개 와인 판매점 및 2,500여개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식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고, 일본내 중국 레스토랑협회 및 일본와인웨이더협회와 연계한 세미나 및 와인시음회를 통해 이들이 프랑스산 와인을 보다 많이 취급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2. 뉴질랜드 - 제스프리(Zespri)

- 1988년에 The New Zealand Kiwifruit Marketing Board로 설립되었고 1992년에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는 Zespri International 산하에 일본사무소((유)제스프리 인터네셔널 재팬)가 동경(치요다구)에 개설되었다. 일본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제스프리·그린, 제스프리·골드, 제스프리·그린·올가닉, 제스프리·그린·점보 등 4가지 키워상품이다.
- 일본사무소에는 13명 인원이 종사하고 있고, 키워제품의 수출입 및 품질관리,

영업 등을 담당한다. 또한 유통업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Zespri Caravan), Zespri 홍보센터를 통한 광고 선전 등을 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일본 키위수입물량 전체의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산 키위는 동절기에만 수출이 가능하므로, 연중 공급을 위해 북반구 국가(일본, 한국 등)에서 계약재배하여 공급하고 있다.

<표 5-5> 제스프리 키위의 일본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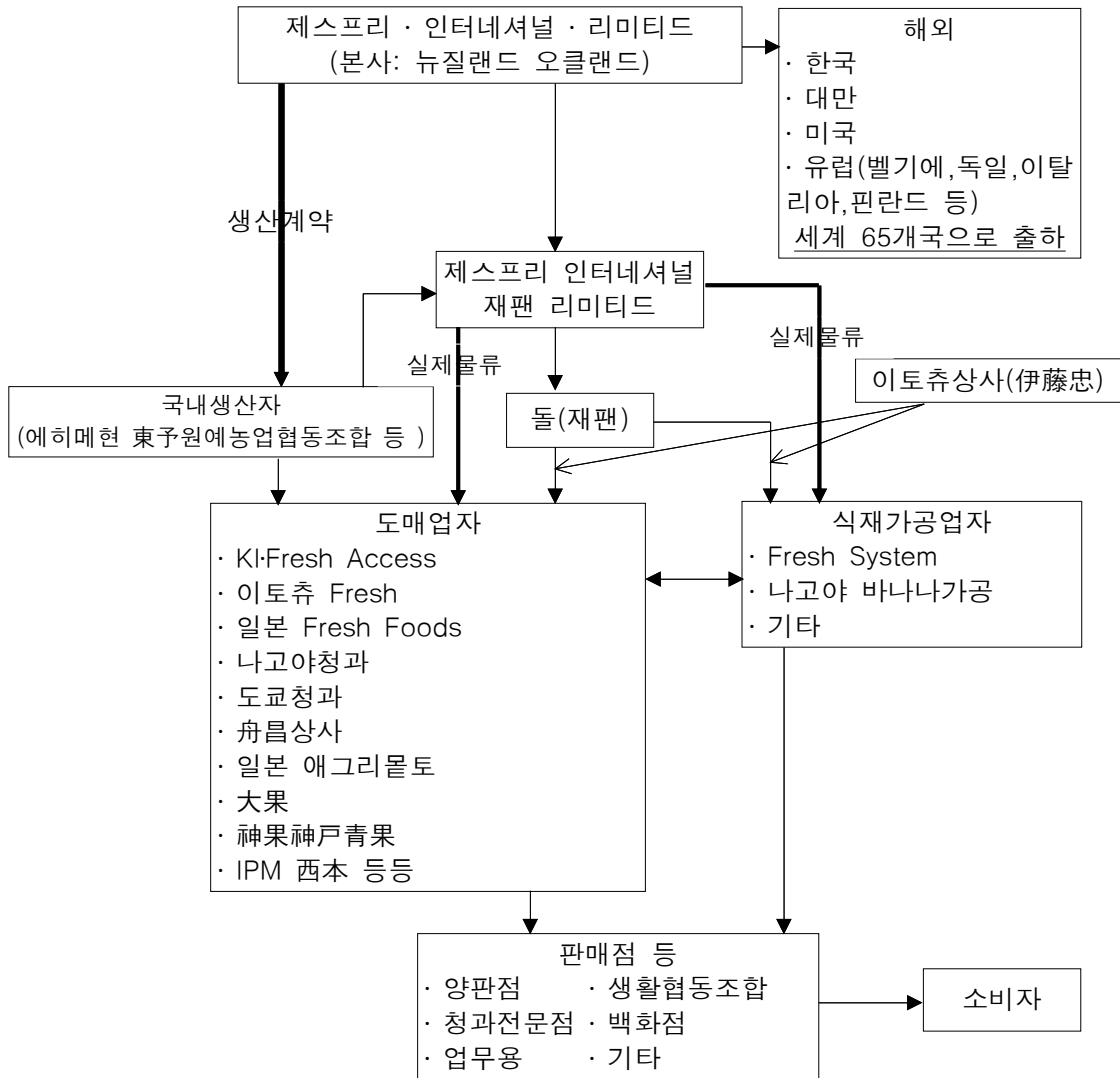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2000	2001	2002
연간 총 소비량(A)	78,331	73,864	80,911
제스프리 수입량(B)	36,624	34,971	43,295
계약재배량(C)	3,223	3,595	5,660
B/A	46.8	47.3	53.5
B+C/A	50.9	52.2	60.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선진국의 일본시장 농식품 마케팅 전략, 2005.1.

- 단맛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기호에 맞춰 뉴질랜드연구소와 재배농가가 공동으로 20년에 걸쳐 개발한 골드키위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골드키위는 당도가 높아 장기보관이 어려운 관계로 6~9월 기간에 일본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 일본시장에 대한 판매는 세계적인 농산물 유통기업인 돌 재팬(Dole Japan)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형태가 주종이며, 일본 현지에서 계약 재배한 물량은 바로 도매업자를 통해 판매된다. <그림 5-6>

<그림 5-6> 제스프리의 일본시장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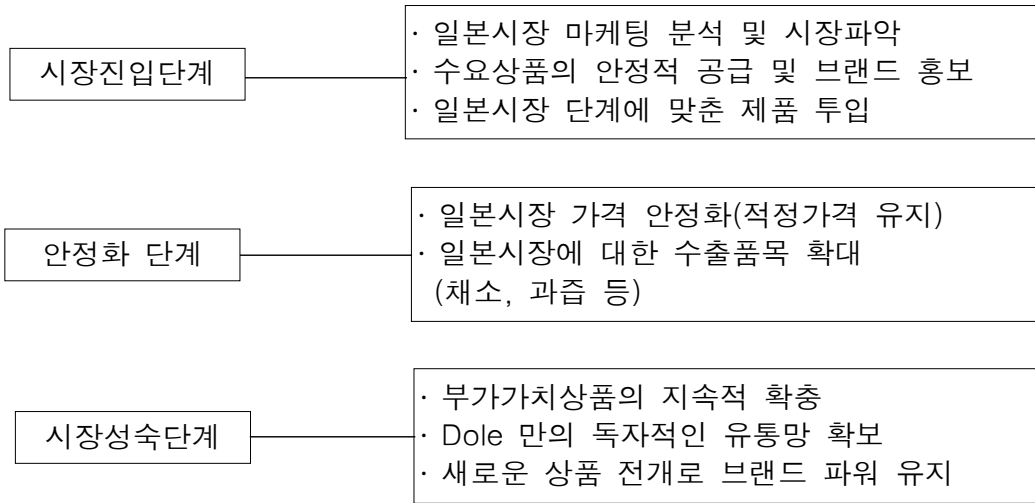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업 선진국의 일본시장 농식품 마케팅 전략, 2005.1.

- 돌 재팬은 직접 도매업자와 거래하기 보다는 이토츠키(伊藤忠)상사를 통해 400여개 이르는 도매업자와 거래하는 형태를 취한다. 일본 현지에서의 계약재배는 주로 시코쿠 지역의 에히메(愛媛)현 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에히메) 등 34개 생산자조직과 연계하여 골드키위를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하절기 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 제스프리의 일본내에서의 홍보전략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현지 전문기업 및 대학 등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대형유통업체 매장에서 연간 500여회 실시하는 이벤트행사(Zespri Caravan)는 이벤트 전문업체인 創工社에서 일괄 수행하며, 사이버상의 홍보는 L11社가 담당하고 있고, TV 광고는 덴츠社가 전담하며, 식품과학홍보센터의 운영을 통해 일본내 각 대학의 식품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키위의 영양학적 우수성 등을 홍보한다.
- 제스프리는 키위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HACCP(위해요소관리)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현지 처리시설에서는 ISO9001과 정부의 품질인증을 통해 생산농가들은 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아야만 제스프리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장출하후에는 CA저장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수출대기를 (1~5개월간) 하게 되며, 수출직전 재검사를 통해 수출적합 여부를 최종 점검한다.

### 2.3. 미국 - 돌(Dole)

- 돌(Dole Food Company)은 1981년 하와이에서 설립되어 2005년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6만 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200개가 넘는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신선 과일과 야채, 절화류를 재배 공급하는 세계적 유통전문기업이다.
- 식품의 안전과 엄격한 품질관리,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최신의 생산기법, 지속적인 조사와 혁신을 통한 품질향상, 과학적인 작물보호 프로그램 등 품질안전성확립과 환경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최우선전략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의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맞추어 1982년에 (주)돌의 일본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일본법인은 본사 이외에도 6개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160명의 직원으로 해외 및 일본산 과일·야채 등의 매입과 판매, 신선시스템 유지, 계열사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표 5-6> 돌 재팬의 일본시장에 대한 단계별 수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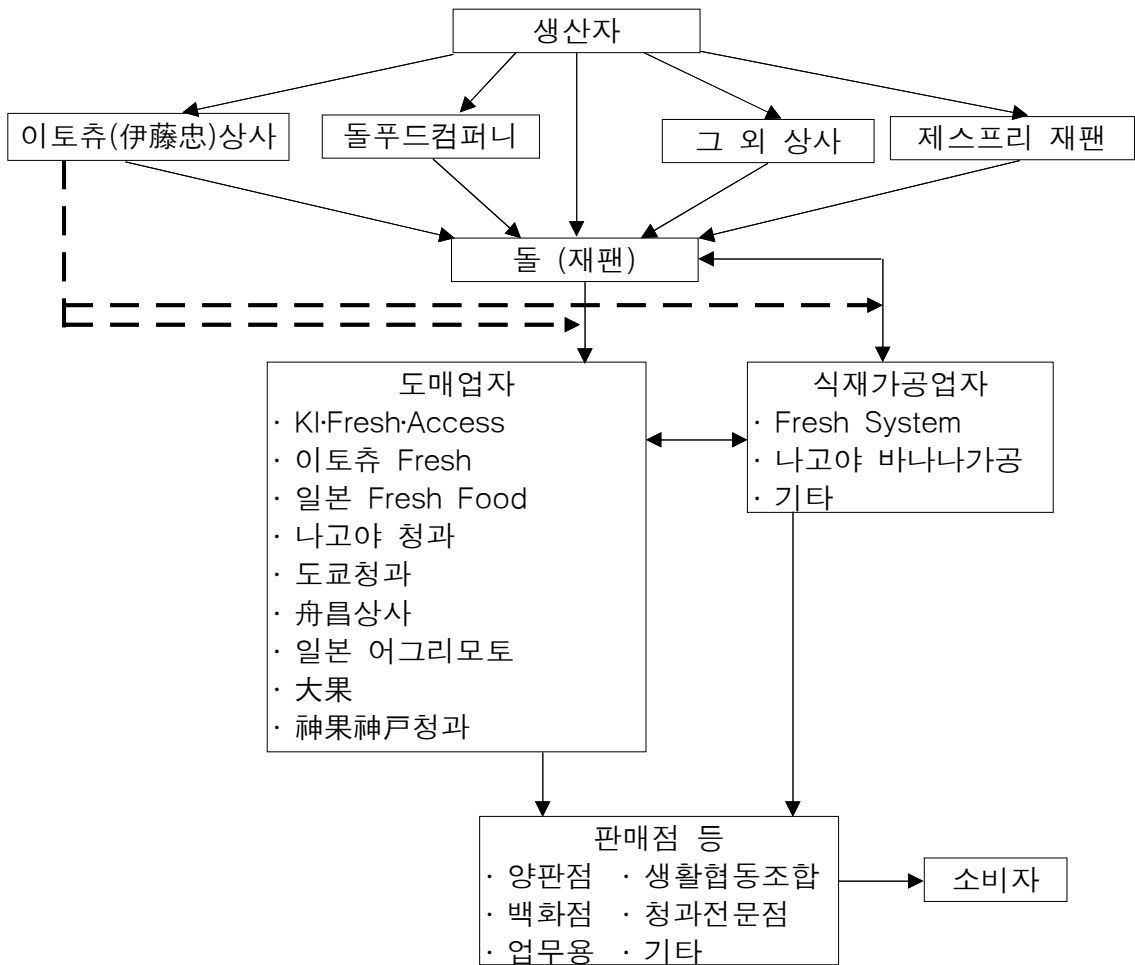


-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상품은 미국과 중남미, 아시아 각국에서 생산되는 과실류와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상추,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로마양상추, 아티초크 등의 신선야채를 비롯하여 과일·야채통조림, 후르츠 푸딩, 과일잼 등의 가공식품이다.
- 돌 재팬은 일년내내 「안정공급」과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양관점에 인식되어 농식품 판매를 급속히 신장시켰다. 또한 최근에는 수입채소의 생산·판매뿐만 아니라 외자계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국내 10도현, 1,200호의 농가와 계약하여 종래의 도매시장을 통한 루트와 함께 산지직거래 루트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고령화, 여성의 취업확대, 핵가족화 등에 따른 외식산업 및 전처리채소의 소비 확대 등 새로운 상품수요의 증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파인애플을 시작으로 과일, 야채 등 독자적인 커트기술을 살린 여러 가지

상품개발할 뿐만 아니라 커트한 직후 진공포장 함으로써 신선도와 풍미를 유지시키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100g 단위의 소포장을 하고 있다.

- 엄선된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선시스템 체계를 확립하여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5-7> Dole상품의 일본시장 유통구조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선진국의 일본시장 농식품 마케팅 전략, 2005.1.

- 일본의 이토츄(伊藤忠)상사를 파트너로 하여 해외생산농산물 수입사업 외에 일본내 양관점을 대상으로 한 중간유통 및 대금정산 업무도 겸하고 있고, 일본내 거래처는 약 400개사 정도가 된다. 또한 유통에 있어 기존의 일본내 도매업자들의 활용과 함께 이토츄상사, 住友상사 등과 합병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였다.

## 2.4. 독일- 농산물진흥회(CMA)

- 독일농산물진흥회(CMA: Centrale Marketing-Gesellschaft der deutschen Agrarwirtschaft)는 세계 각국에 독일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다양한 농식품을 보급시키고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9년에 설립된 공적인 조직이다. 독일 국내는 물론 EU 주요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에 판매촉진 활동의 거점을 두고 각국의 수입업자와 독일의 제조업자, 공급자의 중개역할을 하고, 독일농산물·음식료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판매캠페인, 전시상담회 개최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 국가에 독일산 농식품의 보급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에 일본사무소를 설립하여 일본에서의 독일산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시장개척, 판매촉진 등 일본시장 개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사무소에는 대표자와 일본인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독일산 농식품은 CMA의 일본사무소 설립 이전부터 개별기업이 수출하고 있었지만 일본사무소가 개설되면서부터 다양한 상품들로 확대되었다.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농식품은 맥주와 와인, 치즈,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이 있는데 이중 수출전략상품은 와인과 치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독일산 와인 수입량은 1999년에 162만 상자로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3위로 절정이었지만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독일산 와인의 수입량이 감소되는 원인은 1998년 이래 적포도주 붐이 일어난데 반해 일본 소비자에게 「독일산 와인은 단 백포도주」라고 강하게 인식되어있기 때문이다. 2002년 독일산 치즈 수입량은 12.2천톤으로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5.3%의 시장점유율보다 다소 증가된 것이다.
- 일본시장에서 각 농식품의 유통은 수출업체와 가공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CMA의 일본사무소는 독일의 수출상품 제조업체에 일본의 수입업체를 소개하는 등 독일의 농식품 수출업체와 일본의 수입바이어가 접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 CMA가 주축이 되어 일본 시장에 대한 독일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시판매회나 페어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농식품의 판매촉진은 품질과 가격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품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독일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독일페어를 열었으며, 특히 동경과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많이 개최하였다. 해외의 바이어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4개 국어로 바이어대상 구매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유통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독일산 농식품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농식품 소개자료, 유기농식품 안내, 전략상품의 요리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일본어판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 2.5. 덴마크 - 농업이사회(DAC)

- 덴마크산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단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덴마크농업인연합(Danish Farmer's Union), 협동조합연맹(Federation of Danish Cooperatives)과 왕립 농업협회(Royal Danish Agricultural Society)등이 합작하여 1919년에 덴마크 농업이사회(DAC)를 설립하였다. DAC는 덴마크 농업에 관계

되는 모든 정책적, 경제적, 상업적, 기술적 과제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정부·EU가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벨기에 브뤼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시장의 개척 및 수출, 진흥 등을 도모하고 있다.

- 덴마크농업이사회 일본사무소는 1967년에 설립되어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식품이 일본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생산, 수출, 가공, 유통, 소매, 소비 전 과정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의 관련 기업과 단체와의 관계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일본사무소의 직원수는 9명으로 덴마크농업과 일본시장을 다각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표 5-7> 덴마크 일본사무소의 분야별 활동

분업별	활동내용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촉진과 시장협찬</li> <li>· 시장개발, 상품개발</li> <li>· 전시회, 박람회</li> <li>· 교섭의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력한 시장 접근 촉진</li> <li>· 상사,유통,회사,소매 각 업계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활동 실시</li> </ul>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li> <li>· 보급,계몽활동</li> <li>· 광고활동</li> <li>· 조사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기능의 거점 →덴마크와 일본 쌍방의 관민, 각 지방에 대한 접근</li> </ul>
RE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상호 협조, 협력</li> <li>· 상호협의기구의 설정과 운영</li> <li>· 덴마크농업의 창구</li> <li>· 상호교류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산물별 단체를 대표하는 종합기구로서 일본측 관계 기구와의 협조활동</li> </ul>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선진국의 일본시장 농식품 마케팅전략, 2005.1.

- 일본시장에 대한 덴마크의 주요 수출전략상품은 돈육과 치즈이다. 덴마크의 돈육 수출은 EU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EU이외의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최대 수출국이다.

<표 5-8> 덴마크산 돈육·치즈의 대일본 수출실적

단위: 톤, 백만엔

주요 품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돈육	171,876	92,682	212,163	112,153	213,457	121,711	239,884	143,994	219,961	129,523
내추럴치즈	11,332	4,850	11,761	4,061	12,795	4,767	11,541	5,009	11,589	5,35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선진국의 일본시장 농식품 마케팅전략, 2005.1.

- 일본시장 진출 초기단계에는 덴마크산 농식품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치즈는 일본에서 소비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DAC는 덴마크산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농식품의 홍보활동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덴마크산 농식품을 일본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촉진활동을 추진하였다. 돈육의 경우는 덴마크산을 취급하는 식육가공업자를 확대하였는데 현재는 일본햄과 프림햄 등 대기업의 식육가공업자를 시작으로 중견기업의 덴마크산 돈육 취급량도 확대되고 있다. 치즈의 경우 23개사로 구성된 ■덴마크치즈협회 ■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는데 이 협회에는 일본 내 치즈유통업체인 체스코, 일본마이세라, 세계치즈상회, 보홍수산, 무라카와 외에도 삼릉상사, 소암정유업, 포시즌(외식산업), 기이국우 등이 회원참가하고 있다.
- 덴마크산 농식품의 일본 내 유통은 덴마크기업→일본상사(수입업자)→가공업자/판매업자로 이어진다. 일본사무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덴마크산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본어판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거나 이벤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내에 치즈학교, 포크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매년 10일 정도 치즈업계, 돈육산업계에서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돈육과 치즈의 보급 및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 DAC의 성공전략의 하나는 2000년에 시작된 「DANISH」 로고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덴마크치즈 로고 캠페인은 덴마크치즈협회 소속

각사의 협력으로 시행하였는데 덴마크 로고를 붙인 제품의 연간 유통량은 약 2,000만 팩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덴마크치즈와 치즈패키지제품에 로고표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 카탈로그나 팜플렛, 레시피 등의 판촉용 자료에도 로고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DAC는 덴마크낙농연합, 덴마크축산기구연합, 덴마크우육기구연합 등 관련단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시장에서는 덴마크대사관도 다양한 이벤트로 협찬하고 있어 관련 단체와의 협력 관계 유지도 일본시장개척 성공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제 6 장

# 농식품 대일수출 활성화 방안

### 1. 새로운 방향과 전략

#### 1.1 대일 농산품 수출의 SWOT 분석

- 우리의 시설채소농업은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농업을 해온 결과 생산성이나 시설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자재와 재배기술이 해외(미국, 캐나다 등)로 수출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가장 유리한 지리적 우위성으로 인해 신선도 유지 및 저렴한 유통비용 등의 강점이 있다. 사계절과 주야간의 뚜렷한 기온차이 등은 네덜란드가 부러워할 만큼의 고품질 화훼류 생산을 가능케 한다. 화산암 토양과 많은 강수량을 가진 일본에 비해 뛰어난 우리의 토양 및 기후조건은 과실의 맛과 향은 물론 청과물의 영양성분 측면에서도 우수한 강점이 있다. 또한 국내수요량을 초과하고 있는 국내생산량으로 인한 공급과잉기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출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농민은 물론 농협, 지자체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원유가격의 지속적 상승, 원화 강세 등에 따라 대일 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그동안의 대일 농산물 수출이 소규모 수출업체 또는 보따리상에 의존한 비조직적인 수출체계였던 까닭에 신선도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일본의 농산물 소비에 있어 안전(安全), 안심(安心)을 추구하는 경향은 2006년 5월 잔류농약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잔류를 인정하는 물질에 대해 리스트화하는 것으로 현재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799개 농약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치를 적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기준치 0.01ppm을 적용) 도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이같은 추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프리카, 깻잎 등에서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검출됨으로써 수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안전성검사 및 수출체제로 인해 한국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 "일본산의 60~70%수준의 가격이면 적절하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 한편 대일 농식품 수출에 있어 많은 기회요인도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과 한류 붐에 따라 일본인들의 한국과 한국의 식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 및 식재료(일본에 비해 월등히 다양한 채소류, 산채류, 부침개 및 떡류, 잡채 등)가 건강 및 기능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걸맞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 어느 곳에 있는 동포에 비해 재일한인은 결집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결혼 등의 이유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경우에도 우리의 식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식문화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식문화를 동경하는 일본인들과 우리의 식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재일한인 등의 인적자원은 우리의 농식품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 대일 농식품 수출에 있어 몇 가지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일본의 1일 채소소비량은 1980년 1인당 300g에서 2004년에는 254g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소비량이 적어 앞으로도 채소 소비량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류의 경우에도 채소류보다는 감소 추이가 적기는 하나 점차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의 수입선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멕시코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농산물 수입비중이, 최근 잔류농약 문제로 잠시 주춤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6-1> 대일 농산물 수출의 SWOT 분석



## 1.2 새로운 방향과 전략

- 농식품의 대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안전성 및 가격경쟁력 제고

- 품질경쟁력을 앞세운 일본산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및 멕시코산 등의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일본산과의 경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친환경 농산물을 앞세워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확후관리의 개선을 통해 신선도를 높이는 한편 생산비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킨다면 중국산 및 멕시코산과의 차별성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 나. 한국의 식문화와 농식품 수출 간의 연계성 강화

- 특정국가의 식문화는 그 나라의 농식품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식문화가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농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 지금까지 우리의 농식품 수출전략은 우리의 식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김치 또는 삼계탕 등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외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식은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질적인 농식품을 그들의 식문화에 접합시키려는 것이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유무형 노력 역시 낭비적인 요소가 많게 마련이다.
-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발효식품(김치류, 젓갈류 등)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건강 및 기능성을 추구하는 식품소비패턴에 걸맞는 우리의 식문화를 제대로 알려나간다면 농식품 수출은 보다 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재일한인 및 친한 일본인 조직의 활용

- 현재 재일 한인수는 60만명, 뉴커머 20만명, 여기에 일본국적으로의 귀화자까지 합치면 재일 한민족의 규모는 100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빅히트를 하면서 일본인 중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특히 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 재일민단은 일본 전역에 걸쳐 300여개의 지부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만 해도 200여개가 넘는다. 더욱이 민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빠징코, 야키나꾸점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일본인 종업원 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 같은 그룹들은 우리의 식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나 최소한 호감 내지는 거부감이 적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과 연계하여 이들이 소유하

고 있는 건물들을 수출전진기지화 하거나 이들을 수출전위부대화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이 요청된다.

#### 라. 수출업체의 규모화 및 수출경로의 재정비

- 수출업체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들이 산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일본의 수입주체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 및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선’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 수출의 파트너로서 영세 수입업체 일변도에서 벗어나 최근 일본의 농식품 수입 유통에 있어 수직결합 등을 통해 영향력을 대폭적으로 키우고 있는 ‘무역기업’(이토추, 미쓰비시, 미쓰이 상사 등)과 일본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조리식품시장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식품제조 및 도매업체’와의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 마. 수출지원체계의 개선

- 농식품의 수출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해외로 파는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것임과 동시에 식문화의 전파와 농식품수출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청된다.
- 식문화의 전파란 단순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농식품의 원활한 수출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은 물론 물류, 안전성, 검역, 해외시장의 동태파악 등 다양한 기능들의 조화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는 정부부처중 단지 농림부의 몫이라기보다는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 동시에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 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산관학’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여부가 농식품 수출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기구의 위원장을 총리가 맡고 있고 구성멤버는 정부의 각 부처, 업계, 학계 등 ‘산관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타산

지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또한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이나 신상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초기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일정기간 동안 손실을 감수 할 수 있는 투자주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영세한 수출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 어느 곳도 손실을 감내하며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분야(생산, 물류, 검사,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 2. 분야별 주요과제

### 2.1 안전성 및 가격경쟁력 제고

- 일본 소비자에게 한국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대일 수출 농산물 생산농장(및 수출단지) 및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출직전 신선도 및 잔류농약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과정에서 반품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일본 검역당국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안전성제고 프로그램에 관련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수출지원자금 지원대상을 프로그램 참여업체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안전성 미흡으로 인한 반품 및 신뢰도 저하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부담아래 일본의 수출검역확인제도(해외검역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완벽한 수확후관리시설(예냉, 저온저장, 선별, 포장, 훈증, 수송시설 등)을 갖추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

다. 이를 통해 국내 산지에서 일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신선유통체계를 확립토록 해야 한다.

- 신제품 개발 및 육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일 수출 과실류 및 과채류의 경우에는 단맛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기호에 맞춰 당도를 제고시킨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이 요청된다.
-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일 수출 농식품의 해운 및 항공 수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요금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2 한국의 식문화와 농식품 수출 간의 연계성 강화

- 일본에서의 한류 붐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초점을 연예계 활동이나 공연 등에 맞추고 있어 농식품 수출 확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 및 예술 공연 시에는 반드시 우리의 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에서도 건강식,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의 식문화가 이같은 추세에 걸맞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틈새시장 및 품목(예: 산더덕, 산채, 흑마늘 등) 개척을 도모해야 한다.
- 김치의 경우 매운 맛의 ‘배추김치’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물김치’, ‘백김치’ 등 맵지 않은 다양한 종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삼계탕의 경우에는 원형을 고집함으로써 일본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는바 반계탕 정도의 크기로 살코기를 찢은 형태로 공급하는, 다시 말해서 일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형태로 조정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 우리의 식문화와 농식품이 ‘어디에 좋다’식의 홍보보다는 기능 및 효능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 경우 영양성분, 기능 및 효능에 대한 분석을 일본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그들의 글과 입을 통해 발표케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 일본의 큐우슈우 지역이나 사이타마현 등에서는 조선통신사 등 조선의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를 재연하는 마쓰리(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미야

자키현의 ‘백제마을’, 사이타마현의 ‘고구려마을’에서도 축제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이 같은 행사에 우리의 식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통해 자연스레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일본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3 재일한인 및 친한 일본인 조직의 활용

- 재일민단과 연계하여 중앙본부는 물론 지역민단 중 활성화된 곳에 ‘한국 농식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함으로써 일본 전역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끔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과 뉴커머 조직인 ‘재일한국식품연합회’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재일한인 및 친한과 일본인 조직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한국식문화 이벤트를 개최함과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요리 경연대회, 한국농식품 판매왕대회 등을 개최하여 수상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당 점포의 홍보 및 한국으로의 초청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또한 이들 조직으로 하여금 김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케 하여 한국산 김치와 관련 있는 업체직원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한국산 김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중에서 한국산 원료를 일정 정도 이상 사용하여 한국요리를 판매하는 점포를 엄선하여 한국정부의 인증마크 부착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15만ha에 이르는 농지 및 초지를 확보하여 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한 유기농 콩 등을 재일민단의 자회사로 하여금 일본으로 수입, 판매케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기업의 판매망 확대와 재일민단의 운영자금 확충 등 상생효과가 큰 방안이라 하겠다. 이 같은 형태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실현시킬 경우, 다른 지역 간에도 확산되어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가 보다 구체성을 띠게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4 수출업체의 규모화 및 수출경로의 재정비

- 수출업체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는 반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과감히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레 퇴출시키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전통적으로 일본의 농식품 수입 유통구조는 무역기업 또는 수입업자 → 식품가공 및 도매업자 → 소매점포(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등) → 최종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5대 무역기업(미쓰비시, 이토추, 미쓰이상사 등)은 수입업무 일변도에서 벗어나 도매 및 소매부문까지 진출하는 이른바 전방 수직결합(forward vertical integration)을 통한 통합적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의 10대 식품 도매 기업이었던 료쇼쿠와 메이지야는 미쓰비시상사에 합병되었고, 닛폰엑서스, 이토추 쇼쿠힌 및 니시노는 이토추상사에 합병되었으며, 미쓰이 후드는 미쓰이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또한 가장 규모가 큰 코쿠부 역시 미쓰비시상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소매부문에 대한 수직결합 사례는 마루베니상사가 다이에이 및 다이에이의 슈퍼마켓 체인인 마루에츠, 토부스토어, 독일계 도매유통업체인 메트로의 자회사인 메트로 캐시앤캐리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여 식품소매유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미토오 상사의 도쿄지역 슈퍼마켓 체인인 서밋(summit) 합병, 미쓰비시 상사의 로슨(Lawson) 지분 취득, 이토추 상사의 패밀리마트 인수, 미쓰이 그룹의 이토요카드(Ito-Yokado) 와의 제휴 등과 같은 무역기업에 의한 식품소매유통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 또한 일본의 전체 소매시장 규모는 2001년 3, 450억달러 수준에서 2005년 3, 35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조리식품 판매액은 1997년 530억달러 수준에서 2004년에는 600억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6-2>.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추세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리식품의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식품제조업체 및 도매업체가 이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 한국 농식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역거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이들 무역기업과 식품제조 및 도매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업체가 원하는 품목이 무엇이며 수량 및 품질 수준, 거래조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업체와의 직접적인 접근이 쉽지 않을 경우 제일한인조직을 중간 매개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6-2> 일본의 조리식품 판매액 추이(1997~2004)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97	1999	2003	2004	매장 수
전문점	22,417	22,386	22,964	23,193	
백화점	146	141	119	107	308
슈퍼마켓	2,598	2,982	7,036	7,368	11,195
식품슈퍼마켓	11,143	12,004	12,316	13,016	13,752
편의점	12,884	13,762	15,635	16,230	42,738
합계	52,929	54,801	58,070	59,914	

자료: Japan Meal Replacement Association

## 2.5 수출지원체계의 개선

- 대일 수출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식문화의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실무책임자 농업 및 식품업계, 무역업계, 학계 등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대일 수출에 있어 신규유망품목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내에 독립채산조직을 두거나 별도 법인을 조직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생산지도, 품질관리, 안전성 검사, 수출선의 확보, 해외홍보 및 판매 전략 수립 등 수출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신 일정기간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할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퇴출까지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는 체계가 되도록

록 해야 할 것이다.

### 3. 주요 수출유망품목별 보완사항

- 품목별 보완사항은 일본시장 전문가 및 일본 내 한국농식품 수입업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출확대를 위한 핵심사항만을 간추린 것이다.

#### 3.1 채소류 및 과채류

- 깻잎
  - 응애발생문제의 해결 및 훈증시설 마련
  - 친환경 재배
- 파
  - 일본의 관동지역에서는 흰색부분만, 관서지역에서는 녹색부분만 식용으로 사용함
  - 관동지역 판매를 타겟으로 할 경우에는 발두둑을 높여 흰색부분이 20cm이상 되도록 재배
  - 친환경재배
- 브로콜리
  - 수출단지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의 균일화 추진
  - 규모화된 수출단지에 빙냉식 예냉시설 설치 및 품질의 균일화 추진
  - 중국산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4~10월에 수출을 추진
  - 스테기(지팡이 모양)타입 등 신품종의 도입
- 파프리카
  - 대규모 수출단지의 조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품질 고급화
  - 일본 소비처의 요구, 특히 다양한 색상의 조합을 가능케 하는 공급체계 구축
  - 잔류 농약문제의 근본적 해소대책 마련
- 메론

- 재배기술 개선을 통한 당도의 제고
- 비파괴선별기 도입을 통한 수출품질의 균질화
- 참외
  - 재일한인을 Targeting
  - 당도 및 신선도의 제고
- 딸기
  - ‘매향’ 품종을 주축으로 차압식 예냉기 설치 등을 통한 신선도 제고, 꼭지 부분까지 빨강계 함으로써 높은 가격 수취 노력
  -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일본산의 단경기인 6~11월 수출이 유리.
- 고추
  - 고춧가루 형태로 70g 정도의 소포장 필요
  - 일본의 좁은 주방 공간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일본주부들은 사각형의 양념 통을 선호하므로 사각형 용기 개발
- 밤호박
  - 철저한 수확후관리 (비파괴 선별, 잔류농약 제거, 에틸렌가스제거제 사용)
  - 일본의 단경기인 1~5월 수출위해 강제송풍식 및 저온저장 방식을 통한 장기 저장 후 수출
- 토마토
  - 일반 토마토는 완숙계(完熟系) 및 유럽계 조리용 품종 선호
  - 미니토마토는 ‘치카’ 등 당도가 높은 품종과 송이방울토마토 선호

## 3.2 과실류

- 배
  - ‘추황’은 저장성이 우수해 일본산 배 출하이후에 수출가능.
  - 친환경재배
- 유자
  - 중국산, 일본산에 비해 향이 짙고 독특함을 홍보
  -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
- 사과

- 껍질 채 먹는 '안심사과' 형태로 수출
- 크기는 중과 및 소과가 적절하며 중년 여성층 공략

### 3.3 특용작물 및 산채류

- 인삼
  - 무농약 재배
  - 홍삼, 백삼 형태보다는 단맛이 있는 가공제품 선호
- 산더덕
  - 무공해 건강식품인 산더덕에 대한 관심 고조
  - 일본인 기호에 걸맞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 산채류
  - 건강 및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
  - 친환경재배
  - 조리방법에 대한 설명서 포함
- 송이버섯
  - 수확 즉시 예냉처리 등 신선도 제고 노력
  - 항공수송을 포함한 수송시간의 단축

### 3.4 화훼류

- 백합
  - 한국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어 수출확대가 유망
  - 3~4륜 정도의 증저가 시장 공략
  - 네덜란드로부터 종구를 수입하지 말고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 중 일본시장에 걸맞는 품종(흰색 및 핑크)을 상품화하거나 아니면 장기저리의 개발비를 화훼농가에 지원해 자체적으로 품종개발을 유도
- 국화
  - 스프레이 국화보다는 윤국(대륜 및 소륜)이 경쟁력이 있음
  - 윤국의 로얄티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품종 개발이 요청됨
  - 선도유지와 색상이 관건

### 3.5 축산물

- 삼계탕
  - 일본 소비자는 닭의 원형을 기피하므로 선호에 맞게 재가공함과 동시에 소포장화
- 오리고기
  - 친환경 농업의 오리농법에서 이용되는 오리사용
  - 일본인 선호에 맞게 가공
- 돼지고기
  - 돈육의 대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돈 콜레라 예방주사 문제해결 필요
  - 모든 돼지(100%)에 대한 돈 콜레라 예방주사 접종을 3년간 (6대에 걸쳐) 실시한 후 주사를 중지하면 대일 수출 가능. 이를 위해서는 모든 돼지 사육농가의 동참이 필수적임

### 3.6 가공식품류

- 김치
  - 품질고급화와 더불어 고가 전략 필요
  - 배추김치 외에 백김치, 물김치 등 맵지 않은 김치류에 대한 홍보 강화
  -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이 개발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
  - 김치의 매운맛 정도를 숫자로 표시
- 고추장
  - 원료품종의 균일화를 통한 제품품질의 균질성 제고
  - 초고추장 등 다양한 소스류 개발
  - 고추장의 매운맛 정도를 숫자로 표시
- 주류
  - 복분자주 경우 찌꺼기를 없애고 좀 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 막걸리의 경우 용기를 보다 고급화하고, 생막걸리의 유통기간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 참고문헌

---

- 강재언 외, 「재일 한국·조선인-역사와 전망」, 한림신서 일본학총서 50, 2000.7.
- 김병률 외,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확대전략 수집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4.
- 김성훈, “안에서 잃은 것, 밖에서 찾자-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대외지향 강화 방안”,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IKAN) 구축」 국제농업심포지엄 자료집, 2004.11.
- 김완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산지대응전략”, 「한국식품유통학회지」, 2005.8.
- 김완배,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세계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IKAN) 구축」 국제농업심포지엄 자료집, 2004.11.
- 김태곤, “일본의 농업·농정동향”,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
- 김홍우, 「일본정부의 식품의 잔류하는 농약 등 포지티브시스템 도입개요」, 주일한국대사관, 2006.2.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연도
- 농림부, 「2007년 농식품 수출대책」, 2007.2.
- 농수산물유통공사, 「새로운 무역환경에서의 가공식품 수출경쟁력 분석」, 2004.7.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시장 농식품 마케팅전략」, 2005.1.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출농산물 품목별 해외정보」, 2002.4
- 머레이 와이덴바움 외 지해범 역, 「華僑네트워크」, 세종연구원, 1988.3.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2006), 「한민족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투자방안 연구 - 몽골,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대산농촌문화재단

- 성명환, 최윤국, 「주요 농산물의 대일 수출 증대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12.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2004.3.
- 이문웅, 「세계의 한민족 -일본-」, 통일원, 1996.2.
- 이홍락, “재일 한국·조선인-형성과정과 현재. 그리고 그들의 역할”, 「재외한인 연구」. 제10호, 재외한인학회, 2001.
- 일본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 백서」, 2006
- 일본농림수산성통계부, 「농림수산통계」 각 연도
- 정찬원,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격차이」, 재외동포재단, 2004.12.
- 최석신 외,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2005.12.
- 최성일,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개척방안”, 「수출농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6.11.
- 한명규 외, 「50달러로 억만장자가 된 韓商」, 생각의 나무, 2003.9.
- 한일민족문제학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2.
- \_\_\_\_\_, 「한국 농식품의 일본시장 진출방안을 위한 한·일 공통심포지엄 자료집」, 2006.6
- Japan Meal Replacement Association, 통계자료
- JETRO, 「무역·투자·국제수지통계」, 2006
- 일본재무성 <http://www.mof.go.jp>
- 일본총무성 <http://www.soumu.go.jp>
- 일본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 일본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 일본식물검역소 <http://www.pps.go.jp>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http://www.kati.net>

한국국립식물검역소 <http://www.npqs.go.kr>

## <부록 1> 중앙 및 지역민단 주소록

지역	주소	전화	FAX
오키카이치(四日市)지부	三重縣四日市市幸町 1-9	0593(53)8851	(52)7154
추우오(中央)본부	東京都港區南麻布1-7-32	03(3454)4901	03(3454)4614
나가사키현(長崎縣)본부	長崎市樺島町6-15大信ビル4F	0958(21)1638	(22)0970
스즈카(鈴鹿)지부	鈴鹿市南玉垣町 6477-3	0593(83)4580	(83)4580

#### 北海道

사세보(佐世保)지부	長崎縣佐世保市潮見町 1-7	0956(31)3244	(31)3245
츠(津)지부	三重縣津市西丸の内 24-33	0592(27)2336	(27)2336
오오무라(大村)지부	長崎縣大村市協和町 688-3	0957(52)3432	(52)3432
이가(伊賀)지부	三重縣上野市忍町 2691-1	0595(21)2043	(21)2043
홋카이도(北海道)본부	札幌市中央區南九條西 4-1-7	011(511)3381	511-1372
이사하야(諫早)지부	長崎縣諫早市城見町 16-23	0957(22)3579	(24)4975
마츠사카(松阪)지부	三重縣松阪市下村町 1184-18	0598(29)3717	(29)3717
쿠시로(釧路)지부	北海道釧路市榮町 4-1 (榮ビル)	0154(25)4757	25-4757

#### 熊本

이세(伊勢)지부	三重縣伊勢市常盤 1-1-1	0596(28)0496	(28)0496
키타미(北見)지부	北海道北見市七條西 6-7-6	0157(23)2784	23-2784
오와세(尾鷲)지부	三重縣尾鷲市林町 9-6	05972(2)1465	(2)1465
토카치(十勝)지부	北海道帶廣市東一條 19-19	0155(25)9601	25-9601
쿠마모토현(熊本縣)본부	熊本市木山町 2-2-4	096(352)1965	(359)1717

#### 滋賀

아사히카와(旭川)지부	北海道旭川市八條5丁目	0166(22)8656	22-6812
히토요시(人吉)지부	球磨郡多良木町多良木 393-4	0966(42)2766	--
루모이(留萌)지부	北海道留萌市錦町 1-6-1	0164(43)4567	43-3509
아소(阿蘇)지부	阿蘇郡阿野村赤仁多 586-7	0967(24)2762	--
시가현(滋賀縣)본부	大津市島の關9-5	0775(24)3639	(22)3287
소라치(空知)지부	北海道岩見澤市五條西 17-2-9	0126(22)3130	23-1704
타마나(玉名)지부	玉名市寺田 2-3	0968(73)2622	--
오오즈(大津)지부	滋賀縣大津市櫻野町2-10-7	077(525)4338	(525)4337
오타루(小樽)지부	北海道小樽市色内 1-13-2	0134(25)3955	25-3955

#### 大分

제세(膳所)지부	滋賀縣大津市木下町1-3	077(524)4362	(524)4362
치토세(千歳)지부	北海道千歳市本町 1-8-3	0123(23)3420	23-3420
이시야마(石山)지부	滋賀縣大津市上田上牧町474-3	077(549)0547	(549)0589
히다카(日高)지부	北海道浦河郡浦河町築地 3-7-1	01463(2)3393	2-1990
오이타현(大分縣)본부	大分市東浜 1-8-3	0975(53)1616	(53)1621
카타다(堅田)지부	滋賀縣大津市本堅田町4-13-13	077(572)1428	(533)0611
토마코마이(苫小牧)지부	北海道苫小牧市矢代町 2-2-7	0144(74)3331	74-3331
오이타(大分)지부	大分市東浜 1-8-3	0975(53)1616	(53)1621
코난(湖南)지부	滋賀縣草津市矢橋町2070-1 805	077(564)3117	(564)3118
무로란(室蘭)지부	北海道室蘭市中島町 3-27-2	0143(44)4407	44-4407
벳부(別府)지부	別府市中島町 2-34	0977(23)6948	(23)1684
모리야마(守山)지부	滋賀縣守山市播磨田町1457-4	077(583)5208	(583)2846
하코다테(函館)지부	北海道函館市大手町 16-3	0138(22)6411	22-6463
나카즈(中津)지부	中津市大字大悟法 72-1	0979(26)2080	(26)2079
코세이(湖西)지부	滋賀縣高島郡新旭町新庄492	0740(25)3325	(25)3325

#### 青森

우사(宇佐)지부	宇佐市大字法鏡寺 307-2	0978(32)5951	(32)0108
코우가(甲賀)지부	滋賀縣甲賀郡甲西町大字岩根2223-1	0748(83)0677	(77)2140
타카다(高田)지부	宇佐市大字山本 2091-4	0978(22)3011	(22)4450
코토우(湖東)지부	滋賀縣蒲生郡龍王町須恵314-1	0748(58)0187	(58)0187
아오모리현(青森縣)본부	青森市長島 3-18-6	0177(76)3317	(77)9938
키즈키(杵築)지부	東國東郡國東町鶴川 527	0978(72)1268	--
코호쿠(湖北)지부	滋賀縣彦根市正法寺町286-181	0749(26)1881	(22)3662

## <부록 2>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별 재일 한인회사 목록

### 1. 농림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金昌商事	金基卓(1945.2.9)	잡곡수출입(대두, 소두)	홋카이도	0155-62-5149
金川商店	金春雄(1945.3.23)	산림조성 및 목재벌채	교토	0773-75-1747
(株)福德林業	孔繁春(1943. 1.19)	벌채사업	교토	07712-2-1213
金原畜産	金勇(1948.10.11)	축산업	히로시마	0823-33-3938

### 2. 식료품제조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アボジ食品	李清貴(1955.3.28)	소스제조	훗카이도	011-241-6373
(株)デュロー	金忠義(1945.6.14)	빵제조, 판매	훗카이도	0138-55-2234
(有)エムエスエヌ	韓元士(1956.1.5)	빵제조, 판매	아오모리	0178-31-0115
(株)カトーマロニエ	李昌根(1938.4.3)	빵, 일본과자 제조판매, 학교 급식 빵 지정공장	미야기	022-356-5514
(有)味良	金均貞(1929.12.1)	한국식품제조판매	군마	0273-73-7111
宮田商會	李一成(1937.9.17)	콩, 콩나물 제조판매	사이타마	0489-76-6420
一力物産	金一圭(1950.7.28)	면류 제조	동경	03-3962-6666
(株)サッポロ製麵	吳和義(1952.10.9)	면류 제조	동경	03-3988-4411
(有)新榮食品	李璨(1948.11.22)	제면업	동경	03-3602-2020
(株)ダイショー	金丙達(1921.2.10)	조미료 제조	동경	03-3626-9321
(株)野村商店	丁三祚(1926.1.9)	콩나물 제배, 소매	동경	03-5660-1251
(有)マザー食品	朴珍淳(1925.6.26)	계란 가공업	동경	03-3994-5374
(株)マルフク	鄭達洙	식품가공	동경	03-3674-3978
(株)ロッセ	辛格浩(1922.10.4)	과자제조업	동경	03-3375-1211
(株)大東化學工業	林春善(1925.5.25)	사카린 제조	카나가와	044-266-3381
(株)高麗蔘業	申一郎(1942.1.3)	고려인삼제조, 인삼건강식품 제조	나가노	0268-42-2067
三田蔘業	曹喜寅(1931.6.14)	인삼생산, 가공,수출	나가노	02686-2-0373
(株)友星食品	鄭壽得(1930.12.10)	한국식품제조,판매	나가노	0262-64-2201
(有)金井製パン	金大榮(1923.5.26)	빵, 케익제조	니이가타	0255-62-2100
福田商店	金順甲(1939.4.27)	고기류 제조	후쿠이	0776-77-2921
(株)豊和食品	金伯泰(1922.12.11)	아이스크림 제조	아이치	0532-61-7151
(株)松永製菓	張昌也(1944.10.12)	과자제조	아이치	0568-72-1211
吉村穀粉	許華一(1936.12.5)	정곡, 제분, 빵제조	나고야	052-301-7676
(株)味道園	李鍾奎(1950.7.15)	소스 제조 판매	미에	0593-52-3781
(株)京都加工蔬菜	金賢一(1938.9.16)	콩나물제조	교토	075-313-7215
(株)天狗製菓	許萬日(1937.7.7)	빵, 과자 제조	교토	075-313-0164
(株)丸万食品	裴久嗣(1950.2.27)	한국식품제조	교토	075-311-0916
金村商店	全能祐(1949.6.24)	한국식품제조	오사카	06-717-2149
(株)金剛食品	張汎秀(1926.9.19)	김치제조	오사카	06-716-0901
(株)徳山物産	洪性翊(1956.11.19)	한국식재 제조, 판매	오사카	06-741-5755
中橋商店	金鎮坤(1924.4.16)	빙과류 제조	오사카	06-931-3946
福永製飴	朴成泰(1948.9.6)	물엿제조	오사카	06-721-5519
(株)丸全食品	金銅(1935.10.8)	김치 제조	오사카	06-681-2525
(株)カネヨシ	白井紅靑(1931.5.10)	식품공업	효고	06-431-2466
(株)鶴馬産業	馬國宝 (1947.12.29)	면류제조	오카야마	089-444-9279
(有)釜山キムチ	金榮利(1957.8.9)	김치제조	히로시마	082-295-1180
(株)味の丸屋	朴正弘 (1953.12.20)	명란젓 제조	키타큐슈	093-791-3211
(株)高山食品	元聖三(1953.4.2)	식품 제조, 가공	후쿠오카	092-925-9388
山城	崔吉男(1969.7.3)	제과업	사가	0954-42-0471
(有)山城商店	崔吉男(1944.7.3)	사탕제조	사가	0954-43-8339
徳山製油所	李良浩(1927.8.20)	유채유 판매	오이타	0978-63-9759

### 3. 음료 제조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三宝緑化	禹柄律(1931.7.10)	수피음료	토치기	0288-26-3392
(有)日光有機	禹柄律(1931.7.10)	수피음료	토치기	0288-26-1442
(株)ピュアウォーターボトラーズ	金賢振(1942.7.7)	미네랄워터 제조	군마	0276-37-7687
(株)太田油脂産業	李正一(1944.10.12)	음료용유지 제조	사이타마	0489-95-3452
(株)永山飼料	崔榮基(1941.4.9)	음료배합	후쿠이	0776-54-1020
遠藤青汁會京都西陣支店	吳世敏 (1936.8.10)	야채주스 제조	교토	075-461-5258
(有)錦海化成	李相喜(1943.5.20)	음료 어유 제조	돗토리	0859-44-6623
(株)カネシロ	金優(1946.11.7)	쥬스, 폰즈 제조	아마구치	0838-25-7511

#### 4. 육상 및 해양운송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立和運輸倉庫	林鳳光(1944.4.29)	화물자동차운송	토치기	028-662-6711
オリエンタル運輸	文祐相(1925.8.16)	운송업	사이타마	0429-59-0733
共田商店	黃晷悛(1971.3.26)	운송업	치바	043-242-2666
(株)榮和リサイクル	金虎一(1958.12.13)	일반화물운송	도쿄	03-5273-4446
大山建材	李完基(1934.1.28)	화물자동차운송	도쿄	03-3700-1060
(有)大昌運輸	孫永元(1941.6.14)	운송업	동경	03-3848-3311
(有)東京ライン	金哲淳(1933.2.15)	일반화물운송	동경	03-3436-1036
(有)東洋企業	文祐相(1925.8.16)	운송업	동경	0429-59-0733
(株)林運輸商事	林瑁萬(1934.1.27)	화물자동차운송	동경	03-3853-3100
(有)柳木運輸	柳泰永	식유,가스운송업	동경	03-3882-3888
(有)府中梱包	朴春熙(1941.5.15)	일반화물운송업	동경	0423-65-5966
(有)海野配送	金守吉(1941.1.4)	화물자동차운송	카나가와	0462-33-4837
木村建材	本村政廣(1931.11.11)	운반업	카나가와	0462-31-0548
(有)藤榮	川谷美子(1951.4.30)	화물자동차운송	카나가와	0466-81-8375
(有)福田商事	鄭大泳(1956.11.30)	화물자동차운송	요코하마	045-664-5214
(株)東部通商	金弘(1941.9.8)	종합운수업	나가노	0268-62-3666
(株)宮本物産	金商太(1926.7.29)	운송업	나가노	0267-23-5678
(株)石原商運	李鍾協(1943.4.24)	화물자동차운송	기후	058-274-6641
(有)石昌運輸	李昌錫(1940.1.13)	화물자동차운송	기후	0583-85-2918
(株)協和物流	李鐘煥(1927.1.10)	화물자동차운송	기후	0573-26-5518
(株)中央陸運	李昭男 (1943.9.24)	화물자동차운송	기후	0574-67-5306
(株)マルアイ運輸	李初子(1936.3.1)	화물자동차운송	기후	0584-71-1248
(有)丸藤岩村商店	許龍一(1961.3.20)	일반운송업	기후	0572-22-9188
岩本運送	文漢圭(1934.1.29)	트럭운송	아이치	0568-83-3554
カトウ運送	鄭成烈(1936.3.25)	화물자동차운송	아이치	0564-23-9074
(株)國際運輸	朴在駿(1920.10.17)	화물자동차운송	아이치	0586-69-5931
正道商店	張正道(1949.4.2)	섬유운송업	아이치	0564-22-5372
金屋工産	南文祐(1935.6.28)	운송업	아이치	0565-33-4540
(株)高見起業	全良雄	화물자동차운송	아이치	0561-21-1011
(株)東榮	李斗義(1943.2.27)	화물자동차운송	아이치	052-452-2091
(株)成清トランスポート	成功(1957.11.5)	화물자동차운송	아이치	0561-83-3317
安田商店	安鍾來(1936.5.29)	운송업	아이치	052-362-3927
高山商店	崔則夫(1947.1.25)	운송업	미에	0594-22-7640
金田建材	金荷國(1938.7.10)	화물운송	시가	0748-74-0473
(株)共榮運輸	朴芳一(1935.2.6)	화물운송	시가	0749-55-2722
岩本商店	李獨立(1944.9.28)	산업폐기물 운반	교토	075-671-0233
(有)互光運輸	金千完(1948.1.10)	운송업	교토	0773-23-1534
(有)三英建設	金英治(1938.2.11)	특정화물운송	교토	0771-23-8735
(株)富士倉庫運輸	金權悛(1926.9.10)	화물자동차운송	교토	075-601-7261
松原商店	金鍾道(1932.1.19)	자갈등의 운반	교토	0773-63-3511
(株)アークエージェンシー	金禎孝(1954.3.30)	화물운송중개	오사카	06-241-508
(株)大和田運輸倉庫	朴在徵(1935.3.12)	화물운송	오사카	06-474-1431
(株)金本運送	朴幸道(1958.12.5)	운송업	오사카	06-996-0771
金光商會	金鍾吉(1941.7.29)	화물운송업	오사카	06-705-0016
(株)小林組	金正雄(1926.4.10)	운수업	오사카	06-575-0384
(株)サイアンス	安彰男(1965.3.13)	화물운송업	오사카	0724-43-2256
(株)シンヨー運輸	康敏秀(1962.1.18)	화물운송업	오사카	06-728-4040
高山運送	崔昌祚(1936.1.17)	화물운송업	오사카	06-329-3870
(株)東來運輸	金達孝(1956.11.13)	화물운송업	오사카	06-906-7785
永井運輸	金勇(1945.1.20)	화물운송업	오사카	06-561-2522
(有)信谷商事	康敏秀(1962.1.18)	화물자동차운송업	오사카	06-728-4040
(株)毎日運輸	姜忠士(1945.7.8)	화물자동차운송업	오사카	06-911-6761
(株)松原興業	沈三郎(1942.6.17)	화물운송업	오사카	0725-23-3104
光本商事	姜政雪(1948.6.18)	화물운송업	오사카	06-720-0013
足立商店	趙興男(1950.5.8)	트럭수송업	효고	06-437-1809
新井商店	朴準瑋(1937.7.3)	트럭수송업	효고	0794-42-2531
井村商店	文德萬(1938.6.14)	트럭수송업	효고	0794-42-2531
大河商店	李海龍(1944.1.19)	트럭수송업	효고	06-418-1367
(有)金澤運送	金龍漢(1949.5.6)	화물운송업	효고	078-671-3968
(株)旭陽運輸	金喜一 (1941.12.21)	화물운송업	효고	06-419-1200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立和運輸倉庫	林風光(1944.4.29)	창고업	토치기	028-662-6711
(株)メトロメゾン弘洋	韓熙相(1932.7.5)	임대창고업	도쿄	03-3550-6101
山本貸倉庫	金浩史(1959.5.24)	임대창고업	도쿄	03-3471-8776
(株)松原産業	自東澤(1921.5.1)	창고업	카나가와	044-355-5952
(有)山梨コンテナ サービス	李景燮(1937.4.27)	임대창고업	야마나시	0552-37-1388
(株)高見起業	全良雄	창고업	아이치	0561-21-1011
(株)富士倉庫運輸	金權俊(1926.9.10)	창고업	교토	075-601-7261
(株)岩田商事	金重根 (1918.9.26)	창고임대업	오사카	0724-45-3925
(株)大阪倉庫	朴正浩(1955.8.25)	창고임대업	오사카	06-961-6362
(株)西宮興産	金陸泰(1939.6.23)	창고업	오사카	0720-71-6855
(株)毎日運輸	姜忠士(1945.7.8)	창고업	오사카	06-911-6761
(株)同榮工業	全利雄(1948.12.23)	창고업	효고	03-433-0616
(株)平和運輸産業	梁承好(1927.6.17)	일반, 저온창고	후쿠오카	093-751-1121

## 5. 창고업

## 6. 무역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ダイツウ	孔祥模(1925.1.5)	무역업	훗카이도	011-281-2511
(有)岩本企業	金政郁(1925.5.31)	종합상사	센다이	022-215-8801
(有)ダイジン	金春日(1941.2.6)	수출입판매업	군마	0276-38-0916
(有)リーエンタープライズ	李護淑(1932.3.21)	무역업	군마	027-252-0371
アジアネットワーク	金順南(1954.6.29)	무역, 통역	도쿄	03-5811-5431
(株)アスク	金嘉總(1958.1.11)	무역업	도쿄	03-3369-5988
(株)アリオジャパン	崔鍾壬(1952.9.4)	무역업	도쿄	03-3297-2291
(株)韓世總合貿易商社	金明大(1941.1.19)	무역업	도쿄	03-5385-4480
協和貿易	金鉉大(1939.9.1)	무역업	도쿄	03-3651-1435
(株)元正物産	權五祥(1925.2.7)	무역업	도쿄	03-3943-4880
(株)幸星商事	金斗漢(1926.12.5)	무역업	도쿄	03-3361-1822
(株)交輪企業	安定求	무역업	도쿄	03-3832-2271
(株)國際實業	朴貞龍(1925.6.22)	무역업	도쿄	03-3501-8831
(株)三慶物産	李東洙(1935.5.30)	무역업	도쿄	03-3502-5501
(株)三景貿易	金明讚(1935.12.28)	전문상사	도쿄	03-3669-6815
(株)三洋物産	韓貞斗(1920.8.28)	무역업	도쿄	03-3815-4411
(株)新豊	朴健之(1943.5.4)	식품수출입	도쿄	03-3498-1731
(株)晋陽商事	河順泰(1921.2.23)	종합상사	도쿄	03-3831-7172
(株)信和商事	河啓眞(1923.2.26)	무역업	도쿄	03-3564-5421
(有)台所家	張文煥(1943.10.29)	종합상사	도쿄	03-3421-0333
(株)大裕産業	金■鎬(1927.10.9)	무역업	도쿄	03-3997-4287
(株)地海	任尙彬(1957.3.4)	무역, 통역, 출판	도쿄	03-3225-0038
(株)東京徳山物産	洪性佑(1957.10.30)	한국식품 수출입	도쿄	03-5610-3833
(株)東邦通商	金孫澤(1938.8.7)	무역업	도쿄	03-3591-0465
(株)東和産業	朴南錫(1926.11.8)	무역업	도쿄	03-3456-0541
(株)東和貿易	鄭孝相(1939.2.26)	무역업	도쿄	03-5687-9371
(株)都宝物産	襄淳錫(1932.12.26)	무역업	도쿄	03-3503-6821
(株)南星貿易	姜恩順(1948.1.9)	무역업	도쿄	03-3836-2636
(株)南豊飼料	徐戶徳(1931.11.1)	무역업	도쿄	03-3461-5175
(株)松商	李承和(1937.3.28)	무역업	도쿄	03-3551-6171
(株)央大正堂	洪義碩(1944.10.10)	무역업	도쿄	03-5641-1483
(株)都通商	鄭斗壽(1932.1.2)	식재수출입	도쿄	03-3890-7161
(株)室町交易	吳榮一(1942.5.16)	수산물수입	도쿄	03-3200-0931
安田貿易商會	安承廷(1929.1.17)	무역업	도쿄	03-3444-1553
(有)イノモト	朴元吉(1945.10.28)	무역업	도쿄	0423-35-5449
(株)オリエンタル物産	朴明好(1943.2.5)	무역업	도쿄	0427-99-5788
(株)三共觀光	金明坤(1923.12.15)	무역업	카나가와	044-276-0131
(株)大東物産	林春善(1925.5.25)	무역업	카나가와	044-266-3381
(株)たからや商店	李英子(1943.10.6)	무역업	카나가와	045-231-1100
(株)東洋貿易	金正河(1921.2.25)	무역업	카나가와	045-353-1155
(株)雅	襄文煥(1923.3.15)	종합상사, 무역업	카나가와	0462-29-3401
(有)未阿莉	鄭康雄(1943.9.11)	무역업	나가노	0265-73-4737
三田蓼業	曹喜寅(1931.6.14)	인삼수출 가공	나가노	02686-2-0373
(有)共榮物流	朴芳一(1935.2.6)	무역업	기후	0584-47-2411
SANTRADE	安尙東(1942.1.29)	공예품무역	기후	058-240-3488
(有)シント貿易	五山政雄	무역업	기후	05679-6-0611
(株)東洋貿易	金東勳	무역업	아이치	052-776-9569
(株)海州	吳勝圭(1955.5.31)	무역업	교토	075-701-6166
(有)アンカー物産	徐在元(1941.2.1)	무역업	오사카	06-397-3088
(有)エクセル・インターナショナル	鄭英二(1965.1.13)	무역업	오사카	0722-50-2000
(株)共和機械	吳春錫(1936.12.15)	식재수입	오사카	06-648-0070
(株)グローバル	金聖大(1940.7.8)	무역업	오사카	06-543-2261
(株)サンヨーエンジニアリング	姜一培(1931.11.30)	무역업	오사카	06-253-0715
(株)新亞細亞貿易	白成淑(1920.1.10)	무역업	오사카	06-245-0251
大憲貿易	尹鍾憲(1937.10.25)	무역업	오사카	06-271-1157
(株)泰和	林太植	무역업	오사카	06-351-9553
(株)タカヤマ	吳景學(1933.10.24)	무역업	오사카	06-394-0841
(株)哲商事	金哲三(1944.10.26)	무역업	오사카	06-394-3425

## 7. 음식료품 도매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カネマル	金基郁(1944.2.21)	농산물가공, 도매	훗카이도	0155-36-2769
(有)明産商事	金正國(1952.12.19)	과자식품 도매	이와테	0196-47-5655
(株)セイブ商事	金政郁(1925.5.31)	식품도매	센다이	022-232-2405
(株)三香商會	高尚道(1940.4.26)	식품잡화 도매	사이타마	048-887-3369
(有)東京フーズ	金鎮得(1948.8.27)	음료수 도매	치바	0473-71-0336
(有)中村精肉店	崔和夫(1952.3.26)	정육도매업	치바	043-261-4129
(有)韓國廣場	金根熙(1956.4.9)	한국요리식품도매	동경	03-3200-2949
(株)ゴコク	李忠男(1948.3.22)	식육도매	동경	0489-97-6611
三幸焼肉材料店	李義道(1957.5.31)	건물, 불고기재료	동경	03-3691-9830
(有)第一物産	姜恩順(1948.1.9)	한국식품수입,도매	동경	03-3831-1323
(有)台所家	張文煥(1943.10.29)	어패류 무역	동경	03-3421-0333
(株)東京徳山物産	洪性佑(1957.10.30)	한국식품수입,도매	동경	03-5610-3833
(株)百梨商事	梁玄某(1941.8.9)	건장식품도매	동경	0423-78-2320
(株)丸新物産	朴春根(1925.12.29)	외식산업용식재료도매	동경	03-3985-0884
(有)岩本食品	許龍哲	한국식품판매, 사무용식품 도매	이시가와	0762-91-5650
ソウル物産	金貴柱(1935.6.16)	한국식품도매	이시가와	0762-37-0187
福田商店	金順甲(1939.4.27)	내장 도매	후쿠이	0776-77-2921
丸廣商店	黄昌二(1937.4.17)	한국식품도매	시즈오카	054-252-1637
(株)ホクセイ	池溶徳(1948.6.20)	수입식재료도매	아이치	052-903-5511
青木畜産	白二三男(1951.10.15)	육류도매	교토	0772-46-3070
(株)青田畜産	沈元輔(1953.11.10)	육류도매	교토	075-691-1868
(株)近畿活魚	金道烈(1939.8.30)	생선어류도매	교토	075-671-0116
(有)ニットーコーヒー	權氷海(1950.1.28)	커피,차류도매	교토	075-662-0102
平野商店	申富一(1941.3.29)	청량음료도매	교토	075-881-8745
(株)丸万食品	襄久嗣(1950.2.27)	건물, 캔류도매	교토	075-311-0916
(株)高槻中央水産	金大運(1939.1.25)	음료 도매	오사카	0726-71-7667
(株)日榮産業	宣壯介(1942.4.25)	수산물 도매	오사카	06-444-0801
(有)安東食品	張勇(1941.9.22)	육류 도매	효고	078-842-1469
(有)金澤商店	金澤武一(1937.8.24)	아이스크림 도매	효고	078-913-5515
(株)カルビハウスジャパン	河元台(1948.2.14)	식재 도매	효고	078-732-8888
(株)サムシル神戸	李孝(1954.6.16)	한국식품 도매	효고	078-803-3726
(株)マルエー	金氷壽(1927.6.2)	육류 도매	효고	0796-22-2502
(株)柳興	柳南坤(1928.9.2)	과자, 빵 도매	효고	078-221-0840
(株)やまき食品	姜奉洙(1943.9.18)	육류도매	와카야마	0734-53-1953
(株)石井食品	崔海徳(1934.1.14)	육류도매	오카야마	086-231-2490
(有)佐野食品	姜昌信(1929.11.1)	육류도매	오카야마	086-271-2519
梁原商店	梁奉佑(1947.6.2)	콩나물 도매	오카야마	086-447-0430
(株)國際貿易	金錫春(1948.6.6)	생선 어류 도매	에히메	0726-71-7667
(株)清川産業	韓判時(1923.3.12)	육류 도매	후쿠오카	093-202-2929
(株)松山物産	姜正熙(1954.8.24)	토란 도매	후쿠오카	0992-56-1800

## 8. 음식료품 소매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有)トトリフーズ	李求七(1930.5.2)	한국식재전문점	북해도	011-532-7335
(株)ムラオカ食品	朴平造(1943.8.5)	사무용주류 소매	북해도	011-531-1548
(株)カトーマロニエ	李昌根(1938.4.3)	빵, 과자제조 판매	미야기	022-356-5514
大同食品店	朴正古(1959.1.26)	건물, 육류판매	미야기	022-227-7970
(有)東光酒類部	金俊炫(1926.4.17)	주류점	미야기	022-265-9339
きくもとお茶店	李降雨(1927.3.24)	차류 판매	야마가타	0238-21-3890
ほかほか弁当天童店	金容植(1925.5.17)	도시락 전문점	야마가타	0236-54-0623
大城ミート	徐正光(1950.8.6)	정육점	이바라기	0297-58-1332
韓國食品ハレルヤ	李修榮(1969.4.11)	한국식품점	군마	0276-48-5853
新井酒店	朴哲雄(1957.1.3)	주류점	치바	0479-62-2095
新井商店	朴道源(1922.10.8)	식료품판매	치바	0479-62-2095
八百花	崔龍奎(1952.8.10)	청과업	치바	0473-86-5473
安田豆腐店	安永進(1930.2.9)	두부제조	치바	0473-71-1835
ウリ商店	秦君興(1927.11.19)	한국식재	동경	03-3602-9224
ウリ商店	高麟珍(1947.7.26)	건물, 한국식재	동경	03-3608-6835
(株)ウリ物産	高麟範(1949.9.12)	식료품판매	동경	03-3379-5634
(株)永明	吳永錫(1953.5.25)	한국식료품 판매	동경	03-3353-0200
カラフードセンター	金萬璟(1945.12.16)	건물점	동경	03-3833-4564
貴生堂漢方	白世鐘(1927.3.13)	한방약, 건강식품	동경	03-3621-0362
共榮商會	金萬璟(1945.12.16)	한국 소재	동경	03-3831-1867
金龜	金種雲(1941.12.20)	주류점	동경	03-3678-8935
(株)くりや	李東杰(1948.6.23)	한약판매	동경	03-3831-2922
サイ・フード	崔貞子(1931.4.29)	김 판매	동경	03-3468-4085
(有)四季苑觀光	徐在明(1927.3.15)	도시락점	동경	03-3371-2105
(有)大宮商事	許榮裕(1936.1.4)	식품 잡화	동경	03-3905-7101
(有)達本食品	徐琪榮(1939.6.30)	식품소매	동경	03-3602-3058
曹仙太郎	曹仙太郎(1933.8.27)	채소 소매	동경	03-3917-1626
釜山食品店	申東哲(1936.11.14)	한국식품점	동경	03-3840-3310
丸正商會	李相培(1950.3.15)	건물점	동경	03-3878-5500
(株)美波商工	金勇光(1952.6.12)	자연식품점	동경	03-3339-8065
(株)味善物産	林廣盛(1958.5.14)	한국식품제조, 판매	카나가와	0462-33-1208
京城物産	河相肋(1945.12.30)	한국식품점	카나가와	045-251-7685
國際食品	姜錫泰(1937.12.23)	한국식품점	카나가와	0427-56-1918
韓國食品ソウル	金明淑(1949.1.13)	식료품점	카나가와	0463-43-3877
(有)東天閣	田平萬(1946.8.14)	한국물품점	카나가와	044-355-1234
もやし屋	文正子(1954.7.18)	식료품점	카나가와	0468-35-0844
金本商店	金至火(1939.10.15)	어류점	니가타	0255-86-2085
(有)岩本食品	許龍哲(1964.9.4)	한국식품제조	이시가와	0762-91-5650
パンチャン	李鐘源(1941.11.5)	한국식품점	이시가와	0762-43-9418
富永ホルモン店	金練古(1955.5.7)	한국요리점	후쿠이	0776-36-5098
新井	朴鍾柱(1930.3.19)	두부점	기후	0572-65-2527
永田商店	李虎吉(1927.5.28)	건물점	기후	058-271-8048
(有)星山食肉店	全桓業(1932.4.17)	식육점	기후	0572-57-7285
(有)榮屋食品	韓明俊(1941.5.23)	음료식품점	아이치	052-442-1616
しろべや	李恭子(1942.1.28)	도시락판매점	아이치	052-400-3954
しろべや春日店	李宗燮(1950.7.3)	도시락판매점	아이치	052-469-4473
(株)南部商會	權泰殷(1941.1.29)	육류가공판매점	아이치	052-481-5551
總合商社山潤	崔潤(1963.9.6)	한국음식점	아이치	052-721-7770
夏山商店	曹武坤(1940.8.16)	쌀, 곡류 소매점	미에	0598-51-1273
青山商店	張師憲(1938.7.24)	식료품점	시가	0775-72-0312
金子精肉店	李寧宰(1937.3.2)	정육점	시가	0775-73-1129
(株)イグチ	姜明洙(1952.4.13)	한국식품제조판매	교토	075-661-5921
キムチのほし山	李運順(1934.9.15)	한국식품제조판매	교토	075-881-2129
田中商店	田壽萬(1905.4.10)	주류판매	교토	075-841-2316
東城食料品店	李慕善(1930.3.26)	한국식품판매	교토	075-691-5577
平野商店	申富一(1941.3.29)	음식료판매	교토	075-881-8745
釜山商店	金憲二(1943.12.8)	한국요리재료판매	교토	075-781-9698
(株)舞鶴觀光開發	今村壽雄(1941.4.10)	과자소매	교토	0773-77-0145
丸文商店	文乘受(1938.1.12)	한국식품판매	교토	075-311-2926
ミートあらい	朴成烈(1941.2.17)	육류판매업	교토	07726-2-2477

## 9. 담배 관련 소매업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東海物産	李冠雨(1931.12.4)	담배판매	홋카이도	011-854-3508
(有)東邦通商	朴容海 (1933.2.23)	담배판매	홋카이도	011-852-2357
(有)丸榮榮大商事	琴泰絃(1920.12.27)	담배판매	홋카이도	011-824-8888
(有)大東商會	林榮鎬(1942.1.20)	담배판매	아오모리	0178-45-8595
(株)平和興産	張訓鐘(1931.12.25)	담배판매	이와테	0196-22-7419
(株)カトーマロニ工	李昌根(1938.4.3)	담배판매	미야기	022-356-5514
(有)大貫商事	徐德洙(1950.4.12)	담배판매	미야기	022-256-0228
(株)毎日物産	金正汶(1920.9.6)	담배판매	후쿠시마	0249-32-1512
(株)平樂商事	李正壽(1953.11.14)	담배판매	카나가와	045-261-1541
眞城エンタープライズ有	李和杰(1959.12.17)	담배판매, 자동판매기	후쿠이	0776-52-7500
東西物流	高玉鎭(1953.4.24)	담배판매	시가	0775-74-1000
(有)藤商事	金鍾厦(1932.12.29)	담배판매	교토	075-881-0122
北野商店	申東均(1931.9.27)	담배판매	효고	078-411-3926
西村タバコ店	申南珠(1937.1.20)	담배판매	효고	06-418-8177
平田タバコ店	金分占	담배판매	효고	06-499-8096
林商會	林鳳載(1934.1.18)	담배판매	오카야마	086-444-9219

## 10. 슈퍼마켓 및 편의점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有)ジョイフル	康富雄(1947.2.28)	편의점	홋카이도	0154-24-3086
(株)丸富企業	兒島顯	편의점	홋카이도	011-531-6886
(株)美松	朴顯洵(1926.10.3)	편의점	홋카이도	011-861-0775
(有)堀井商店	金可玟(1946.5.5)	편의점	사이타마	0489-96-8007
(有)イワモト	李珍鎬(1950.3.7)	편의점	도쿄	03-3903-6447
(有)進光商事	金明平(1948.1.5)	편의점	나가노	0268-22-7476
(株)金山商事	金日昌(1936.5.15)	슈퍼마켓	기후	057Z-25-1222
バンデス	黃龍洙(1946.10.8)	편의점	기후	0584-23-1188
(株)大國屋	黃正男(1940.9.6)	슈퍼마켓	교토	075-801-0188
(株)日動商會	黃正男(1940.9.6)	슈퍼마켓	교토	075-321-0666
(株)ビッグエム	全斗鳳(1938.5.7)	슈퍼마켓	교토	075-501-1234
ファミリア友岡店	崔昇(1953.6.28)	편의점	교토	075-956-3003
ファミリア深草久宝寺店	崔隆(1948.12.9)	편의점	교토	075-643-7585
(株)マサル	趙赫濟(1936.5.11)	슈퍼마켓	교토	075-882-4400
(株)松田産業	洪載穆(1932.3.12)	슈퍼마켓	교토	075-751-8877
(株)河萬	河萬濟(1920.11.5)	슈퍼마켓	오사카	0720-47-7622
(株)コスモ	吳政彦(1949.11.1)	슈퍼마켓	오사카	06-462-8111
サンショップ	朴鍾信(1944.5.11)	편의점	효고	078-391-3580
ロータリー會館	姜玄哲(1956.1.19)	편의점	와카야마	0734-32-3280
ポプラ都町店	李清菊(1941.10.29)	편의점	히로시마	082-231-5979
ローソン 嘉穂穂波店	朴鐘寬(1958.12.1)	편의점	후쿠오카	0948-21-0396

## 11. 기타 소매점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京王物産	李春燮(1925.5.19)	비료 및 농약판매	홋카이도	0155-23-1241
(株)花新	金龍周(1954.5.19)	생화판매	교토	075-321-3609
花と緑のおあしすひまわり	宋基泰(1941.11.7)	생화판매	교토	075-791-2396
フラワーショップブルーム	申文壽(1958.4.20)	생화판매	교토	075-702-8887
和商店	金良夫(1944.8.28)	생화판매	효고	078-783-2604
ユー	兪修(1954.9.28)	화훼판매	히로시마	082-244-7350
花ひで	金韓成(1949.8.14)	화훼판매	후쿠오카	093-531-7378

## 12. 한국요리점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有)櫻苑	鄭在洙(1948.3.4)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4-277-2617
焼肉高麗	李東祿(1937.2.11)	야끼니꾸점	효고	078-811-5350
(有)味のむらまさチェーン	朴榮一(1945.10.21)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44-72-6616
里味亭	權德鎬(1961.6.7)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5-802-6119
高麗飯店	金日麗(1936.4.20)	야끼니꾸점	효고	06-416-0318
一九食堂	池柳青(1925.9.14)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64-42-2090
(有)三千里	林成憲(1962.4.26)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6-43-8929
香樂園	田末子(1944.4.6)	야끼니꾸점	효고	078-731-7580
焼肉うまかろう	崔英子(1940.10.14)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463-6-3691
三道苑	高四鳳(1922.12.2)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2-63-5344
古都園	姜高行(1956.3.22)	야끼니꾸점	효고	06-429-3515
焼肉大阪屋	金慶鐵(1937.1.20)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66-47-7088
(株)シャルムインタナショナル	石熙允(1929.5.9)	한국요리점	카나가와	045-231-1701
壽光園	李哲憲(1957.5.3)	야끼니꾸점	효고	06-401-0918
焼肉大阪屋	金光鎬(1955.12.5)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66-22-4682
焼肉盛龍苑	韓在必(1938.2.2)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5-322-0112
食道園	李尙樹(1953.11.12)	야끼니꾸점	효고	0727-55-8151
焼肉處冠木門	鄭英順(1928.3.15)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23-23-3618
(株)昔宮商事	昔鍾根(1928.3.25)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4-222-4759
(株)セオ・コーポレーション	安相進(1963.3.21)	야끼니꾸점	효고	078-785-5001
焼肉ハウス伽倻	姜錫和(1947.3.12)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1-683-8949
(有)千成	朴東秀(1922.11.20)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7-78-3812
相樂園	黃安子(1935.10.10)	야끼니꾸점	효고	078-331-5134
貴州園	朴一江(1941.1.1)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55-24-4859
(有)相福	李相斗(1922.6.15)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5-261-2040
(有)ソレイユ	張勝一(1962.12.9)	한국요리점	효고	078-321-5489
(有)輝龍通商	金鍾鎬(1943.5.5)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1-853-8558
(有)大慶商事	朴正達(1942.12.30)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5-252-3855
(有)宝の水	裴鍾綠(1935.1.2)	야끼니꾸점	효고	078-411-3803
(有)輝和	金英治(1952.6.24)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537-3-3093
焼肉大成苑	成錦珠(1938.9.18)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27-58-8990
たちばな	林昌言(1926.5.13)	한국요리점	효고	06-418-1188
焼肉銀座園	蔣韓培(1934.12.9)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25-54-2938
つたや	李智惠子(1943.5.19)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2-23-4529
焼肉店だるまや	羅秋男(1949.10.5)	야끼니꾸점	효고	078-621-0769
くいしんぼう	甘朝平(1951.9.23)	야끼니꾸, 라면	홋카이도	01464-2-1569
天柳	田炳文(1920.3.20)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7-22-3622
焼肉天光	文炳泰(1953.7.27)	야끼니꾸점	효고	0795-22-4163
楠本商店	金韓寅(1951.6.6)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38-40-2989
(有)東天閣	田平萬(1946.8.14)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4-355-1234
鳥十	金達雄(1948.10.26)	야끼니꾸점	효고	0727-57-6153
(有)屈足平和園	金溶鍍(1951.1.9)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566-5-2139
韓國料理鳥吉	河憲明(1942.1.18)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2-53-1828
なにわ路	姜亭吉(1943.2.10)	야끼니꾸점	효고	06-481-2828
焼肉鹿州	金將志(1949.5.13)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66-24-5337
とんちゃんや	金佳子(1963.2.10)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8-25-9067
なら	崔清吉(1949.5.4)	한국요리점	효고	06-432-0719
鹿北園	洪相達(1919.5.20)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1-531-7485
(有)西原商事	韓仁洙(1950.1.20)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4-344-0672
南州園	李鎭午(1954.11.27)	야끼니꾸점	효고	06-416-4138
元宝園	李元奎(1921.9.10)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1-682-8961
焼肉ニューソウル	梶原醇子(1945.4.7)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3-24-0289
平和	宋聖玉(1944.1.8)	야끼니꾸점	효고	078-391-0554
焼肉香月園	尹碩朋(1937.3.15)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66-22-2183
(株)ニュートーヨー	趙鏞恪(1920.1.12)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5-503-2011
焼肉平和園	曹萬福(1948.7.16)	야끼니꾸점	효고	078-922-8045
宏樂園	柳良幸(1952.4.14)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38-22-0030
香味	張豊翼(1932.5.8)	야끼니꾸점	카나가와	0468-41-2911
奉天	金奉天(1945.4.29)	야끼니꾸점	효고	078-331-2982
琴似園	林福南(1931.3.19)	야끼니꾸점	홋카이도	011-641-4888

### 13. 중국요리점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有)カネタ	金斗鎭(1935.1.31)	라면점	훗카이도	0155-62-1823
くいしんぼう	甘朝平(1951.9.23)	라면점	훗카이도	01464-2-1569
(株)東邦住設	朴圭一(1949.9.29)	라면점	훗카이도	011-281-2880
カトヤ食堂	李成也(1960.8.17)	중화요리	이바라키	02999-2-0307
牡丹江飯店	金豊(1950.2.23)	중화요리	치바	0478-54-0101
榮來亭	鄭榮采	중화요리	도쿄	03-3461-6163
(株)共英企畫	姜英培(1944.9.15)	중화요리	도쿄	03-3839-5151
(株)シー・アイ・エフ	周泰鳳(1960.5.10)	중화요리	도쿄	03-5400-1912
千樂軒	裴永出(1925.2.8)	중화요리	도쿄	03-3311-4733
(有)東亞企業	許浩永(1960.4.5)	중화요리	도쿄	03-3381-4706
(有)イッペイ	金春坤(1926.3.25)	중화요리	도쿄	0426-24-0010
中華吉野	金森泰(1961.1.6)	중화요리	도쿄	0424-85-3140
上海亭	金慶鎬	중화요리	카나가와	045-651-9087
(有)ラーメン大將	辛一用(1941.9.6)	라면점	카나가와	045-622-8757
ラーメン大將	辛亥用(1947.4.5)	라면점	카나가와	045-788-5469
永蘭	水上水輝	중화요리	야마나시	0553-22-7651
(株)北京館	申鉉福(1947.9.23)	중화요리	나가노	0268-62-1333
(有)新井	朴容權(1950.8.19)	중화요리	기후	0574-25-8555
角屋	朴鍾淑(1934.6.6)	라면, 우동	기후	058-262-8571
(有)金龍	金德岩(1933.11.17)	북경요리	기후	0572-22-9181
古井壽飯店	朴容權(1950.8.19)	중화요리	기후	0574-25-8555
(株)日本ライン石庭	朴洪庄(1934.9.1)	중화요리	기후	0574-26-4731
(有)アクトワン	辛民燁(1952.6.18)	라면점	아이치	052-471-5210
五條ラーメン	宋武志(1949.7.4)	라면점	아이치	052-482-3998
中國料理富士	崔明秀(1951.7.17)	중화요리	아이치	052-451-3996
宝龍	池伯善	중화요리	아이치	052-303-3265
中華日江	孫日甲(1952.1.31)	중화요리	미에	059-225-4441
中國料理白菊	崔清一(1944.3.24)	중화요리	시가	0748-33-0858
(株)大五産業	朴善岳(1920.1.19)	중화요리	시가	0775-64-2274
ラーメン番屋	白正根(1937.3.23)	라면점	시가	0775-34-5001
(株)石岡染工場	金春雄(1945.11.14)	라면점	교토	075-661-4555
(株)エム・エンタープライズ	金壯平(1964.11.18)	라면점	교토	075-882-3929
(株)河京	河阪路(1935.10.28)	라면점	교토	075-662-0006
(株)廣東	金東洙(1922.2.11)	중화요리	교토	0771-24-0149
(株)京都ファインフーズ	鄭保(1944.4.5)	중화요리	교토	075-954-2332
どさんこラーメン	李正守(1934.4.22)	라면점	교토	0773-62-0314
中華飯店百万石	李元文(1931.2.21)	중화요리	교토	075-721-2659
(株)金龍	林一(1936.5.6)	라면점	오사카	06-213-6825
小紅樓	金光潤(1940.10.12)	중화요리	오사카	06-323-2159
中國料理大成閣	于學成(1922.5.19)	중화요리	오사카	06-271-5238
(有)東光商事	金大淑(1933.1.20)	라면점	오사카	06-724-5171
(株)鹿鳴館	李豊茂(1940.11.9)	중화요리	오사카	0725-44-9508
(有)華林	金清吉(1945.2.26)	중화라면점	효고	0797-38-4482
金さんラーメン	崔重成(1974.8.5)	라면점	효고	06-498-2443
中華苑	金四郎(1944.2.1)	중화요리	효고	06-401-7989
(株)マスターズゴルフ倶楽部	田宅相(1921.9.24)	중화요리	효고	0794-83-3333
廣東軒	姜睿景(1942.4.14)	중화요리	와카야마	0734-36-2929
長安閣	天野隆平(1947.10.28)	중화요리	와카야마	0734-33-1515
丸宮中華そば	張琴仙(1930.1.17)	중화소바	와카야마	0734-45-4880
金ハラーメン	金玉周(1952.8.4)	라면점	오카야마	086-232-1516
豚龍ラーメン	徐奉華(1940.2.14)	라면점	오카야마	086-425-6425
洛陽	金正守(1939.6.18)	중화요리	오카야마	086-473-2689
河九	鄭在九(1921.10.3)	라면점	히로시마	082-672-4994
ラーメン大學	林源玉(1947.1.10)	라면점	야마구치	0832-66-2359
中華そば岩田屋	朴相烈(1947.1.25)	라면점	토쿠시마	0884-23-1576

## 14. 레스토랑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トッパス	金忠義(1945.6.14)	레스토랑	훗카이도	0952-26-5253
(有)イモト	朴眞市(1949.12.3)	패밀리레스토랑	아오모리	0176-22-5557
(株)金和	李斗浩(1946.11.17)	레스토랑	아오모리	0178-23-3467
レストランシェフ	金義成(1953.10.28)	레스토랑	아오모리	0175-22-6067
(株)リ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	李承浩(1951.10.24)	서양요리점	아오모리	0178-23-3476
(有)大貴商事	徐德洙(1950.4.12)	레스토랑	미야기	022-256-0228
(有)藏王商事	鄭順澤(1939.11.15)	레스토랑	야마가타	0236-32-6297
(有)二葉商事	權根錫(1924.5.6)	레스토랑	후쿠시마	0246-36-6110
(株)三樹	趙鏞樂(1927.3.1)	레스토랑	토치기	028-636-2727
(株)有遊	徐鳳晚(1957.12.20)	레스토랑	사이타마	048-874-8600
(株)遊樂	徐鳳晚(1957.12.20)	레스토랑	사이타마	048-856-3600
(有)東伸商事	金福東(1946.9.1)	레스토랑	치바	0470-27-3578
(有)百花亭	金鐘保(1947.4.14)	일식레스토랑	치바	0474-34-7869
(株)香川産業	朴順東(1924.11.7)	철판구이레스토랑	도쿄	03-3951-5683
カルビ屋	李根祥(1932.6.27)	레스토랑	도쿄	03-3585-8960
(株)カワミ商會	河丙鉦(1935.9.15)	레스토랑	도쿄	03-3986-7101
(株)共英企畫	姜英培(1944.9.15)	레스토랑	도쿄	03-3839-5151
(株)ザ・ベスト	朴安淳(1945.1.24)	레스토랑	도쿄	03-3574-7079
(株)スモークストーン	安王錫(1941.7.8)	레스토랑	도쿄	03-3499-2442
(株)ツルヤ商事	李英一(1953.6.5)	레스토랑	도쿄	03-3892-8770
レストラン壹番館	許俊(1928.4.10)	레스토랑	카나가와	0462-61-1357
(株)信榮	崔鶴洙(1924.10.9)	레스토랑	카나가와	045-312-3733
ソウル・ハウス	李德順(1964.14.9)	레스토랑	카나가와	045-251-0018
(株)平川商事	李千壽(1925.3.25)	레스토랑	카나가와	0468-52-3371
(株)甲州ほうとう小作	韓秀男(1942.9.27)	일식레스토랑	야마나시	0552-53-2088
(株)アメニティーズ	金元東(1935.3.1)	레스토랑	나가노	0268-62-4500
コックボーイフード	徐吉郎(1941.5.11)	패밀리레스토랑	나가노	0286-64-2061
(有)新豊商事	朴翰淳	레스토랑	나가노	0263-52-6821
(有)ベニーライン	河光一(1958.4.10)	레스토랑	나가노	0268-62-1026
(株)宮本物産	金商太(1926.7.29)	레스토랑	나가노	0267-23-5678
カフェレストランオレンジ	吉田泰一(1956.4.20)	레스토랑	후쿠이	0776-73-2489
南歐廚房ボンメール	李元雨(1953.7.24)	이탈리아요리점	기후	0584-73-8016
(有)アクトワン	辛民燦(1952.6.18)	레스토랑	아이치	052-471-5210
(株)大林	李承權	레스토랑	아이치	0562-33-1248
(有)現代商事	李乘龍(1945.10.15)	레스토랑	아이치	052-202-0161
(株)第一ワールド	李新吉(1941.2.7)	레스토랑	아이치	052-834-2727
どんどん	朴龍三(1954.3.7)	레스토랑	아이치	052-444-8419
カフェレスはなぶさ	申載永(1946.8.28)	레스토랑	미에	0595-21-1829
古満亭	朴正淳(1917.1.22)	레스토랑	시가	0775-82-2663
(株)南大門	文順任(1938.5.22)	레스토랑	교토	075-841-1102
(株)平川	金泰厚	레스토랑	교토	07747-3-3115
(株)河萬	河萬濟(1920.11.5)	레스토랑	오사카	0720-47-7622
ザナドウ	金庸一(1944.12.25)	레스토랑	오사카	0722-22-6878
(株)大成	金一雄(1939.9.7)	레스토랑	오사카	06-693-6366
(株)はや	速水淨二	레스토랑	오사카	0722-21-5200
梁産業	梁淳三(1930.8.21)	레스토랑	오사카	06-333-8118
(株)富士産業	朴在春(1921.8.22)	레스토랑	오사카	06-361-6086
(株)星野企業	金清正(1939.10.13)	레스토랑	오사카	06-351-2263
(株)美樹	朴遵山(1938.1.29)	레스토랑	효고	0795-42-4747
(株)みや古商事	鄭潤次(1965.10.6)	레스토랑	나라	0742-33-0984
マルコポーロ	徐聖旺(1947.10.19)	레스토랑	와카야마	0734-33-1939
(株)山陰観光	朴正順(1937.2.12)	레스토랑	시마네	0855-22-7211
(有)榮徳商事	孫德順(1958.10.1)	레스토랑	오카야마	086-222-7788
(株)神戸屋 レストランシステム	朴俊雄(1940.5.24)	레스토랑	히로시마	0849-26-1122
(株)下關ステーションホテル	朴讚熙(1935.3.11)	레스토랑	야마구치	0832-32-2128
カフェレストランにんじんの家	車安雄(1947.6.4)	레스토랑	코치	0888-42-4567
(株)ティアンドジー	申明彦(1954.8.11)	레스토랑	후쿠오카	0948-25-7631
(株)ティー・オー・ジー	朴柱玉(1920.3.26)	레스토랑	후쿠오카	093-531-1110
(有)和幸企畫	姜点伊(1933.5.7)	레스토랑	후쿠오카	0947-72-7744
(株)三祐商事	崔貞子(1933.1.9)	레스토랑	나가사키	0957-63-6205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喫茶にれ	李德基(1921.9.1)	찾집	훈카이도	0126-24-1735
カフェテラストップ	宣勝男(1944.6.28)	찾집	훈카이도	011-531-6921
喫茶なん	南妙順(1945.10.31)	찾집	훈카이도	0166-23-8143
プレイワン	柳基好(1951.5.21)	찾집	훈카이도	0143-43-7168
(有)青森マルサ	李斗浩(1946.11.17)	찾집	아오모리	0177-35-2910
(有)金剛商事	李眞弘(1950.9.14)	찾집	아오모리	0178-45-6388
(有)公樂	李相慶(1931.2.24)	찾집	이와테	019-645-8118
新幸商事	崔在淳(1925.5.29)	찾집	이와테	0193-82-5733
(有)ロイヤル	宋文男(1954.8.22)	찾집	미야기	022-225-2696
喫茶輕食樹里	金淳泰(1939.3.26)	찾집	토치기	028-622-6668
(有)埼京商事	趙清來(1929.4.15)	찾집	사이타마	048-832-1739
(株)千命	金敬和(1949. 8.24)	찾집	치바	0438-23-0123
喫茶[丘]	金京洙(1926.12.28)	찾집	도쿄	03-3825-4401
(有)國本商店	鄭芳明(1958.6.8)	찾집	도쿄	03-3454-4482
コーヒータカラ	梁聖宗(1939.2.18)	찾집	도쿄	03-3691-0001
(株)シャネル計畫	李鳳學(1929.5.20)	찾집	도쿄	03-3387-2223
喫茶シャレード	金秉烈(1922.9.7)	찾집	도쿄	03-3848-1571
(株)正光商事	李正一(1938.7.10)	찾집	도쿄	03-3840-6868
(有)日東興業	李鳳學(1929. 5.20)	찾집	도쿄	03-3387-2224
純喫茶[蕃]	韓斗河(1946.12.23)	찾집	도쿄	03-3823-5362
ピーコック	宋己錫(1937. 3.27)	찾집	도쿄	03-3964-2077
喫茶店ブラジル	洪京漢(1925. 1.30)	찾집	도쿄	03-3977-7666
(株)みすず商事	朴浩吉(1954. 8.25)	찾집	도쿄	03-3991-3281
(有)三益興業	李鳳學(1929. 5.20)	찾집	도쿄	03-3387-2223
永寶商事	朴在鳳(1921. 5.28)	찾집	도쿄	0426-26-1754
エデン	洪奇正(1937. 7.20)	찾집	카나가와	045-441-1001
(有)城田商事	孫承殷(1923. 5. 1)	찾집	카나가와	045-252-6262
純喫茶ニューフロリダ	金甲祚(1937.11.19)	찾집	카나가와	0462-64-3835
(株)パシフィックカンパニー	朴輝(1940.10.29)	찾집	카나가와	045-681-5796
(株)新潟ゲームセンター	朴正古(1953. 5.20)	찾집	니가타	025-245-5661
十九娘	李金華	찾집	기후	0574-26-6297
(有)最上	朴宗喜	찾집	기후	0574-26-6297
らんぶる	任秀雄(1951.11.18)	찾집	기후	058-253-4989
(株)清水観光	卞利長(1940.8.15)	찾집	아이치	052-586-2766
(合)大仁	朴守(1940.10.7)	찾집	아이치	052-882-7711
喫茶中日	金竹滿子(1944.10.14)	찾집	아이치	052-521-3068
ふじわら	李信子(1945.5.31)	찾집	아이치	052-451-6681
ルパン	林斗順(1933.10.8)	찾집	아이치	052-381-8027
カフェレスはなぶさ	申載水(1946.8.28)	찾집	미에	0595-21-1829
プレジデント企画	權敏雄(1948.1.1)	찾집	시가	0775-34-0527
喫茶青山	崔正勳(1946.8.17)	찾집	교토	075-222-1416
(株)アサヒ第一商事	李振國(1932.11.5)	찾집	교토	075-371-7270
喫茶エデン	張曾蘭(1937.4.15)	찾집	교토	075-314-7826
(株)エム・エンタープライズ	金壯平(1964.11.18)	찾집	교토	075-882-3929
(株)カットマン	張鎬駿(1938.3.14)	찾집	교토	075-661-3708
金原機械店	金南九(1923.10.8)	찾집	교토	075-461-6148
喫茶コロンビア	韓國男(1941.6.19)	찾집	교토	075-221-5545
喫茶サントロベ	車照秀(1945.3.18)	찾집	교토	075-314-5799
(有)シクラメン	金精基(1953.9.7)	찾집	교토	0773-76-3489
ニュークイーン遊技場	全東鷹(1943.6.6)	찾집	교토	075-312-8022
峰	洪倫洽(1923.9.11)	찾집	교토	075-811-5931
喫茶・エデンチェーン	■勝利(1945.1.4)	찾집	오사카	06-649-6095
(株)於巢路	韓成協(1942.4.24)	찾집	오사카	06-773-3986
コーヒーレストラン・グラスゴー	林建吾(1941.3.15)	찾집	오사카	06-622-2651
喫茶コンパル	羅光雄(1943.9.17)	찾집	오사카	06-323-1772
(株)サンイーストプレース	鄭容志(1953.2.13)169 -	찾집	오사카	0729-61-8851
喫茶タイム	趙淑衡(1938.8.29)	찾집	오사카	0725-45-1234
梁産業	梁淳三(1930.8.21)	찾집	오사카	06-333-8118
(株)富士産業	朴在春(1921.8.22)	찾집	오사카	06-361-6086
三原商店	鄭正敏(1925.10.20)	찾집	오사카	06-668-2007

15. 찻집

16. 기타 음식점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一心亭	孫燠炫(1937.2.25)	스키야키	훗카이도	011-231-3630
(有)大阪屋	全榮植(1931.1.7)	음식점	훗카이도	0167-56-2741
くいしんぼう	甘朝平(1951.9.23)	오코노미야키	훗카이도	01464-2-1569
(株)東邦住設	朴圭一(1949.9.29)	스시	훗카이도	011-281-2880
(株)ニコビル	趙民大(1928.11.1)	일본요리	훗카이도	011-261-0012
(有)秀ちゃん	宋秀雄(1949.9.2)	오코노미야키	훗카이도	011-512-8023
(株)三ツ星レストランシステム	康福成(1957.12.14)	스시	훗카이도	0154-23-8030
(有)大邸	朴亞晴(1943.12.5)	음식점	훗카이도	0197-65-3838
(有)きく家	金哲男(1942.6.17)	소바	미야기	022-288-7991
(有)くれた商事	吳炳泰(1937.2.10)	소바	미야기	022-286-9778
(株)縣民観光開發	李光男(1934.6.3)	돈까스점	미야기	022-375-0631
(株)大慶商事	鄭圭夏(1925.9.15)	음식점	미야기	022-256-6867
たこ焼秀ちゃん	宋武雄(1947.1.28)	타코야키	미야기	022-265-1865
(有)トマトレジャー開發	金世紘(1967.4.22)	음식점	미야기	0228-32-4588
(有)分町観光	金政郁(1925.5.31)	스시	미야기	022-263-7744
(株)成光産業	李相浩(1922.7.8)	음식점	아키타	0188-32-7174
(有)エム・アールカンパニー	崔鍾煥(1929.12.19)	음식점	후쿠시마	0249-34-2422
(有)壽エンタープライズ	姜昌順(1934.8.11)	이탈리아요리점	이바라키	029-226-8501
(株)日南企業	南昺守(1931.1.8)	이탈리아요리점	토치기	028-636-2778
(株)三陽開發	李好珍(1949.9.6)	음식점	사이타마	048-645-2495
ステーキハウス川口牧場	洪美代子	스테이크점	사이타마	048-255-7684
(有)エムズプロジェクト	鄭滿義(1960.7.4)	음식점	치바	0439-55-2222
(株)サンライトコーポレーション	韓仁洙(1950.1.20)	음식점	치바	043-222-3731
お好み焼壽壽	安藤和範(1959.3.3)	오코노미야끼	치바	043-825-1321
(有)西村	李錫魯(1930.3.19)	스시	치바	043-486-0011
(株)秋葉原ビル	金京俊(1953.7.18)	스시	도쿄	03-5687-0002
(有)一番星	高淳賢(1929.1.5)	오코노미야끼	도쿄	03-1310-7778
(株)一福村田商會	金昶輝(1929.4.19)	음식점	도쿄	03-3252-3421
(株)榮都商事	金福鉉(1927.9.1)	소바	도쿄	03-3841-0874
(株)共英企畫	姜英培(1944.9.15)	음식점	도쿄	03-3839-5151
(株)金榮商事	金昶輝(1929.4.19)	음식점	도쿄	03-3837-0001
(株)幸進商事	金鶴鎮(1921.10.)	음식점	도쿄	03-3256-3731
(株)三和興産	李學出(1930.11.5)	음식점	도쿄	03-3200-2269
(株)シー・アイ・エフ	周泰鳳(1960.5.10)	식품점	도쿄	03-5400-1912
(有)昌京苑	任敏子(1932.8.12)	소바	도쿄	03-3902-7700
(株)進興物産	朴碩勳(1961.1.29)	일식점	도쿄	03-3234-4563
(有)台所家	張文煥(1943.10.29)	스시, 여패류무역	도쿄	03-3421-0333
そば處天作	申才容(1957.9.25)	소바	도쿄	03-3314-0345
(有)東亞企業	許活永(1960.4.5)	소바	도쿄	03-3381-4706
(株)東京サミット	張文煥(1943.10.29)	스시	도쿄	03-3461-2288
(株)ネオフーズインダストリー	柳泰永	음식점	도쿄	03-3888-8611
(有)平野商事	尹榮翼(1937.10.10)	음식점	도쿄	03-3842-0231
ふじや	金寅九(1918.3.18)	음식점	도쿄	03-3203-0419
味里	金載洙(1953.9.8)	음식점	도쿄	03-3209-8070
百花	趙玉仙(1935.7.10)	음식점	도쿄	03-3356-2582
ももたろう	金英美子(1932.6.14)	오코노미야끼	도쿄	03-3377-7588
(有)サンアンドムーン	崔相一(1949.5.19)	음식점	카나가와	045-752-2330
(有)三慶	黃三男(1952.11.17)	스시	카나가와	045-251-9783
(株)ミドリグループ・コーポレーション	柳濟善(1919.2.15)	패스트푸드점	카나가와	0463-22-1565
ドライブイン榮食堂	徐振五(1922.5.20)	음식점	야마나시	0765-83-3355
(有)新井	朴容權(1950.8.19)	중화라면	기후	0574-25-8555
(株)大山觀光	李宗柱(1955.1.14)	음식점	기후	0574-25-1313
やき處十べえ	朴容權(1950.8.19)	오코노미야끼	기후	0574-25-0563
居酒屋浪華	朴奉石(1946.1.10)	음식점	기후	0572-23-6639
風來坊	趙清明(1966.1.10)	닭요리점	기후	0583-70-4094
昇月	張淸志(1941.10.17)	오코노미야끼	시즈오카	0559-51-4300
弘獨樂	金京珍(1951.3.26)	음식점	시즈오카	054-253-8293
新井屋	裴龍分(1928.5.1)	음식점	아이치	052-571-8905

## 17. 주점

회사명	대표(생년월일)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キャバレーアマゾン	金勝廣(1950.6.23)	카바레	훗카이도	011-512-4873
黄色いシャツ	倉田銀珠(1957.9.20)	주점	훗카이도	011-521-9714
金酔	崔純子(1949.10.4)	주점	훗카이도	01566-5-2953
(株)三ツ星レストランシステム	康福成(1957.12.14)	서양식 주점	훗카이도	0154-23-8030
(株)ロンドンユニオン	朴圭一(1949.9.27)	주점	훗카이도	011-251-7031
ワールド	崔純子(1949.10.4)	주점	훗카이도	01566-5-2953
(株)ワールド實業	任泰洋(1961.7.24)	클럽	훗카이도	011-512-1444
(有)大貴商事	徐德洙(1950.4.12)	주점	미야기	022-256-0228
(株)成見兄弟商事	金哲男(1940.9.30)	주점	미야기	022-262-8694
(有)山形カントリーフーズ	金昌玉(1925.1.8)	주점	야마카타	0236-31-9410
アバ	徐元濟(1942.6.23)	주점	후쿠시마	0246-23-0547
(有)壽エンタープライズ	姜昌順(1934.8.11)	주점	이바라키	029-226-8501
(有)成和壽商事	姜貞兒(1938.11.15)	주점	이바라키	029-226-8501
(有)木村商事	李時香(1937.9.27)	주점	토치기	028-638-3711
(有)大進商事	金彦植(1935.10.5)	주점	토치기	0285-25-8338
(株)松屋商事	李準炯(1931.1.6)	주점	토치기	028-638-9420
居酒屋明月館	李種泰(1936.1.23)	주점	토치기	0285-22-0397
居酒屋一休	姜信雄(1941.2.8)	주점	군마	0277-47-3419
一休	姜英順(1946.7.16)	주점	군마	0276-45-9898
焼とり鳥松	朴千緒(1938.1.3)	꼬치구이	군마	0272-53-0981
(有)大川商事	吳雙巖(1938.1.17)	주점	군마	0492-53-3468
(有)堀井商店	金可玆(1946.5.5)	주점	사이타마	0489-96-8007
(株)松山振興	李秀貴(1951.9.3)	노래방주점	사이타마	
(有)金龍園	金龍珍(1946.1.25)	주점	치바	0471-64-3529
松林産業	金清次(1934.3.9)	주점	치바	0474-23-3301
(株)エスアンドジー	韓義孝(1962.7.25)	주점	치바	03-3350-6177
かほる商事	金博美(1960.12.7)	주점	도쿄	03-3571-3235
カルビ屋	李根祥(1932.6.27)	주점	도쿄	03-3585-8960
(株)共英企畫	姜英培(1944.9.15)	주점	도쿄	03-3839-5151
(株)金榮商事	金成日(1929.4.19)	주점	도쿄	03-3837-0001
(株)金原興産	金東圭	주점	도쿄	03-3986-2761
(株)ササクラ	鄭舜相(1948.1.1)	주점	도쿄	03-3647-0642
(株)三王商事	玉南枢(1923.2.20)	카바레, 주점	도쿄	03-3680-2251
(株)三祐商事	韓元燮	주점	도쿄	03-3821-1527
(株)三和興産	李學出(1930.11.5)	주점	도쿄	03-3200-2269
春香	内田宮子(1934.8.5)	주점	도쿄	
仙家	金平秀(1941.6.3)	주점	도쿄	03-3831-2887
(株)大星商事	方利俊(1925.10.28)	주점	도쿄	03-3208-9501
大門	金太一(1939.9.15)	주점	도쿄	03-3842-3240
大力	許來會(1940.7.9)	주점	도쿄	03-3607-3884
(株)中央商事	李相連(1938.3.28)	주점, 노래방	도쿄	03-3902-0708
(株)ツルヤ商事	李英一(1953.6.5)	주점	도쿄	03-3892-8770
鳥長	崔亨哲(1922.6.8)	꼬치구이	도쿄	03-3710-5867
(株)長岡商事	張潤鍾(1921.7.21)	주점	도쿄	03-3831-9675
にゅう鳥金	鄭金男(1949.7.25)	주점	도쿄	03-3400-8270
(有)富三商事	康光男(1941.12)	주점	도쿄	03-3388-0361
ボンジュール	吳美代子(1943.8.2)	주점	도쿄	03-3644-1328
(有)明星商事	李富子(1942.5.15)	주점	도쿄	03-3987-7570
(株)安田商事	安爽珪(1925.7.9)	주점	도쿄	03-3574-7838
スナック夢	金辰奎(1928.1.5)	주점	도쿄	03-3376-5517
クラブリー	文末子(1932.9.24)	주점	도쿄	03-3634-2455
レミエ	朴次郎(1936.9.11)	주점	도쿄	03-3428-0556
ロンロン	金鎮洙(1935.9.25)	주점	도쿄	03-3339-6177
(有)赤坂観光	朴錫演(1932.11.26)	클럽	도쿄	0426-22-7157
スナックいこい	金澤地(1937.10.26)	주점	도쿄	0425-44-1276
(有)香川商事	辛基權(1934.2.19)	주점	도쿄	0423-25-5216
ビーゾーン	梁玉珠(1922.7.7)	주점	도쿄	0425-22-4735
酒處ふく	河春子(1924.2.25)	주점	도쿄	0425-25-0356
フリージア	趙年雄(1947.6.30)	주점	도쿄	0425-23-2695
味畫	南正順(1946.11.17)	주점	도쿄	0423-79-0200

점포명	대표자명	전화	팩스	지역	
비바리	李銀熙	06-6794-0077		大阪府	大阪市平野區加美東 4-1-27
アヲ亭 堂島店	永井京子	06-6345-2939	06-6345-1855	大阪府	大阪市北區堂島浜1-4-4 アク
清香園 (札幌)	卞斗俊	011-231-7272	011-884-5855	北海道	北海道札幌市中央區北一條西 7
アヲ亭 豊中店	永井京子	06-6846-4129		大阪府	大阪府豊中市緑丘 4-35-19
江陵苑	金清俊	011-866-2300	011-866-2300	北海道	北海道札幌市白石區本郷通 8
古里庵	崔載蓮	06-6211-6225	06-6211-6225	大阪府	大阪市中央區日本橋 1-4-4
本格焼肉 なんこう園7條店	黄亮市	011-512-7720	011-563-7448	北海道	北海道札幌市中央區南7條西5丁
李さんの店	李承任	06-6881-5233		大阪府	大阪市北區池田町 2-1 グリ
本格焼肉なんこう園新宿通り店	黄亮市	011-531-6140	011-563-7448	北海道	北海道札幌市中央區南6條西4丁
チョンサチョロン	吳夏順	06-6636-5975		大阪府	大阪市浪速區大國 2-8-19 堺
南大門	山本恵子	017-777-1133	017-761-4423	青森縣	青森縣青森市松原 3-9-18
健康館 パゴだ白雲	山本 嵩	06-6764-7647	06-4304-2126	大阪府	大阪市天王寺區小橋町 12-15
南大門 (本店)	山本恵子	017-777-2377	017-761-4423	青森縣	青森縣青森市新町 1-8-3
燦々亭	石山陽優	06-6203-0088		大阪府	大阪市中央區平野町 2-5-14
龍成	榮成永	017-776-3115	017-782-3721	青森縣	青森縣青森市本町2丁目 4-2
チョゴリ	石山陽優	06-6232-2322	06-6232-2322	大阪府	大阪市中央區平野町 4-2-1
サージュ	金順德	017-766-2662	017-766-2662	青森縣	青森縣青森市篠田 1-29-3
名月 (大阪)	中山榮愛	06-6268-8676		大阪府	大阪市中央區備後町 1-1-3
明月館 (青森)	朴大喆	017-722-7373		青森縣	青森縣青森市新町 1-10-1
グロリア	湖山淑敬	06-6775-7622	06-6775-7622	大阪府	大阪市天王寺區生玉町 12-1
焼肉韓國料理 京園	金英順	017-783-2903	017-783-2903	青森縣	青森縣青森市千富町 1-13-12
モランカク	中村美樹	06-6753-0198	06-6753-0198	大阪府	大阪市生野區中川 2-1-3 10
韓國庶民料理 「庭」	鄭永眞	017-723-6532	017-723-8648	青森縣	青森縣青森市橋本 2-13-5 市
壽	豊川	06-6949-0050		大阪府	大阪市中央區東高麗橋 3-10
大同江	崔達永	0175-64-3929		青森縣	青森縣上北郡野辺地町宇右神裏
韓味情	崔濟順	06-6633-3315	06-4305-2470	大阪府	大阪市中央區日本橋 2-8-16
永同園	朴日順	0193-62-0681		岩手縣	岩手縣宮古市宮町 4-5-2 1
みりゃん	朴金哲	06-6636-2983	06-6636-2949	大阪府	大阪市浪速區惠比須西 2-2-1
サンスボン (山水鳳)	尹水鳳	019-634-1610	019-634-1611	岩手縣	岩手縣盛岡市本宮 4-3-1 5
オモニ	イムミョンソク	06-6213-9350	090-8366-3289	大阪府	大阪市中央區島之内 2-2-6
大昌園 (秋田)	金喜一	0186-42-2929	0186-42-2929	秋田縣	秋田縣大館市向町 1 2-1
アイジャパン	林茂	0182-32-1212	0182-32-9898	秋田縣	秋田縣横手市鍛冶町 2-44
ソウル (花園北)	木村秋月	06-6636-6466	080-1442-8009	大阪府	大阪市西成區花園北 2-11-28
ソウル家	尹正花	018-863-7192	018-862-9200	秋田縣	秋田縣秋田市大町 4-1-9
韓國料理明洞 (山形)	渡辺順子	023-615-1066		山形縣	山形縣山形市七日町 2-1-3ば
炭火焼肉ソウル	洪志昊	06-6212-5100	06-6212-9320	大阪府	大阪市中央區東心齋橋 2-1-1
釜山港	三浦成子	023-624-6005		山形縣	山形縣山形市香澄町 2-6-19
開城食堂	住明子	06-6752-0635		大阪府	大阪市生野區中川 2-17-10
マダン	金永愛	024-925-0507		福島縣	福島縣郡山市驛前 2 丁目 5-1
いもの家	金美辰	06-6752-3233		大阪府	大阪市生野區新今里 3-16-9
朝日や	松本清	0248-25-6161	0248-48-0570	福島縣	福島縣西白河郡西郷村眞船茂町
友人	金永煥	06-6646-0231		大阪府	大阪市西成區花園北 2-3-12
焼肉レストラン 湖南亭	李正道	0246-58-2929	0246-58-7580	福島縣	福島縣いわき市鹿島町 久保
名水	北川 智恵	06-6757-1144	06-6757-7445	大阪府	大阪市生野區中川 2-2-6 1
仁寺洞	金昶洙	029-856-2234	029-860-8189	茨城縣	茨城縣つくば市天久保 1-1
晃 (ヒカル)	李慶姬	06-6649-7353		大阪府	大阪市浪速區惠比須東 2-3-1
明洞 (茨城)	李京淑	029-858-2359	029-853-0937	茨城縣	茨城縣つくば市天久保1丁目
韓日館別館	李明姬	06-6213-3080	06-6213-3767	大阪府	大阪市中央區西心齋橋 2-16-
伝統韓國焼肉定食石&石	羅同錫	029-823-6656	029-823-6656	茨城縣	茨城縣土浦市櫻町 2-9-16
韓日館	李明姬	06-6213-3089	06-6211-6453	大阪府	大阪市中央區西心齋橋 2-4-6
焼肉スンチャン驛東谷	崔二順	028-633-4434	028-645-9445	栃木縣	栃木縣宇都宮市東宿郷 1-7-

<부록 3> 「한일 우정의 잔치」 참여 점포

<부록 4> 제일 한국식품연합회 회원사 내역

회원사명	대표자명	설립 일	자본금 (만엔)	년간매상 (만엔)	주요거래품	전화번호	주요거래처(일본)
(株)이동JAPAN	金孝燮	1995.7	1,000	80,000	막걸리	03-5837-2208	國分(株), 伊藤忠商事(株)
(株)世珍物産	裴相鎬	1995.2	1,000	18,000	떡볶이·소스제 조 등	03-5831-3830	(株)青山商事
(株)韓國廣場	金根熙	1993.3	8,000	310,000	한국식재일반	03-3232-5400	(株)アオキ,(株)農 心,(株)五星
(株)五星物産	裴五星	1951.6	6,000	300,000	식품,주류등	03-5907-5080	(株)三井食品,(株)三 洋物産,(株)東榮貿 易
(株)高麗貿易JAPAN	朴良基	1986.3	37,000	100,000	고려인삼제품,한 국술등	06-6262-3205	(株)伊勢丹デパート ,(株)大阪近鐵デパ ート
(株)SL JAPAN	文泰龜	1997.7	1,000	50,000	한국김치,식재등	048-933-5007	(株)フレセ,(株)オギ ノ
(株)해찬들 JAPAN	金奎煥	2001.3	1,600	42,000	해찬들 고추장	03-5831-0099	日本ハム(株)
(株)SHIN.INTERNA TIONAL CO.,LTD	申尙潤	1999.1 2	1,600	42,000	고춧가루초콜렛, 김	048-994-6730	(株)JTB トラベラ ンド トレーディン グ,(株)日旅産業
(有)台宇	鄭東奎	2000.9	500	12,000	술수입판매등	03-3224-1433	明治屋商事
韓國酒類販 (株)	張聖道	2003.8	1,000	12,000	한국주류	03-5610-4321	(株)やまや
高麗食品(株)	金 日	1995.1	2,000	11,000	식료품,주류	048-920-6223	(株)元一,(株)松山
(株)元一	趙元濟	2000.5	1,000	140,000	김치,유자차	03-5839-3901	(株)三井食品,(株)西 野商事
(株)大一物産	張銀哲	2001.6	1,000	24,000	창자	03-5672-2831	(株)チムニー
(有)食友物流	韓昌熙	2003.9	500	12,000	고춧가루,김치	03-5672-2622	(株)大山,(株)元一
(有)三進	姜德慕	2005.3	300	2,000	냉면	048-994-6733	生脇
(株)大山	鄭奎華	2000.9	300	70,000	고춧가루,유자차, 당면(냉면)	03-5850-8661	(株)小儀岩欠郎
(株)日新通商	金澤みさお	2004.4	1,900	63,000	레토르트식품,인 스턴트면	03-5661-2417	(株)ドウシシャ,(株) 太子堂グループ
(株)松山	李政基	2004.1 2	1,000	35,000	한국식품전반	03-5851-1451	フナイ商事, 物産 ドンツン
(株)岡商事	豊儀文夫	2005.3	800	15,000	유자차,음료,순 창고추장	03-5839-3923	(株)ヅヤスコワタミ
(株)大岩商事	金谷浩史	2003.1 1	1,000	30,000	순창고추장	03-5647-1702	ワタミ(株)
(株)보리JAPAN	李峻熙	1996.3	2,000	18,000	삼계탕	06-6975-3175	(株)カネトミ商事
(株)NEW JAPAN F OOD CORP.	李承官	1983.8	1,100	80,000	고춧가루,냉면, 수산물	078-333-4123	(株)日本アクセス 加藤産業(株),(株) カروت吉
鄭物産有限會社	鄭炳珠	2001.1	500	35,000	한국김,김치	045-451-5817	明治屋商事(株),(株) 伊勢丹
(株)두리商事	趙正熙	2000.6	3,000	250,000	한국식품,식재, 미디어콘텐츠	03-5850-5127	(株)ドン・キホーテ (株)國分
(株)DONG-A TRA DING CO.,LTD.	黃柄昱	1999.5	3,000	200,000	한국식품,식재	03-5607-1500	(株)ハナマサ
(有)에이티 TRADIN G CO.,LTD.	金鎮太	1999.1 0	300	24,000	서비스업	03-3806-6690	(株)カーコサービス

주 1) 그 외 회원사: (株)韓亞流通, (有)中央物産, (株)네오商事, (有)韓世

2) 가입수속중인 회원사: (株)世亞企畫, (有)韓拳商事, (株)巨山, (株)해태JAPAN, 眞露JAPAN(株), (株)KOA, 종  
가집(주)두산食品BG東京事務所, 百歲酒JAPAN, (株)ドールJAPAN, (주)サリックス, (株)第一物産

<부록 5> 농식품관련 재일 한국기업  
목록

회사명	대표	사업내용	회사위치	연락처
(株)鮮京ジャパン札幌支店	河仁珪	수산물수출	홋카이도	011-222-5371
(株)OTTOGI食品	李惠源	식품수출입	도쿄	03-3478-2820
(株)韓國海王東京事務所	安東濬	냉동참치수출	도쿄	03-3543-6066
(株)韓國物産	李南燮	농수산물, 가공식품수출	도쿄	03-5412-2525
(株)韓周化學東京支社	李炳權	유제품, 식품수출	도쿄	03-3225-4770
(株)韓周ジャパン	李炳權	농수산물 수출	도쿄	03-3225-4770
(株)金福商事東京事務所	金詩安	법주, 소주수출	도쿄	03-3585-4900
(株)グレートグリーン	韓正澤	건강식품 수출입	도쿄	03-3814-7141
(株)現代ジャパン	崔秉一	농수산물 수출	도쿄	03-3211-0711
(株)KOLON商事東京支社	金日坤	농수산물수출	도쿄	03-3226-1041
(株)高麗貿易ジャパン	李相佑	종합무역	도쿄	03-3593-1225
(株)三星ジャパン	劉常夫	종합무역	도쿄	03-5641-9600
(株)眞露ジャパン	金泰勳	진로소주, 기타주류	도쿄	03-3479-2900
世元ジャパン	金世鍾	근약	도쿄	03-3773-2692
(株)鮮京ジャパン	趙承秀	수산물수출	도쿄	03-3591-3231
(株)CJ東京事務所	申相福	제조식품 수출	도쿄	03-5641-9571
(株)大宇ジャパン	李奭熙	식품전반 수출	도쿄	03-3597-7801
(株)東部ジャパン	洪建裕	비료 수출	도쿄	03-3508-2070
(株)東洋化學工業	藤山和夫	농약원재수입	도쿄	03-3593-0492
(株)東洋製菓東京事務所	文民庸	과자수출, 식품원료수입	도쿄	03-3662-8209
(株)東洋物産企業東京事務所	崔容坤	농기계수입	도쿄	03-3571-4847
(株)斗山ジャパン	金炳求	수산물, 인삼제품 수출	도쿄	03-3508-2125
(株)南北水産東京事務所	金榮坤	냉동참치수출	도쿄	03-3501-7609
(株)農心東京事務所	朴俊	라면, 스낵수출	도쿄	03-3595-0880
(株)ヘテジャパン	金大廈	식품, 농산물수출	도쿄	03-3592-0744
(株)ヘテ製菓	李成植	식품수출입	도쿄	03-3592-0748
(有)ムハクジャパン	崔在鎬	식품, 음료수출	치바	0473-63-8787
(株)ロッテ七星飲料東京事務所	金泰煥	식품, 음료수출	도쿄	03-5388-5631
(株)ロッテ製菓東京事務所	劉周夏	과자식품수출, 식품원료수입	도쿄	03-5388-5623
(株)ソウル通商日本事務所	梁錦姬	인삼제품수출	시즈오카	0557-83-2812
(株)現代ジャパン名古屋支店	金昌豪	식품수출	아이치	052-962-3768
(株)現代ジャパン大阪支店	鄭宗蕉	종합무역	오사카	06-251-4921
(株)高麗貿易ジャパン大阪支店	朴良基	종합무역	오사카	06-262-3205
(株)三星ジャパン大阪支店	徐康浩	수산물수출	오사카	06-949-4804
(株)鮮京ジャパン大阪支店	千昌鎬	수산물수출	오사카	06-281-8961
(株)CJ大阪事務所	朴世源	제조식품 수출	오사카	06-949-5161
LGジャパン 大阪支店	尹一重	농수산물, 식품수출	오사카	06-263-1621
(株)韓國物産大阪營業所	李根模	농수산물, 가공식품수출	오사카	06-767-7661
(株)現代ジャパン福岡支店	金珍泰	수산물, 식품수출입	후쿠오카	092-481-2300
(株)三星ジャパン福岡支店	韓昌憲	수산물수출	후쿠오카	092-475-7025
(株)鮮京ジャパン福岡支店	崔鍾君	수산물수출입	후쿠오카	092-481-6791
(株)大宇ジャパン福岡支店	安昌赫	수산물 수출	후쿠오카	092-852-5800